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AUG 19 1982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04 1982년 8월 18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Wednesday, August 18,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고 국장 : 송광호

대학생극 『카인의 후손』 관객 6백 동원

맹목적 종교 신랄 비판

시도·열의 높이 평가, 전달에 문제

숨막힐 듯이 덥고 어두운 U.C.Play House(토론토대학 구내)의 1백여 관중석에 약 5분간 찬바람을 불어준 「요화」의 웃음소리는 기독교, 특히 한국식 기독교의 독불 에 젖은 사람들에겐 각성제가 되기에 충분했다.

한인대학생 문학써클 「구름다리」가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영어와(하오6시) 한국어(하오8시30분)로 공연한 창작극 「카인의 후손」.

이 연극은 표현전달에 비평의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시도」란 점에서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파란조명아래 그네에 올라앉은 요화는 할머니의 맹목적 신앙을 비웃는 웃음을 날리면서 "나는 천주님"이라고 할머니를 홀리고, 기도만 붙들고 있던 할머니는 그 말을 의심치 않고 죽어간다.

젊은이들이 얼마나 기성세대의 종교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나를 과감히 나타내 주는 이부분은 극의 클라이맥스이자 가장 뛰어난 대목이었다.

연관중 6백여명을 동원한 「카인의 후손」은 4개월간의 진통의 산물. 애초에 엄혁이 한국발표 원작을 맡았던 것을 참가자 전원이 조금씩 고쳐갔고, 영어대본도 참가자들의 공동작품이다.

프로그램도 만들지 않은 일부 젊은이들의 자기표현이었지만, 젊은층 뿐 아니라 연극을 전공한 일부 인사를 비롯한 기성인관객들을 끌어들이는데 성공, 연6백명의 관객동원에 성공했다.

준비음악이 끝나고, 조명이 환한 무대 작은테이블에 테리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앉았고, 요란한 발소리를 내며 등장한 지니가 앙칼진 목소리로 오빠 테리를 나무란다.

등장인물은 모두 4명. 테리와 지니는 돈많은 친척할머니와 함께 살고 의붓남매이고, 여기에 또다른 배다른 형제인 요화가 나타나면서 긴장이 시작된다. 목적을 위해 수단을 합리화시키는 요화는 할머니의 돈을 뺏기 위해 무능한 테리를 녹여 3장에서 할머니를 죽인다.

비판능력을 잃은 테리가 "지니"하고 소리치는 장면으로 전5장이 끝난다.

무대장치는 5장내내 변함없고(단지 3장에서 「천국에의 길」을 사다리로, 요화가 그네에 앉는다는 것이 유일한 변화) 조명으로 색감을 주었다.

15일 마지막 한국어 공연을 지켜본 관객 L씨는 "진행은 무리가 없었으나, 한국말을 경우 어휘사용에 문제가 있었고, 일부 배역의 기본발성, 단조로운 움직임등이 조금 걸렸지만, 젊은이들의 시도와 열의는 높이 살 만했다"고 말했다.

이날 영어·한국어 공연을 다 봤다는 K씨는 "배역의 연기면에서 영어배역진이 세련됐었다"고 말했다.

"창작극을 시도한 것 까지는 좋았으나, 〈죄와 벌〉(도스토예프스키작), 〈카인의 후예〉(황순원 작)와의 유사성을 피하지 않은 점이 이해가 안간다"는 Y씨의 촌평도 「구름다리」의 다음 공연을 위해 소중한 충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현씨가 보이지 않는 총감독을 해냈고, 이웅건의 할머니역이 인상적이었다.

한편 「구름다리」는 이번 공연을 기념하는 특집 작품집 제7권(총94페이지)을 입장객들에 배부해 주었다.

◆「카인의 후손」 배역과 스탭
원작 : 엄혁
무대감독 : 조중근
기획 : 박성민
조명 : 김명세
미술 : 조중현

〈영어극〉
할머니 : 입항빈
테리 : 민태규
지니 : 이성희
요화 : 이영희

〈한국어극〉
할머니 : 이웅건
테리 : 이광복
지니 : 박지연
요화 : 이성화

◆요화(왼쪽 이성화 분)의 계교와 지니의 설득(박지연 분)가운데서 마음을 잡지 못하는 테리(이태규 분). 15일 저녁 U.C.플레이하우스에서 공연된 「카인의 후손」의 한장면.

◆막이 끝나고 뒤에서 수고한 사람들을 불러내 박수로 서로를 격려했다. 왼쪽부터 기획의 박성민, 무대감독 조중근, 뛰어난 연기를 보여준 한국어 할머니역의 이웅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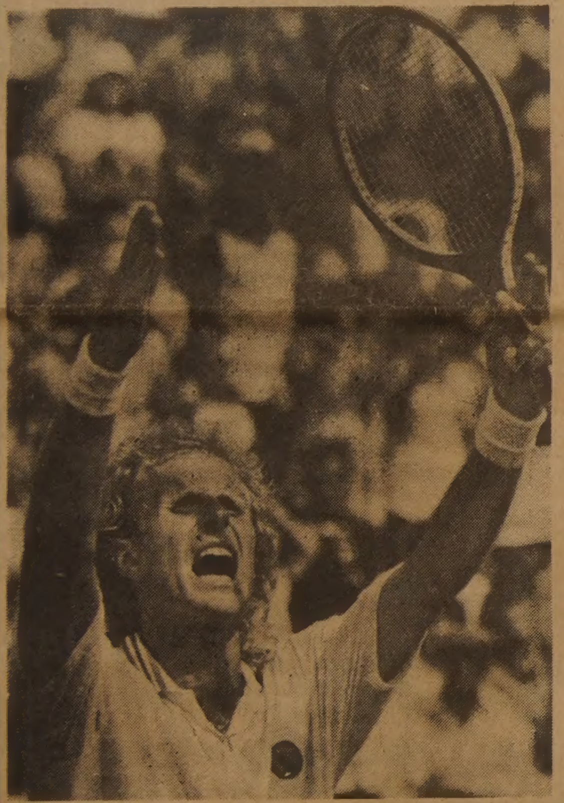
장영자등 항소 금융부정사건

(서울17일=연합)한국 최대의 금융부정사건 주모자 장영자·이철희부부를 비롯한 유죄판결자 11명은 16일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다른 21명은 지난주 이미 항소했다.

서울형사지법은 지난9일 32명의 피고인에게 최하50만원 벌금에서 최고 15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장씨부부는 15년형을 받았고, 2명의 은행장은 담보없이 불법대출한 이유로 7년및 4년 징역형을 받았다.

광업진흥공사장이며, 전대통령 처삼촌인 이규광씨는 4년형을 받았다.



제룰라이투스 우승

◆캐나다 오픈테니스 챔피온쉽에서 체코의 강호 이반·렌들을 꺾고 1위상금 미화 4만8천달러를 거머쥔 뉴욕커 바이타스·제룰라이투스가 환호하고 있다。(관계기사 2면에)

월·저널 분석 "심각한 문제 있으나 선진공업대열 눈앞에"

(뉴욕16일=연합)한국에는 최근 정치적및 경제적으로 고무적인 3개의 사건이 있었고, 한국은 선진 민주공영국화할 가능성이 중간점 이상에 도달했다고16일자 미국의 월·스트릿·저널지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장영자 금융부정사건이 외국자본유치에 타격을 주었으나, 최근 사태가 호전되고 있다.

첫째, 정책수립자들은 전임자들보다 좀 더 현실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들은 현대의 복잡한 경제, 사회는 1개 보병사단을 용병하듯 쉬운일이 아니다라는 점을 자각[illegible]. 이때문에 정부소유 은행들이 민간에 불하되었고, 서울주식시장이 외국인에도 개장됐다. 경제정책가들은 투자형태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취소했다. 수입규제는 완화됐고, 관세가 상당히 내렸다.

사회분야에서는 정부는 한국정부 수립이래의 통행금지를 폐지했고, 국내인의 해외여행을 어느정도 풀어놨다.

둘째, 70년대에 들어 삼성, 현대, 대우같은 재벌회사들은 국제경쟁에서 잘 이겨내 대기업가가 청와대에 불려가 꾸지람 듣던 시대는 지났다.

셋째, 경제정책의 역점을 투자에 대한 엄격한 통제에서 좀 더 광범위한 전략적 협력관계로 변경했다.

과거 한국의 수출은 미국, 일본에 집중돼서 국제금융계의 우려를 자아냈으나, 한국의 세일즈맨은 대통령을 위시해서 유럽및 미개발국에 뛰어 나가고 있다.

한국은 또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계획을 세웠다.

"경기하락의 끝이 없다"

통계국발표, 자동차·주택·수출 계속 부조

(오타와)아직도 경기침체의 바닥이 안보인다.

캐나다 통계국이 16일 발표한 각종지수중 경기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금리부문과 주택부문이 계속 침체상태에 있어 경기회복의 장래는 계속 암울한 상태에 있다.

지난 5월달의 모기지(주택금융)허가 건수가 작년보다 28%가 줄었다고 발표한 캐나다경제 통계국은 "불안정한 고금리는 경제회복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보았다.

임금인상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6~5%로 임금인상선을 묶은 연방정부예산안[illegible] 개인당 임금 지급률은 오히려 떨어졌다.

주택건설, 증권시장, 자동차판매고등 10가지 기본경제통계로 경기를 점치는 캐나다 통계국은 아직 회망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경기회복은 주로 수출증가와 건설경기회복에 의존된다. 수출증가는 미국시장에 의존하고 있고, 미국의 경기하락 속도는 늦추어져 아직도 경기하락추세를 벗어났다는 조짐은 아무것도 없다고 한 통계관은 말했다.

자동차경기는 부분적으로 부양했으나, 전반적으로는 침체, 가까운 시일에 회복된 전망이 없다.

일본대사관 피격 유리창 1개 깨져

(서울17일=연합)주한 일본대사관의 [illegible] 유리창이 한국인이 던진 돌멩이에 맞아 깨졌다.

4층 건물의 맨위층에 있는 유리창은 한국경찰의 경비강화에도 불구, 일본의 교과서왜곡 사건에 분개한 한국인의 돌팔매질을 당한 것이다.

지난12일 35세의 한국인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자기 손가락을 자르고 온몸에 휘발유를 끼얹어 분신자살을 기도했다가 경찰의 제지를 당했다.

오늘의 예금금리

기 간	한인신용조합 일반정기예금	한인신용조합 오뚜기정기예금	일반은행
30일	13.5%		13%
90일	14%		13.75%
180일	14.25%	14.25%	13.75%
365일	14.5%	14.5%	13.75%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533-9387~8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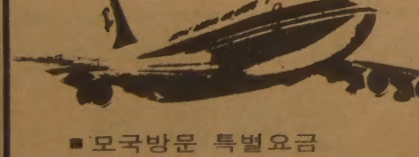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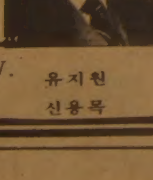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화수 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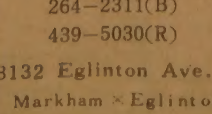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은하 보석
대리점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란콤화장품
귀국선물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제일여행사

■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VANCOUVER 경유)
■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 각종단체 관광요금
■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B)535-2377
(R)366-0864
649A BLOOR ST. W.
유지원
신용목

양국 수뇌회담이 두 나라의 우애를 더욱 증진시키고 특히 한국교포의 캐나다 이민 문호개방을 위한 적극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1982년 8월
캐나다 탁구협회
회원및 이사일동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
AVENUE, 벤트럭, USED·CAR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의 문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제룰라이투스 렌들 꺾어

캐나다 오픈테니스우승, 이덕희 탈락

테니스계에 이변이 속출했다. 노장 지미·코너스가 윔블돈 챔피온이 된 후 다시 노장 제룰라이투수가 케네디안 오픈챔피온이 됐다.

지난8일부터 시작, 15일에 끝난 「프레이어스·인터내셔날」캐나다오픈테니스대회는 코너스가 부상으로 준결승에서 물러나고, 아직도 세계 제1의 강자라는 존·매켄로는 체코의 신예 이반·렌들에게 준결승에서 물러났으나, 렌들은 결승에서 전형적인 뉴유커 바이라스·제룰라이투스에게 4-6, 6-1, 6-3으로 패하는 이변이 속출했다.

15일 하오1시 욕대학 센타코트에서 열린 결승에서 수많은 여성팬들의 응원에 힘입는 제룰라이투스는 지극히 평범한 교과적인 테니스로 새로운 세계강자 렌들을 물리쳤다.

제룰라이투스는 바로 렌들이 없는 곳에 볼을 분배, 제1세트의 4-6, 열세를 만회, 2·3세트를 6-1, 6-3으로 승리, 1위 상금 4만8천달러를 긁어냈다.

한편 몬트리얼에서 속개된 여자부에 출전한 한국의 이덕희양은 15일의 1회전에서 서독의 이바·프파프양에게 7-6, 6-3으로 패해 탈락했다.

캐나다오픈챔피온쉽은 상금면에서는 2주후 뉴욕에서 열리는 U.S오픈대회 다음 가는 것으로 남자부와 여자부를 분리, 토론토와 몬트리얼에서 번갈아 열린다. 해마다 8월의 첫주말 남자부경기부터 시작, 2주째에 끝나며 세계의 강호 테니스선수들이 찾아드는 권위있는 대회다.

이덕희양은 작년 이 대회때 세계8위 루마니아의 어지니아·루치시를 물리치고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 있다.

LA교포 또 피살

양원호씨 귀가길에 당해

(LA지사)남가주한국학교 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뭇데그룹(2635 W. Olympic Bl. LA)을 경영하는 양원호씨(44)가 13일 밤10시30분경 자택(423 Alzado St. Monterey Park)문앞에서 피한의 총격을 받고 현장에서 절명한 사건이 발생해 교포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숨진 양씨의 가족에 의하면 이날밤 양씨가 귀가해 자동차를 주차시키고 정문벨을 눌러 큰아들이 나가 문을 열어주었는데, 이때 양씨 뒤에서 누군가가 양씨를 불러 문앞에서 10여발자국 거리까지 가서 약간의 언쟁이 있은후 갑자기 총성이나서 가족들이 달려나가 보니, 양씨가 길에 쓰러져 신음하다가 곧 절명했다는 것이다.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몬트레이파크 경찰은 양씨의 시체를 LA카운티 검시소로 이관시켜 시체 해부를 요청하는 한편 범인색출에 나섰다.

가족들은 밤10시30분께 양씨의 승용차가 주차하는 소리를 들었으며, 이어 도어벨소리가 울려 정문을 열었으며, 양씨가 집안으로 들어서려고 할때 누군가 뒤에서 「헤이! 유!」라고 말을 걸었다고 한다.

양씨는 이소리에 뒤를 돌아보고 나서 아들에게 "먼저 집안으로 들어가라"고 이르고는 범인이 있는 곳 까지 문에서 10여발자국 걸어나갔으며, 잠시후 언쟁소리와 함께 총성이 울리면서 양씨가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같은 광경을 리빙룸 커텐사이로 밖을 내다보던 큰아들은 총소리가 나자 놀라서 가족들과 함께 뛰어 나가본 즉 양씨가 몇번 신음소리를 낸 후 말한마디 없이 그대로 절명했다.

양씨의 피살사건은 너무나 눈깜짝할 사이에 발생한데다 밤이었기 때문에 가족들도 커텐사이로 내다 보았지만 범인의 얼굴은 정확히 목격하지 못한것으로 알려졌다. 범인은 차를 타고 도주했다.

충남 공주태생인 양씨의 유가족으로는 부인 패트리셔·양씨와 아들 레이·양(12)군과 봅·양(10)군등이 있다.

金聖鍾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50>

殺意의 斷層 ⑰

칼을 간직한 그녀는 남편과 파티장에…

『아니야…아니야…난 그럴수 없어…난 힘없는 여자에 불과해…』

그녀는 완강히 부인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느새 칼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이것으로 내가 그놈의 가슴을 찌를 수가 있을까. 힘껏 찌른다. 그놈이 자고 있을때 가슴을 찌르는거다. 그런데 만일 칼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놈은 강철같은 놈이니까 가슴에 칼이 안 들어갈지도 모른다. 두손으로 꽉 움켜쥐고 내려찍으면 어떨까. 가슴팍이 아무리 강철같다해도 들어가겠지. 피가 많이 나올거야. 아마 피바다를 이룰거야. 그녀는 번더리를 치면서 목을 움츠렸다. 그런수는 없어.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

그러나 그녀는 칼을 버리지는 않았다. 버릴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는 유일 무이한 무기이기라도 한듯 그것을 몸속깊이 간직했다.

눈송이가 굵어지고 있었다. 어느새 날은 저물어 있었다.

약속 장소로 나가 앉아있는데 운전사가 데릴러 왔다. 남편은 차속에 앉아있었다.

차가 출발했다.

『첫눈 치고는 꽤 많이 오는데…』

남편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무표정하게 눈이 내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있었어?』

『아뇨.』

『그럼 얼굴이 왜 그래. 다 죽은 사람같아. 파티에 가는 사람이 화장도 하지않고 그게 뭐야.』

『죄송해요. 어지러워서 그래요.』

『왜 요새는 그렇게 자주 아프지?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한번 받아봐.』

『받아봤어요. 특별히 아픈데는 없대요. 신경성 같대요. 신경을 안정시켜야 된대요.』

『그런 진단이야 나도 내리겠다.』

성처럼 거대한 R그룹회장의 저택은 이미 축하객들로 초만원을 이루고 있었다. 저택으로 올라가는 길 양편에는 자가용차들이 줄을 이어 서있었고 교통순경까지 와서 차량을 정리하고 있었다. 차들에 밀려 저택까지 올라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문자 부부는 멀리서 차를 내려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갔다.

안으로 들어서니 수백평되는 마당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에게 축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회장은 몸이 불편해서 안에서 사람들을 접견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전 같으면 대저택과 그 으리으리한 장식에 눈이 휘둥그래졌겠지만 지금은 조금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다. 어서 나가고 싶다는 마음만 간절했다. 여자들은 모두 한복 치마저고리를 곱게 입고 있었다. 치장도 화려했다. 그들에 비해 그녀는 눈에 띌 정도로 초라해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옷차림 같은데 신경을 쓸 여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남편에게는 안됐지만 할수 없는 일이다.

한참동안 밖에서 떨고 있다가 그들 부부는 마침내 집안으로 들어갔다.

백발의 회장은 두툼한 한복 차림으로 보료위에 앉아있었다. 문자는 전에 두어번 그를 본적이 있는데 오늘 보니 유난히 조그맣게 오그라든 것 같았다. 그곁에 앉아있는 회장부인은 크기에 있어서 회장의 두배 정도는 될것 같았다. 그만큼 거대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문자는 남편을 따라 큰절을 했다. 방바닥에 이마를 대면서 역겨운 생각이 들었다.

朴 男 그림

배삼룡쇼 연장공연

19~22일 거구장에서

◆코메디안 배삼룡씨

배삼룡, 김하정쇼가 인기폭발로 1주간(19일부터 22일까지) 연장 공연된다.

지난 12일~15일 거구장에서 공연한 인기코메디안 배삼룡쇼는 자리가 없어 많은 손님이 돌아가는등 인기폭발을 불러왔다. 특히 이번 체육대회때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공연취소로 배삼룡쇼의 인기는 더했다.

거구장 대표 이한영씨는 "16일 연예인들이 돌아가려했으나, 교민들의 성원으로 극구 만류, 연장공연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음식점으로 무대까지 갖추어 한번에 약15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거구장의 위치는 401 북쪽 Keele 선상.

전화 : 742-1618

5 Berth Ridge Rd.

소매정찰제 확대 모든 상품에 적용

(서울17일=연합)한국정부는 백화점, 쇼핑센터, 수퍼마켓등에서 파는 모든 물건에 정가를 붙이도록 한다.

상공부는 96개 상품에 대한 정가제를 금년말까지 전국의 모든 상품에 확대한다.

교민동정

◆허영식(한맘한글학교장)=여름방학중 실시한 여름학교를 지난 주로 마쳤다.

가을 정규개학은 9월 중순부터라고.

◆홍진표(한맘골프클럽 회장)=오는 21일(토) 하오 1시 리치몬드·힐·골프클럽에서 여는 제7회 골프대회 준비로 동분서주.

◆정정◆

17일자 1면 체육대회 기사중 마라톤의 1·2위의 기록차이는 「1Km 5분여 간격」이 아니라 「200m 1분의 간격」이었읍니다.

록키의 절경을 렌즈에

글 전경수·사진 이기성

북쪽으로 가장 멀리 갔던 곳은 만년설로 덮인 록키의 최고봉 Mt. Robson으로, 부리티쉬·콜럼비아 주립공원안에 있다.

무한히 변화되는 풍경은 아무리 달려도 싫증을 느끼게 하지 않는다. 엽서에 자주 나오는 루이스호나 캐나다 화폐의 뒷면에까지 그려진 모레인호는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이다.

기암괴석으로 뭉쳐진 산들은 스케일이 너무 웅대하여 표준렌즈로서는 포착할 엄두도 못내고, 어떤 때는 광각렌즈로도 부족하여 초광각렌즈를 사용해도 시원치 않을 때가 많았다.

값비싼 Y씨의 광각렌즈는 인기가 대단했다. 일행의 중형 카메라는 기종이 전부 같은 것이어서, 없는 렌즈는 서로 교환해 쓸 수 있었다.

같은 장소에서 촬영은 해도, 저마다 방법에 특색이 있어서 재미있었다. 원판이 큰 이점을 이용하는 나는 느리기는 하나 될 수 있는대로 대형카메라를 사용하려 한데 비해, K씨와 L씨는 풍경도 찍으면서 틈틈이 고산지대 식물들을 클로즈업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중형카메라만을 구사하는 Y씨는 여러 악세서리를 간편히 챙겨가지고 재빠르게 이곳저곳 쫓아다니며 특수효과를 노렸고, R씨는 다양성있는 주제를 포착하는 듯 했다.

필름은 충분히 준비해 간다고 생각하였으나, 너무나 많이들 찍어대는 바람에 촬영 2일째부터는 필름 절약을 경고하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마지막 이틀간은 날씨관계로 거의 공치는 바람에 품절은 면했다.

돌이켜보면 록키의 신비에 이끌려 너무 다작에 치우친 감이 있다. 차라리 몇장의 사진만이라도 사진다운 사진을 촬영했었으면하고 후회한다.

그야말로 록키는 열번을 방문해도 지루함없이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서두에 주장한 것처럼 록키를 원정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록키에게 정복당하고 왔다는 표현이 적절하겠다. 지금도 눈만 감으면 백설로 덮인 휜봉우리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가기 때문이다.

끝으로 운전과 끼마다 조리를 도맡아 하고, 캘가리와 에드몬톤에 잠자리까지 마련하느라 애쓴 L씨의 수고가 없었더라면 이번 여행이 어려웠을 것을 부기해 둔다.

〈2〉 밴프의 산정에 우뚝 선 록키마운틴·쉽(록키 큰뿔 양)

록키의 신비에 눌려 필름 동나

그림같은 루이조호·모레인호

통계기준년도 변경 75년도서 80년으로

(서울17일=연합)한국정부는 이달부터 소비자가격(소매가격) 지수등의 물가통계 기준년도를 75년도에서 80년으로 옮긴다.

이것은 지난 수년간의 산업구조와 소비성향 변동등을 좀 더 잘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조처이다.

이와함께 도매물가 조사품목은 현재의 613개에서 845개로, 소비자지수는 349개에서 394개 품목으로 증가한다.

금년 1-7월간 도매물가는 75년 기준으로 하면 2.2%가 올랐고, 소매물가는 3.6%로 인상됐으나, 80년을 기준으로 하면 각각 1.9%, 3.7%가 올랐다.

여성의 보람

대한부인회를 출범시키고

양 혜 신(캐나다한인총연합 대한부인회장)

◆양혜신여사

1982년4월10일, 손꼽아 고대하던 부인회를 발족하게 되어 감격과 환희를 금할 수 없다. 이것은 경애하는 여러 고마운 분들의 힘찬 뒷받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6년전부터 이곳에 한인여성단체가 있어야 하겠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으나, 여성들도 생활전선에서 밤낮 뛰어야 하니 고달프고 바빠서 서로 뜻을 같이하는 동지 규합이 힘들어서 차일피일하다가 어언간 6년이 덧없이 지나, 이제 내 나이 7순에 접어들었다.

내 여생의 사업으로 여성단체 창립을 꼭 이루어야겠다는 결심은 날이 갈수록 굳어만 갔고, 기도도 열심히 하였다.

빠른 시일 안에 부인회를 조직해야 하겠다는 조바심은 2,3년전부터 심해져서 누가 시키기라도 하는 듯이 서둘렀으나 동지를 찾아내지 못하는 안타까움만 더해갔다.

그러다가 한인회이사회에 들어가, 마침 한인회에 근무하는 오정숙 간사를 만나 손잡고 일할만한 인재로 판단되어 진지한 의견을 나누었다.

준비위원을 물색하여 계속 일을 추진해온 끝에 드디어 「캐나다한인총연합부인회」가 탄생했음은, 그 뒤에 숨은 여러 임원의 노고와 총영사관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으로 또한번 고마움을 표한다.

앞으로 어떠한 사업으로 씨를 뿌리느냐?, 「본」을 보여주느냐? 하는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있다. 단 한가지를 하더라도 알찬 일을 하기를 갈망한다.

회원 서로간에 개인적 욕심을 버리고, 참된 친밀감을 가지고 조국을 잊지않고 늘 생각하며, 우리의 2세, 3세 자녀와 후손들에게 무엇을 심어주어야 할 것인가를 마음써야 할 것이다.

어느날 신문에 실린 기사를 읽으니 올림픽 선수는 국경은 없어도 조국의 명예는 메고 뛰고, 음악가도 국경은 없지만 조국의 명예만 밝히는 것을 보았다. 과연 틀림없는 말이다.

우리 한국은 전통적으로 윤리도덕이 생생히 지켜져 내려온 우수민족이다. 위 아래가 없으면 혼돈이 된다.

내가 존경하는 한인여성들!

지금은 바쁜 시대이지만 여성들도 가정에만 얽매어 만족할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우리 여성들도 남성과 대등하게 활약하고, 한인사회를 비롯하여 이나라 사회에 널리 이바지해야 할 줄로 안다.

우리 부인회에 너 나 할 것 없이 다 모여와 뭉친 힘으로, 상호우애와 유대를 가지고 봉사하고 힘써야 하겠다.

우리들 서로가 넘치는 희생심, 사랑이 풍부한 봉사심을 지녀야 무슨 사업이든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일본사회를 찾아보았다.

토론토의 일본문화회관을 10여년전에 사들여 오늘까지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그네들의 부인회는 기독교회마다 조직되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일본인사회에는 「니게이까이」( )라는 일본인협회가 있어서 그 안에서 각교회 부인회가 주역으로 일하며, 운영비·자금등의 충당을 위해 매년 바자를 열고, 「일본TV」도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7월18일경 일본방송에서 일본인 최초의 캐나다 입국자의 내력을 알아냈다.

43년전의 일이다. 최초로 입국한일본인은 마도로스 「반자이」인데, 고기잡이로 이리저리 다니다가 토론토에 들어오고, 또한 뱅쿠버에도 들렀는데, 그는 토론토에 정착하여 생선장이로 돈을 벌기 시작하여, 교외의 나무들을 잘라서 집을 지어 살면서 일본인 선원들을 데려와 집단을 이루고, 드디어 「니게이까이」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그후 10년이 지나자 일인 인구가 늘고, 비자를 받아 정식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캐나다측 요구로 마구 들어오는 일이 없게 되었다 한다.

그들의 화평·유대등 배울 바가 많다.

우리 부인회의 자문위원 여러분과 임원 각자의 특별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며, 회원 여러분의 적극협조를 기대합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교포여성 여러분의 전원 가입으로 여성복지운동에 큰 원동력이 되어 주시기를 간청하는 바이다.

인생 황혼기에 접어든 나는 어머니의 기대를 받들어 전도사업과 기도생활에 뜻을 두고 있으므로 부인회의 기반이 굳어지고, 본 궤도에 오르면 유력하고 박력있는 일꾼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복음책 하나를 들고 전도의 길로 나설예정이다.

맛 사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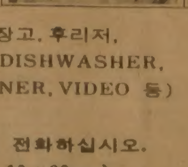
DIXIE HEALTH STUDIO

Whirlpool * Sauna
Gym * Massage
Luxurious Surroundings
OPEN 10 AM-1 AM
5170 Dixie Rd.
(near airport)
MISSISSAUGA
624-8822

LEON'S 가구점

Leon's 캐나다 최대규모의 Ware House (Show Room)

SINCE 1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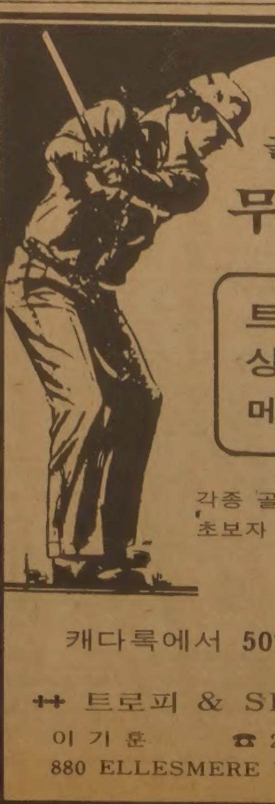


○FURNITURE
CARPETS
APPLIANCES
각종전자제품
(T.V. STEREO, 냉장고, 후리저, WASHER, DRYER, DISHWASHER, AIR CONDITIONER, VIDEO 등)

※오시기전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월~토(10 : 00am—10 : 00pm)

20 MC LEVIN AVE.
(세퍼드×마캄)
B)291-3818
R)749-9687, 746-0981
KEVIN CHO(조석민)

FINCH / LEON'S / MCLEVIN / SHEPPARD / MARKHAM / HWY. 401



트로피 골프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 패
메 달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캐다록에서 50% OFF

++ 트로피 & SPORTS ++
이 기 훈 ☎ 298-3584
880 ELLESMERE RD. UNIT 1

중고등 학생을 위한

신앙강좌

프로그램 : 1982년 8월20일(금)—가족예배
8월21일(토)—씽·어롱
강의(강사 : 태비수목사님)
워-크샵, 디-너, 프레젠테이숀(중고등학생및 대학생들)
8월22일(일)—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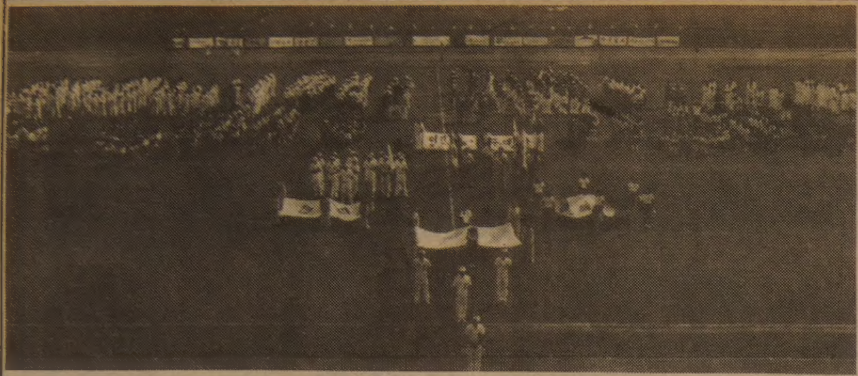
시 간 : 8월20일(금) 오후 6:30
8월21일(토) 오후 3:00
8월22일(일) 오후 6:30

장 소 : 중앙한인연합교회
333 Sherbourne St. & Carlton St.

참가대상 : 토론토에 사는 중·고등학생및 학부모님들

주최 : KIVF

한인기독대학생연합회



◆입장식을 마친 참가팀들이 광복절기념식을 갖고 있다.

◆26명의 마라토너들이 출발했으나 완주자는 절반인 13명에 불과했다.

◆반백의 마라토너는 누구일까요?

체육대회 화보 (2)

◆노래하며 춤추는 섹시(?)한 취어·리더즈 천주교 응원팀이다.

◆아빠와 함께 분전하는 세발자전거 선수.

체육대회 총평 체육대회와 운동회의 분리 화려함보다 꾸준성 보여야

"잘해라." "허리다칠라." "넘겨! 넘겨!" "돌려." 아우성과 외침속에 진행된 씨름부 준결승전. 젊었을때는 "황소 몇마리를 낚아챘다는 신장사"도 캐나다 최고기로 다져진 정기섭군의 체력에는 못 당했다.

근 6척의 거구인 신장사는 단신의 정군과 대결, 초반 10분 배치기로 1판을 얻은후, 20여분간은 체력소모전을 벌였다. 신장사는 정군의 젊은 기백에 기진맥진, 30여분 끝에 2판을 내리뺏겼다.

정군은 신장사와의 대결후 탈진상태에 빠져 유용곤씨를 물리친 석남일군과의 대결에 기권, 준우승에 그쳤다.

정군은 "토론토에서 씨름을 제일 잘한다는 석남일군도 신장사에 진 적이 있다. 정말 힘든 상대였다. 운이 좋았고, 내가 체력이 조금 앞섰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번 체육대회의 성과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교민들의 성원과 열기와는 달리 이것이 꼭 체육대회였나 하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된다.

1회대회때부터 계속된 문제였으나, 지나치게 많은 오락성 게임으로 운동회같은 느낌을 주었고, 씨름이나 마라톤은 물론 육상경기에서 기록을 재는 기록원은 물론 심판원도 없었다.

또 무리한 경기스케줄로 축구경기도 하루에 2게임씩 치르는 무리로 강자로 지목되던 모나미팀은 상오 게임에서 한인장로교회와의 열전으로 지친 나머지 런던선발팀에는 참패했다.

한 교민은 "이와 같은 열기와 성원이 있으면, 체육대회보다 한인들의 축제행사로 발전, 체육회보다는 한인회가 주최, 범교민적 행사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모 체육인은 교포2세들의 체력발전을 가져오려는 이와같은 화려한 행사보다 구기종목은 물론 어린이들 육상종목등이 정식경기 규정등을 지켜 본격 체육행사로 발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체육회 임원들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마라톤의 코스도 지켜졌을 것이고, 기록은 물론 순위상의 말썽도 없었을 것이다.

체육회는 2세들의 체력행사를 위해 평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좀 더 「캐나다 체육」이라는 것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병권체육회장을 비롯, 체육회임원들의 수고는 물론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이들 이 대회를 위해 1년내내 봉사했다. 그러나 체육인들은 흔히 놓치기 쉬운 치밀한 계획으로 단기간의 화려함보다는 장기간의 꾸준한 체육대회와 운동회의 분리등을 다시한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유승민 기자〉

◆청소년 축구 우승을 차지한 런던팀의 환희.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 개입한
서울식품 서부지점 ☎ : 243-9544
★배추김치·총각김치·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백이전골. 1391 WESTON RD
※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한국일보는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 532-0210 손병헌

경희대학교동문 낚시대회

동문 여러분, 물맑고 경치좋은 곳에서 대어를 낚으며 하루를 즐겨 봅시다.

◇시일 : 1982년 8월21일 오전11시
◇장소 : Bellwood Conservation Park
◇준비물 : 도시락, 낚시도구 지참

＊참고—B.B.Q.는 동문회에서 준비함. 각종 TROPHY와 상품증정

가족동반 하시어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연락처 : ☎ 421-7438, ☎ 924-5155, ☎ 669-5084

··· 장소설명 ···
401 W로 가다가 인터첸지 36A로 빠져 Hwy 6 North를 따라 Guelph를 지나 북으로 가면 FERGUS라는 마을이 있음. 이곳에서 동북 쪽으로 3마일지점.

동문회장 차원봉

CNE 국제태권도 챔피언쉽

일시 : 1982년8월21일(토)
예선—낮12시·본선—오후7시
장소 : SOUTH INDUSTRY BUIIDING
(전차에서 내리면 정유장 바로 뒷건물)

※ 미국·캐나다 전역에서 훌륭한 선수들이 오며, 유단자들이 특유한 격파및 호신술 시범 경기가 있음.)

연락처 : 박종수태권도장

◉ DOWNTOWN 719 YONGE ST. AT BLOOR 961-7100
◉ MISSISSAUGA DUNDAS AT HWAY 10 279-6492
◉ SCARBORO MARKHAM RD AT EGLINTON 265-0100
◉ OSHAWA 13 KING ST.W. OSHAWA 576-1571
◉ DOWNSVIEW DUFFERIN AT LAWRENCE 781-5527
◉ REXDALE REXDALE BLVD AT KIPLING 743-2562
◉ BRAMPTON KENNEDY RD S OF ORENDA 453-75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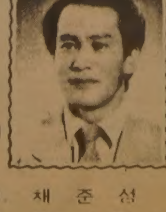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 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전화 : 〈B〉 (416)497-8900 채준선
〈R〉 (416)633-7892 (David Chae)

政府추진 117개事業 차질

전체의 11%…與件변화·不況등 영향

平澤 LNG港 건설工事등 57개主要사업 補完·재조정

올해 정부추진사업중 상당수가 여건변화와 예산부족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중에는 계획이 잘못됐거나 무리하게 짜여져 — 사업자체를 일부 폐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것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경제기획원이 국무회의에 보고한 『상반기심사분석결과』에 의하면 정부가 올해업무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고있는 총 1천1백20개의 사업 (건설사업2백39개, 시책사업 8백81개)중 6월말현재 완료됐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있는 사업은 1천3개이며 나머지11%에 해당하는 1백17개사업 (건설 40, 시책77)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이 부진했던것은 ▲경기등 내외여건변화 ▲관계부처간협조미흡▲예산확보차질 ▲무리하고 전시적인 계획수립▲사업의 타당성및 목표달성 가능성에대한 검토부족등 때문인것으로 분석됐다. 1백17개 부진사업을 요인별로 분석해보면 여건변화가 35개, 경기침체가25개, 부처간 협의지연이20개, 예산차질이 6개, 기타가 4개였으며 계획잘못도 23개나 됐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있는 사업중에서도 실적위주로 사업을 집행, 국가시책 추진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예산등 국가자원의 비효율적사용을 결과하게 하는사례도 많은것으로 지적됐다.

정부사업중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따로 뽑아 月別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있는 3백1개 주요사업중에서도 20%에 가까운 57개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역시 사전검토 불충분 (19개) 관계부처협의지연 (9개) 여건변화 (17개) 경기침체 (8개) 예산 (4개) 등이 주된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기획원은 57개 주요부진사업중에서 ▲산업구조개선및 지원체제 개편▲平澤 LNG항만건설등 15개 사업은 계획목표및 일정을 조정하고 ▲公共주택 8만호 건설▲麗川LPG수입기지건설▲知世浦원유비축시설등 20개 사업은 보완대책을 수립해서 집행토록 하는등 소관부처별로 시정을 촉구하고 시정결과를 기획원에 보고토록 조치했다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경제기획원은 또 10개의 별도 중점관리대상사업중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신규기금조성을 중지토록 하고 ▲해운진흥기금은 기금을폐지하며 ▲생산기술사업단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통합시키고▲光州圈종합개발사업은 계획을 보완하도록하는등 사업별로 시정방안을마련, 소관부처별로 통보했다.

이밖에도 ▲東海産災병원추가시설건립은 운영성과분석후 84년이후에 검토토록하고▲근로청소년회관은 관리주체선정을 재검토토록 하며 ▲漁港개발사업은 투자우선순위를 재결정토록하고 ▲一般港건설사업역시 투자우선순위를 재정립토록하며 ▲半月공업도시건설은 입주업체에대한 지원강화와 입주촉진시책을 펴는등 시정·보완을 해나가도록 통보했다.

어제 黨政회의

歪曲 시정촉구 강경對策 논의

정부와 民正黨은 13일하오 民正黨중앙당사에서 黨政책조정회의를 갖고 일본의역사교과서歪曲문제를비롯, 6·28및 7·3경제조치에 대한 보완대책및 오는정기국회대책등에관해 협의했다。

이날회의에서는 특히 일본교과서의 對韓侵略史 왜곡을 조속히 시정토록하기위한 방안과 이에따른 強硬한외교적 대응책이 진지하게 논의된것으로 알려졌다。

이자리에서 정부와 民正黨은 지난날 對韓침략 收奪행위를 糊塗, 美化하려는 일본의 역사歪曲기도는 韓日기본조약정신에 위배될뿐더러 양국의우호관계를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처사로 단정하고 歪曲시정을위해 긴밀한黨政협조를통해 보다 효과적인 강력한 대책을 펴기로 의견을모았다。

또한 일본일부 閣僚의 對韓妄言에대해서도 엄중항의와함께사과, 취소를촉구키로 했다。

한편이날 民正黨은 實名去來制등 정부의 경제조치에대한 補完대책을하고 앞으로실시과정에 반영토록요구했다。 民正黨은또 서민보호대책마련을촉구한는한편정부제안법안을 조속히 제출토록 촉구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金相浹국무총리서리、金竣成부총리、盧泰愚내무、姜慶植재무장관、許和平청와대정무제1수석、金在益경제수석비서관、趙英吉총리비서실장이、民正黨측에서는 李載瀅대표위원、王相殷중앙위의장、權翊鉉사무총장、陳懿鍾정책위의장、李鍾贊총무、南在斗총재비서실장、金瑢泰대변인이 참석했다。

외무부當局者 "是正만이 해결책"

強硬입장 거듭밝혀

정부는 13일 일본교과서歪曲문제와 관련, 歪曲부분의 是正만이 문제를 해결하는방법이라는 종래의 強硬한입장을 거듭 밝혔다。

외무부당국자는 이날 하오 사쿠라우찌(櫻內義雄)일본 외상의 12일자 기자회견내용에대해 논평을 요구받고『교과서왜곡문제는 왜곡부분의 근본적인 시정이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밝히고『따라서 시정을 위한 일본정부의 구체적조치가 뒤따를것을 기대한다』고말했다。 ★관련기사2·3면

이 당국자는 사쿠라우찌외상이 기자회견에서『학교교육이나 교과서 검정제도에있어서 韓日관계의 과거를 반성하는 인식이 반영되지않았다고한다면 참으로 유감이며 조속히 자세를 바로 잡는것이 필요할것이다』라고 발언한데대해『그것은 사쿠라우찌외상의 견해로서 일본정부 전체의 통일된 공식견해는 아닌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따라서 우리정부로서 이에대해 공식적으로 논평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같은입장은 일본이 당초 13일 정부의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었다가 이를취소하는등 일본이여전히 무성의한태도를 보인데대한 불만의표시로 일본이 조속한시일내에왜곡부분을시정해줄것을 거듭강조한것으로풀이된다。

特許權효력 一時정지

국무회의는 13일 특허법중 개정법률안, 조달기금법중 개정법률안, 농어민후계자 육성기금법중 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중 개정법률안, 상표법중 개정법률안및 의장법중 개정법률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법률중 특허법중 개정내용은 우리나라가 특허협력기구 (Patent Cooperation Treaty) 가입에 대비, 이조약에서 인정된 국제출원절차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부실특허권의 행사로부터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하기위해 특허권효력의 일시정지에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등이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교과서 是正안해 오가와, 거듭주장

【東京13日=聯】 오가와(小川)일본문부상은 13일 기자회견에서『교과서를 수정하지않는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각의가 끝난후 교과서수정방침을 시사한 사쿠라우찌(櫻內)외상소견발표와 관련,『외상발언은 외교를담당하는 입장에서 나온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문부성으로서는 종래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社會漫評

「무역마찰是正요구風」에다…
「歪曲歷史시정요구風」에다…

日外相 "歪曲조속是正 필요"

「所見」형식 발표

【東京13日=宋孝彬특파원】 일본정부는 12일하오 수상관저에서 스즈끼(鈴木)수상, 사쿠라우찌(櫻內)외상, 미야자와(宮澤)관방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각한 외교문제로 번진 교과서문제에대한 대책을 논의한끝에 어떤형태로든 교과서의 왜곡부분을 재수정한다는데 의견을모았다。

사쿠라우찌외상은 이날 회의를마친뒤 외상의 소견형식으로『한일국교 정상화 공동성명에서 밝힌 과거에대한 반성과 책임이 교과서검정제도의 운영에 반영되지않았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우며 조속히 고칠필요가 있다』고말해 재수정의뜻을 분명히밝혔다。

사쿠라우찌외상의 이같은 소견은 스즈끼수상의 양해를 얻은뒤 기자회견을통해 발표한것으로, 형식은 외상소견이지만 내용은 일본정부의공식태도로 간주된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교과서문제의 타결을위해 정정조치를취할뜻은 밝히고있으나 구체적으로 언제어떻게 어떤부분을 고칠것인가에 대해서는 밝히지않고있어 교과서문제를 에워싼 일본정부와의 마찰은 계속 될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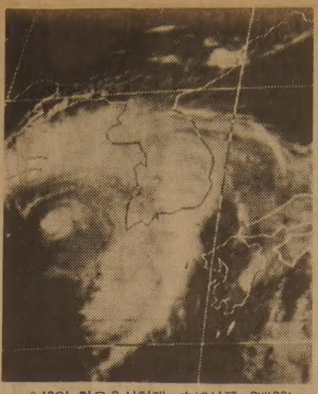
스즈끼수상은 13일 北京으로부터 귀국하는 외무·문부성의 국장들로부터 중공정부의 진의를 보고받은뒤 한국국민의 對日감정추이를 주시하면서 교과서문제에대한 최종결론을 내릴예정이다。

일본정부의 한수뇌는 이날『스즈끼수상이 국회가 폐회하는 오는21일까지 교과서문제에대한 정치적결단을 내린뒤 수상자신의 견해를 성명으로 발표, 타결을 지을예정』이라고 말했다。

湖南내륙 颱風圈

세실 西海進入 強風호우·海溢 피해

西海남부해상에 태풍警報



◇13일 하오 3시현재 木浦서쪽 2백60㎞(북위34·5도, 동경1백23·1도)해상에 있는 제11호태풍 세실。 직선으로 북상, 14일상오 6시께에는 白翎島서쪽 1백㎞(북위37·5도, 동경1백23·5도)에 도달 할것으로 보인다。【13일하오 3시 기상위성이보낸 태풍의눈】

우리나라 남·서해안및 호남일부 내륙지방이 제11호태풍 세실의 영향권에들어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와 해일의 피해가 클것같다。

중앙기상대는 13일하오3시현재 木浦서쪽 2백60㎞해상(북위34·5도,동경1백23·1도)에있는 태풍 세실이계속 북상중이어서 14일상오6시에는 서해 白翎島서쪽1백㎞해상 (북위37·5도, 동경1백23·5도)에 도달,서해상으로 빠져나갈것이라고 예보했다。

이에따라 기상대는 13일상오9시를 기해 서해남부해상에 발표했던 태풍주의보를태풍경보로,서해중부해상의파랑주의보를 태풍주의보로바꾸고 호남해안지방에도 태풍주의보를 발표했다。

기상대는 또 호남해안지방에서는 초속20~30m의 강풍과 파고5~7m의 파도가일면서 해일이 예상되고 80~1백50㎜의 집중호우가 내릴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이남상오10시30분을 기해 호남내륙지방엔 풍속14~20m, 예상강우량 80~1백50㎜의 폭풍주의보를 내리는 한편 이날하오4시를 기해 부산·영남해안및 서부경남지방에도 예상강우량 80~1백30㎜의 호우주의보를 내렸다。

현재 중심기압 9백80밀리바의 B급태풍인 세실은 대만남쪽에서 발생당시에는 중심기압 9백30밀리바에 중심최대풍속 초속60m의 폭풍우를 동반했으나 우리나라 동해안서 발달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북동진하지못하고 지그재그로 느린속도로 북상하는 과정에서 약화, 거의강한 열대성저기압으로 약화됐다。

그러나 기상대는 태풍세실이 여전히 중심부분에 초속25m의 폭풍우와 집중호우를 쏟을수있는 비구름을 동반하고있으며 서해상으로 북진중이나 아직도 확실한진로를 단정할수없는 상태여서 선박은 물론 침수지역은 특히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대는 세실의 영향으로 13일에이어 14일에도 전국에 비가내려 무더위는 기세가 꺾이겠으나 태풍이지나고 난16일께부터는 다시날씨가 맑아지면서 더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昇州지방 暴雨…百42㎜

【光州·全州】제11호 태풍세실의 영향으로 13일 상오부터 전남지방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이날하오 3시 현재 昇州郡 해룡면의 1백42㎜를 최고로 高興지방 1백33·6 順天 1백6 長興 97 海南 80·4 莞島73·4 木浦50 光州42·2㎜의 강우량을 각각 나타내고 있으며 木浦 莞島 高興등 남해안 지방에서 초속 30m의 강풍과 함께 집중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한편 전북지방에는 이날하오 3시현재 任實 18·4㎜를 비롯 扶安 18 井邑16 南原15 全州 9·2 裡里7·5㎜등 평균 14㎜의 비가 내렸다。【聯】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釜山港에 밀려드는 海溢 제11호 태풍 세실의 영향권에 든 부산등 해안 곳곳에는 산더미같은 해일이 밀어닥쳤다。 <13일하오 부산남항방파제>

地平線

여름방학을 맞아 미국의 한대학원생이 서울에 왔다。재미동포의 권유에 따른 관광여행이었다。그는 뜻밖의 일거리를얻어 여비를 벌었다。영어회화를 가르치는 아르바이트였다。아침일찍 그룹지도, 저녁엔 개인교수로 바쁜나날을 보냈다。낮시간엔 물론 서울과 근교를 마음껏 돌아다니며 구경할수 있었다。그는 보람있는 방학을 보냈고 우리나라 영어회화열에 크게 놀랐다。 민박까지 했으니 그야말로「절약여행」이었다。

▼그 영어회화를 익히려는 열기는 뜨겁다。강습소가 붐비고 각종 회화책, 카세트, 비디오테이프가 쏟아져 나온다。외국인을 따로 불러 배우는 개인레슨도 인기다。「영어市場」의 규모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기 어렵다。그저 막대한「투자」이리라 어림해볼뿐이다。카세트 테이프한벌을 사려해도 몇만원이 든다。개인 레슨 비용까지 합쳐, 영어시장의 투자액이 정확한 통계로 밝혀진다면 놀라울 것이다。

▼엄청난 외국시장에「돌팔이」와「바가지」는 없을까…이점, 서울에있는 한 외국인은 크게 걱정한다。코리아·타임스의 기고를 통해 들려주는 충고는 마음에 간직할만 하다。이 미국인은 어느날 아침 회화교육을 받고 오던 미스김을 만났다。아가씨는 한달에 3만원을내고 1주일에 닷새,하루 90분씩 회화강의를 받는다고 했다。교재는 1천5백원짜리 미국영화대본」。우리나라에도 이미 소개된 영화다。한반이 30명을 넘는 강습소에선 비디오 테이프로「정확하고 세련된 발음」을 가르쳐 준다。

▼미스 김은 대본에 나온 갓댐 (Goddamn)이란 단어를 지적하며 발음이정확하냐고 물었다。우리말로하면「빌어먹을…」쯤으로 통하는 욕설이다。이런단어는 차라리 모르는것이 좋다。쓸필요가 없으며 입에 담아서도 안된다。 괜스레 교양이나의심 받을 뿐이다。정확한 발음과 함께 실용적인 말을 배워야 한다。有用性이 없는투자라면 3만원도「過用」이란 생각이 든다。바가지를 쓴거나 다름 없다。

▼모든 일에는 따지고 드는 서양의분석적사고는 우리가 배울만하다。「몽땅 얼마요」 점잖을 빼며 한가지 한가지 셈을 해서 利를 얻는 합산력이 요구 된다。돈을 들여 범죄장면의 대화나 배운다면 분명히 낭비다。외국어 공부에도「투자의 선별」이란말이 통할수 있을것으로 본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나이야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북미 최대의 한국식당
한식, 중화요리, 화식, 케네디안식
거구장

배삼룡 앵콜-쇼

⊙연장기간 8월19일(목)~22일(일)까지(4일간)

거구장 생긴 이래 최고의 인기, 최대의 인파

"새로운 레파토리로 여러분을 모시겠읍니다"

배삼룡, 김하정, 김미리자 출연

※오시더라도 자리가 없어 그냥 돌아 가시는 손님이 많사오니 미리 예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부득이 쇼기간중에는 테이블 착지를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거구장 대표 이한영 올림

배삼룡

김하정

거구장
5 BETHRIDGE RD.
☎ : 742-1618

⊙7,8월 여름휴가중 영업시간
월~목 : 오후 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 2시~새벽2시

對日관계 「自强자세」로

「史實왜곡」하는 교활한 日本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나

힘만 있으면 누구도 못건드려 스스로卑下말고 長期대책필요

日本역사교과서의 對韓관계 歪曲은 한국측의 強硬한 요구에도 아랑곳없이 是正할기미를 전혀 보이지않고있다.

찌는듯한 8월의 무더위를 더욱 짜증스럽게만드는 답답하고도 분통터지는 日本측의 교활하고 얄미운태도는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많은 분노를 샀다.

지식인에서 일반서민에 이르기까지 한국민은 누구나 한마디씩 日本을규탄했고 있는 감정을 다해 소리높여 욕설도 퍼부었다.

정부는 이러한 熱火같은 국민감정을업고 日本에 대해 強硬一邊倒의 외교자세를 취해왔다. 일본이 지난날 저지른 역사적침략행위와 罪科를 멋대로 美化·糊塗한 역사책을 정확하게 記述, 바로잡는 구체적인 행동이외에 아무것도 있을수 없다고 한마디로 잘라버렸던 「斷乎한 외교자세」는 일단 국민의 호응을 얻는듯했다.

역사적으로 이땅에대해 저질렀던 온갖 침략, 殺傷, 收奪, 그리고 나아가 國權을 짓밟았던 죄과를 반성하지않은채 또다시 「과거의 행위를 再現」하려는 일본의 기만행위를 규탄하는 국민의 怒聲과 정부의 是正요구는 국제정치도의상 너무나 당연한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이같은 당연한 요구에 일본은 修正내지 是正은 여전히 고려하지않은채 修辭的 놀음으로 얼버무리려하고있어 韓日간의 波高는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않고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하는가 지금까지의 強硬을 계속 고집해야 하는가 아니면 지금까지와 같은 高聲, 憤怒로 발로 그

憤怒 거두고 冷徹하게 「復古侵略의 틈」없애야

쳐야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친다.

極端論으로 駐日대사관의 철수나 日本상사의 追放, 日本상품 不買운동까지 나왔지만 아직은 그같은극한적인 超強硬으로 치달을칠 상황은 아닌것 같다.

그렇다고 말로 얼버무리려든 일본의 外交詐術에대해 그저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만 있을 수도 없다.

그동안 日本을 보는 우리의 눈이나 자세는 과연 어떠했는가 한번 反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새로운 소리도 있다.

韓日관계를 65년國交정상화의 싯점으로 되돌아가 문제점을 하나씩 다시 점검해야한다고 문제제기를 근본적으로 시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교과서歪曲이 과거 軍國주의로 되돌아가려는 復古주의라면 제2의 獨立운동을 벌여야한다는 주장도없지않다.

그러나 문제는 가깝고도 먼, 다정 이웃이아닌 괴롭히고 착취하는, 틈만 있으면 언제나 主權을 무시하면서까지 자신들의 國益追求一邊倒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일본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자세정립 문제에 도달하게 된다. 이같은 자세정립은 自强 自省 自立을 통해 당당한 자세로 일본을 대하고 저들에게 萬의하나라도 復古侵略의 틈을주지않는 노력이 필요할것 같다.

따라서 이제는 차분하게 韓日회담당시로 돌아가 양국간에 「해결되어야 할 일인데도 未決의 章에 남아 있는 문제」들을 점검해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재점검 결과 양국간의 외교협상이 필요하다면 시도할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것은 무슨일이 있을때마다, 무작정 과거에 집착한감정을 앞세우는것으로 能事가 될수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과거의 치욕적이고 너무나 뼈아픈 역사를 잊자는것은 아니다.

정신문화연구원의 黃性模교수는 『개인적으로 日本에대한 혐오감이없는 사람이 없겠지만 實利추구와 민족주의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국가간의 문제가 감정의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우리민족에게 日本에대한 콤플렉스가 있다면 하루빨리 청산하고 국제사회의 成人이 되어야할것』이라고 강조하고있다.

그는 국민감정으로는 도저히 우호국이 될수없으나 감정을 自制하고 전통적인 경쟁심을 발전의 계기로삼고있는 獨·佛관계를 이상적인 韓·日관계의 모델로 例示했다.

여기서 궁극적으로 나오는 결론은 『힘이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強者에게 약하고弱者에 강한 生理를 지닌 日本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러한것이다.

경제계에서도 『우리는이제 너무 흥분하지 말고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실리를추구하고 우리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汎국민적인 의식의확립이 있어야한다』(李載沉대한상의상근부회장)는 주장이다.

『이런일이 있을때마다 언제나 생각나는것은 國力배양』(權翊鉉 民正黨 사무총장)이라는 말이 대표하듯, 감정론으로 들끓던 政街의 의견도 이제 감정보다는 自省에의한 새로운결의로 문제의 근본을 찾아야된다는 소리가 높다.

『감정으로는 一戰을 不辭했으면 하지만 감정만으로 민족의 장래를 처리할수는 없는일이며 오늘의 민족적 모멸을 내일의 영광으로승화시킬수있게 자세를 가다듬어야한다』(李爽鎔의원·民韓)

『차제에 우리스스로도 반성, 우리역사를 스스로 卑下시켜 저들에게 계속약점이 잡히는 구실을 주지않았나 돌이켜 봐야한다』(李鍾聲의원·국민)는 것이다.

이제 감정을 배제해야할 단계에 왔다는 이런 주장은 日本과의 友好관계를 통해 국력배양과 국가발전을 도모해야한다는 주장과도 같은 脈이다.

『흔히 一衣帶水라고들 하는데 가까이 지내지않으면 서로가 손해라는 전례에서본다면 서로가 自制해야한다』(廉吉正의원)는 의견에 『日本측에 同情을 기대하는듯한 인상을 떨쳐버리고 中共과는 별개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독자적인 장기 대응책을 세워야한다』(許景九의원·民韓)는 의견도 있다.

『사실 日本人중에는 日本의 對韓역사를 잘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인식시켜 주는것이 중요하다』(朴敬錫의원·民正)는등 새로운 각도의 접근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심심하면 나오는 日本정치인의 妄言波動과 이에대한 국민감정의 대응이라는 악순환은 이제 지양할때가 온 것이다.

「妄言」對 「규탄」이라는 圖式은 獨島領有權문제와 日本의 對北韓 접근움직임 등 여러문제를 두고 되풀이되어온 無用의 논쟁이었다.

유치원이나 국민학교 다닐때 하던 유치한싸움을어른이 된뒤에도 계속할수는 없는것이다.

우리도 이제 成人답게의연하게 대처하는 슬기를발휘할때가 온것같다.

한국이 먼저 어른스럽게 대처한다면 日本도 그稚氣어린 妄言을 삼가하고 어른행세를 흉내낼지도 모른다.

어느민족의 역사에서나 불행한 상처는 있게마련이며 그상처를 극복할수있는민족만이 위대한 역사를만든다는것을 우리는 새삼되새겨봐야 할것이다.

【黃昭雄기자】

교과서 歪曲 몰고온 日本의 実相 <8>

在日동포 「차별教育」

民族교육 의도적 말살 正規校는 大阪 한곳뿐

國立大등 謝絶로 진학 不利…학생 날로 줄어

재일동포들의 교육현황을 보면 일본이 재일한국인의교육에 대해 어떤 「의도」를갖고있는지 분명히 알수있다.

66만 재일동포가운데 현재 각급학교에 취학중인 학생수는 12만6천1백8명。(유치원생제외)

이가운데 민단계 민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1% 남짓한 1천2백98명 (유치원생포함) 뿐이고, 76·42%에달하는 9만6천3백78명이 일본학교에, 나머지 (22·44%·2만8천2백98명) 는 조총련계학교에 다니고 있다.

『학생수도 물론 문제입니다만 중요한것은 일본에 있는 민족학교가 정규학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인학교는 예외없이 각종학교인가밖에 내주지않아 진학에 결정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한국의 민족교육을 제도적으로 막아버리는교육시책입니다』

77년까지 오오사까 한국학교 교장으로 재임했던 李英熱교장 (光明女高교장) 은일본 문부성의 대한교육정책을 식민지시대 동화정책의 연장이라고 단언한다.

일본에는 현재 4개의 민단계 민족학교 (유치원1·국교3·중·고교각4)와 1백53개의 조총련계 각급학교가 있으나 이 가운데 일본의 교육법상 一條학교 (정규학교)로 인가된 학교는 오오사까 建國학교 (유치원·초·중고교) 한곳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各種학교로 인가돼있다. 각종학교란 우리나라의 공민학교나 전수학교같은 성격으로 각급 국·공립학교는 입학원서조차 받아주지 않는다.

국립대학이나 都立대학, 혹은 縣立대학같은 곳에서는 물론이고 게이오 (慶應)와 세다 (早稲田) 대학같은 명문사립대학에서도 각종학교 출신자들은 받아주지를 않는다.

그래서 민족학교에 다니는 한국학교학생들은 국공립대학이나 유명사립대학에 진학하려면 졸업후 검정고시를쳐서 학력을 취득해야하며, 아니면 2, 3류 사립대학, 2년제 단기대학, 혹은 본국대학으로 진학하는방법뿐이다.

『일본의 이와같은 교육적 차별정책은 한일협정이후 65년12월28일자로 일본문부성 차관명의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된 이른바「차관通達」이란 지침에 명문화 돼 있어요』

李교장은 한일협정체결당시 재일동포에 대한 교육문제가 중요한 쟁점의 한가지였으나, 일본은 한국측의 끈질긴 요청을 묵살하고 자기네 고집을 관철했다고 분개했다。이른바 「차관통달」에는『▲학교교육법 제1조의 목적에 비추어 재일조선인학교를「제1조학교」로 인가해서는 안된다。▲조선인으로서의 민족성 또는 국민성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는 우리나라사회에 있어서「각종학교」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의의가 있는것으로 인정할수 없으므로 각종학교로서 인가해서는 안된다』고 명기돼 있다. 정규학교로서는 물론 각종학교로도 인가해줄수 없다는 명백한 의도였다.

그후 한국정부 혹은 민단이나 조총련으로부터 인가요청을 받고는 큰 생색이나 내듯이 모두 「각종학교」로 인가해 주었다。(建國학교는 일본의 패전직후 미군정으로부터 정규학교 인가 취득)

그들의 명분은 언필칭 「시설기준」이었다。말로는 그들의 법에 규정된 시설과 교원수를 갖추면 인가해주겠다는 것이었으나 오오사까 한국학교가 20년가까이 정규학교인가요청을 해왔어도 그들은 아직까지 귀머거리시늉을 하고있다。

교오또(京都) 한국학교도, 도오꾜한국학교도 예외가 아니다。교오또한국학교는 정규학교인가를 얻기위해 교오또시내 銀閣寺부근에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허가까지도 얻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취소했었다。학교측은 다시 本多山이란 지역에 부지를 마련, 건축허가원을 냈으나 역시 주민들이 한국학교건축을 반대한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 학교측은 20년 숙원을 포기한채 기존부지에새로운 건물을 짓고 말았다。

도오꾜한국학교도 60년대후반 정규학교승격을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과거 식민지를 경영했던 영국이나 프랑스、독일 같은 나라들이 모두 소수민족을폭넓게 포용하고있는데,유독일본만은 옹졸한 식민지시대의 동화정책을지속하고있어요』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이사장 趙一濟의원 (國民黨) 은 일본의 편협한교육시책을 이렇게개탄하며 우리정부와 재일거류민단이 『심기일전하여 재일동포의 민족교육에 혼신의 노력을쏟아붓지않으면 큰일난다』고 우려했다。

4개의 민족학교 학생수가 매년 줄어들고 학생들의 질이 날로떨어져가는 현상을두고 한는 말이다。

오오사까 建國학교는 한때 전교생이 1천2백34명이나 됐으나 현재는 3백93명으로 3분의2이상 줄어들었다。오오사까한국학교(金剛學園)는 5백67명에서 3백66명으로, 도오꾜한국학교는 7백17명에서 4백24명으로, 교오또한국학교는 2백68명에서 1백15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나마 東京의경우는 주재상사원이나 외교관들의 자녀가 60%이상을 차지하고있어 순수한 교포자녀들은 해마다 줄어들고있다。

『정규학교 학력인정을받지못하니 일본학교에 진학하는데 결정적으로불리하지요。본국에서 파견된 교사와 현지채용 무자격교사에게 배워서는 일류대학에 갈 엄두도 낼수없는 현실이니 누가 자녀를 민족학교에 보내겠읍니까?』李英熱교장은 민족학교의쇠퇴원인이 「각종학교」에 있다고 잘라말한다。가고싶은 학교에 마음대로 응시할수있도록 학력인정을 받을수있다면 뜻있는 재일동포들의 자녀들이 몰려오리라는 전망이다。66만 재일동포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살기를원하고있으므로 결국 일본의 좋은대학에 진학하는것이 가장큰소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두번째 문제는 학교수가너무 적다는 점이다。동포인구 7만이 넘는 東京에 한곳、18만이 넘는 오오사까에2곳、4만이 넘는 교오또에 한곳만으로는 민족교육 운운하기도 부끄럽다는 얘기다。인구 5만이 넘는 아이찌 (愛知)縣、7만의 효고 (兵庫)縣、2만6천의 후꾸오까(福岡)縣과 가나가와 (神奈川) 縣조차 전일제 (全日制) 민족학교가 없다。

『앉아서 학생을 기다리는 안이한 자세에서 하루빨리벗어나지 않으면 안됩니다。우선 교육여건부터갖추고 학생을 찾아나서지않는한 금세기말이 가기전에 민족교육은설땅조차 잃고말것입니다』나고야 (名古屋) 한국학교 (非全日制) 金漁교장은 이렇게 민족교육의 위기론을 말했다。

『今世紀가 가기전에 在日韓國人의 민족적 운명은 끊기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 재일사회학자 李瑜煥씨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리라는 얘기다。【文昌宰기자】

◇東京한국학교 학생들의 文化祭。부지1천9백평에 연건평1천평의 교사를 갖고 있으나 시설기준에 미달한다고해서 정규학교 대우를 받지 못해 졸업을 해도 일류대학에는 진학할수 없다。【東京支社】

메아리

線

金聖佑 <編輯委員>

우리나라에는 자 (尺)도 없고, 線이 곧지 않다。

서울의 1번도로인 세종로。광화문 네거리에서 중앙청을 바라보면 길게 뻗은 하얀 車線들이 일견 직선인것같지만 눈여겨보면 그렇지않다。곧은 줄이 아니다。

南山터널을 지나가보라。벽에 달린 조명등의 행렬이 나란하지 않다。등들이 일렬로 차례해 있지않고 저마다 목을 내민다。

고속도로로 나가봐도 그렇다。車線이나 길가의 가드 레일이 아무래도 자를 대것같지 않다。차가 달리면 줄들이 지렁이처럼 꿈틀거린다。고속도로는 본시 線의 경주장이다。고속도로를 달리는 맛은 線을 좇는맛인데 이線이 虫行불하면 차는 길밖으로튀어내리고 싶어진다。

우리나라 길에는 線이 없다고 말하면 좀 과장이겠지만 적어도 느껴진 그렇다。우리는 곧은 線없는 길위에 있다。자를 대고 긋는 線은 規요 規는 질서다。곧은 線없이 질서는 없다。

서울시는 오래전부터 「도시는 線이다。車線을 지키자」란 구호를 시내 곳곳의 길에 내걸어왔다。「도시는 線이다」란 말이 처음에는 어리둥절 하다가도 길에 달리는 차들을 가만히 바라보고있으면 알아들을만 해진다。

서울이 세계제일로 내세울수 있는것 중의 하나는 자동차들이 車線을 지키지 않는것이다。외국에 있다온 사람들은 서울거리에서 차를 몰 엄두를 못낸다고들한다。서울거리의 자동차들의 무질서는 이집트의 카이로가 겨우 따라올만한 수준이다。서울에서 차를 몰아본 사람은 세계어디를 가도 운전을 할수있다고들 말한다。그러나 그것이 조금도 자랑일것없다。老婦人이 혼자서 안심하고 차를 몰수 있는 거리가 아쉽다。

서울거리의 거의 절반을 덮다시피하고있는 버스들。이 버스들이 달리는 것은 숫제 車線넘기 시합이다。버스를 타보면 그 暴走는 꼭 스포츠카를 탄것 같다。

방학이라고 잠시 귀국한 외국유학생 하나를 며칠전 만났더니 서울의 버스 이야기를했다。학생은 버스를 탔다가 그 지그재그의 질주에 기겁을 하고는 견디다 못해 운전사에게 좀 천천히 가자고 사정했다。운전사는들은척도않고액셀러레이터를 더 밟기만했다。집에와서 이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했더니『너 어디 시골에서 왔니?』하고 모두 깔깔대면서 촌사람 취급하더라는 것이다。이 가족들의 깔깔대는 웃음속에 곧지 않은 線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줄하나 똑바로 긋지못하는 것일까。

세종로나 고속도로의 車線이 곧지 않은것은 路面이 평평하지않기 때문이다。울퉁불퉁한 面에 아무리 자를대고 정성들여 줄을 그어봤자 線은 꼬불탕꼬불탕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도로의 포장하나 도 반듯하게 못하는 것일까。

이 무성의와 날림은 사회적 무질서 때문이다。무질서가 날림을 낳고 날림이 꼬부라진 線을 낳고 꼬부라진 線이 다시 무질서를 낳는다。

깨끗한 길바닥에 휴지를 버리고 싶지 않듯이 곧고 반듯한 線은 넘고싶지 않아진다。길바닥부터 평평하게 닦자。그래서 거울같은 노면에 아름다운 線을 긋자。그러면 자동차가 車線을 지킬것이다。

「82년은 질서의 해」란 플래카드가 거리에 걸려있다。교통의 무질서는 우리나라 사회의 모든 무질서의 表象이자 원인이다。교통질서 하나만 세워지면 다른 생활질서는 절로 따라오게 된다。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회질서를 책임진 사람은 도로포장공이라고 할수있다。石油에서 옷감이 나오듯 도로포장공의 손에서 모든 질서가 나온다。

자 (尺) 는 線을 그리고 線은 질서를 그린다。그리고 자는 線을 재고 線은 질서를 잰다。線은 질서의 尺度다。세계에서 가장 질서가 있는 나라인 독일은 가장 도로의 線이 반듯하다。線이 쭉쭉바른 독일의 고속도로에는 속도제한이 없다。질서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美陸軍 첫 黑人 4星장군

로빈슨大將 나토軍事委 대표

駐日美육군사령관 로스코·로빈슨중장이 흑인으로는 처음으로 美육군4星장군으로 진급하는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美국방성은 레이건 대통령이 로빈슨중장을 나토군사위원회미국대표로 임명하는동시에 직제에 맞게 대장으로 승진시킬것이라고 밝혔다。

로빈슨중장이 대장으로 진급할경우 그는 지난78년퇴역후 사망한 대니얼·제임스공군대장에 이어 흑인으로서는 2번째 미군대장이 되는 셈이다。

웨스트 포인트출신인 로빈슨중장은 극동·유럽 등지에서 광범한 해외근무를 한바있으며 지난70년대말에는 노드 캐롤라이너의 포트 브랙에 기지를둔 정예82공수사단장을 역임하기도 했다。【워싱턴=AP】

◇마릴린·먼로와 毛澤東 두사람 모두 성이 M이라는점에 착안, 毛澤東사진에 먼로 사진을덧붙여 「毛·먼로」가 만들어졌다 【슈피겔誌】

海外토픽

첫 實驗電子都市 ★英밀튼케인즈市에 건설

미래의 전자도시생활을 위한 예비적인 실험전자도시가 최근 세계최초로 영국런던북부의 밀튼케인즈시에 건설돼 18가구의 가족이 입주했다。

이실험전자도시에 입주한 사람들은 헤저나 관광·스포츠등을위해 집을나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한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파이버비전 (Fibrevision)으로 알려진 시험용 광학케이블網에 연결된 TV수상기를통해 물건을 사고 은행거래를 할뿐아니라 컴퓨터에 기억시킨 수백만페이지의 각종생활정보를 이용하고있다。

노벨상 취소요구 ★UAE紙, 베긴에 수여된것

아랍에미리트연합 (UAE)의 알·이티하드신문 출판회사는 스톡홀름의 노벨평화상위원회에 항의문을 보내고 메나헴·베긴이스라엘수상에게 수여된 노벨평화상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아부다비=WAM】

모짜르트 음악학원생모집

저희 음악학원에서는 적극적인 부모님들의 자녀 음악교육 성원에 힘입어 HILL CREST MALL(영×리치몬드힐) 내에 제2분교를 개설해서 자신을 갖고 책임지도하고 있읍니다.

우수한 시설과 명문대학 출신들의 교수진으로 이루어진 저희 음악학원에 자녀들의 음악교육을 맡겨주십시요.

우수한 학생들의 장려를 위해서 장학금제도로 실시중에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윤 호섭 올림

※수시로 등록할 수 있읍니다.

Markham Place
2900 Steeles Ave. E.
Thornhill
☎ : 881－8211

모짜르트
MUSIC CENTER

Hill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 : 883－9407

여름을 시원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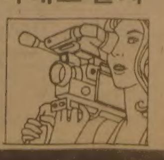
최근도입된 인기절정의…… 비데오

인기있는 각종 Program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모든면에서 상담을 하여 드리고 있아오니 일차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비데오기계및녹화기판매
100% AFTER SERVICE
● 600여각종비데오대여

상점도난방지및안전을위한비데오설치

보아서유익한가정용 비데오전문 SANYO



코리아나 비데오 센터

Koreana Video Centre · 678 Bloor St. West · 532-0210

검은大陸에 友誼의 架橋

全大統領순방계기 우리外交에 새章펼쳐

頂上외교전개 堡壘다져 訪問國은 南北동시修交

技術·경제협력 토대에 政治的 뒷받침

全斗煥대통령의 아프리카巡訪은 未知의 검은대륙 아프리카와의새로운 韓·阿협력시대의 막을여는 轉機로 평가된다。아프리카대륙은 외교적 측면에서、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어느 대륙에 못지않게 전략적 가치가 높은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있다。그러나 지금까지 국제무대에서 票밭이라고까지 일컬어지고있는 사하라以南의 소위 블랙·아프리카와는 특히 외교적인측면에서 南北외교대결의 취약지구로 지칭돼온게 사실이다。

따라서 全대통령의 이번순방을 계기로 우리의 對阿외교는 새로운 활력소를 맞게될것이 틀림없다。그것은 또 우리외교의 汎세계화라는 면에서도 새로운 章을 여는 것이기도 하다。

黑阿 44개국은 1백57개 유엔 회원국의 28%、비동맹회의 97개 회원국중 46%를 차지하고 있어 국제무대에서 막강한 입김을 행사하고 있다。

검은대륙이 국제정치에서 비중을 갖게된것은 60년대에 들어와서부터다。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검은대륙勢의 비중으로 보아 南北韓이 외교경쟁에서 우위를전하기 위해선 黑아프리카의 票밭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에 달렸다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다。한국은 유엔회원국과의 修交면에서 1백17對1백4로 리드를 하고 있지만 黑阿국가들과의 외교관계수립에선 40對28로 크게 뒤지고 있다。

한국은 61년 코트디브와르(舊名 아이버리코스트)와 외교관계를 수립한후 雨後竹筍처럼 밀어나는新生國들과 속속 손을잡아 65년에는 20개국과 수교했다。58년 소련의후원으로 프랑스에서 독립을쟁취한 기니와 독립 6일후에 외교관계를갖는등 이지역에 미리 눈을돌린 북한이 65년까지 修交國數가 6개국에 불과했던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노다지를 주웠다고 할수있었다。

그것은 맨주먹外交의 개가였다。5·16군사혁명한달후 정부는 친선사절단을 西部아프리카지역에 파견、축제무드에 들떠있는 국가들을 찾아다니며 축하인사를 한것이 주효한것이다。常駐공관도 없을뿐만아니라 사전에 방문통고도없이 가방하나만 들고 이나라저나라로 무조건들이닥친 사절단들을 신생국에선 열렬히 환대했으며 우리사절단의 修交제의에 선뜻 응해주었던 것이다。

당시 군사정부는 유엔의 한국문제토의와 관련、韓美안보체제를 위협하는 결의가 통과되지 않을까 우려해 한국에대한 신생국들의 지지획득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사절단을 파견한것이 의외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초창기의 이같은 우세는 우리정부의 할슈타인 원칙고집으로 점차 불리한 입장에 놓였고 71년 中共의 유엔가입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됐다。

64년 콩고가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자 우리정부는 65년 할슈타인원칙을 적용、처음으로 斷交했다。그후에도 토고 베넹(舊다호메이) 세이셸등과도 이들의 親北정책을 이유로 외교관계를 끊었다。

할슈타인원칙은 우리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국가들로하여금 북한과의 修交를 막는 효과도 있었겠지만 북한과 외교관계를 이미 가졌거나 갖고싶어하는 국가들로 하여금 우리와의 관계강화를 막는 逆작용을 했다고도 볼수있다。

70년대에 들어 북한이 세계보건기구(WHO)에 가입하고 72년 우리와 단독修交國이었던 카메룬이 우리측의 저지노력에도불구하고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뒤이어 코트디브와르에서 열린국제의회연맹(IPU)회의에 북한이 참석한것이 우리정부가 73년 6·23평화통일선언으로 할슈타인원칙을 포기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中共의 유엔가입후 중공은 제3세계의 리더로서 黑阿에 공항 도로 교량등의 건설지원과 의료및 농업기술자파견을통해 북한지지를 종용、우리의 對阿진출에 큰 영향을미쳤다。

70년까지 修交國數에서 22對12로 앞섰던 한국은 이같은 요인으로 75년에는 34對22로 크게 역전당한 셈이됐다。

북한은 帝國주의에대항하는 진보세력의 기수로 자처하며 아프리카독립단체에대한 무기및 게릴라전술의 제공과함께 무상원조로 이지역의 反植民독립운동에 지원술책을 계속해 왔다。그러나 한국은 親美的인 색채가 강한데다 이지역독립투쟁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것이 이지역지도자들의 불만을 산면도 없지 않았던게 사실이었다。

南北韓교차승인및 유엔동시가입이라는 對공산권 문호개방정책인 6·23선언은 70년대후반에 가서야 열매를 거두기 시작해 코모로 赤道기니 가나 나이지리아등 북한단독수교국들과도 손을 잡게되는 결과를 낳게했지만 지난 6월20일 북한이 우리와 단독수교국이었던 말라위와 외교관계를가짐으로써 현재 수교국은 40對28로 여전한 열세를 면치 못하고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反西方、경제적으로 사회주의 제도를 채택한 이 지역국가들이 경제개발과정에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결함및 西方각국과의 경제협력 필요성에 눈을 떠 점차 자본주의원리를 가미한 혼합경제체제를 채택하고、외교면에서도 온건親西方으로 右회전하는 국가가 늘어가는 경향을 보여 우리에게는 유리한 추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70년대부터 농업 어업 기계 통신 건설 의료등의 기술협력과 경제지원에 주력해왔기 때문에 군사지원에만 점을 둔 북한보다는 더욱 좋은 입장에 있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全斗煥대통령의 이번 아프리카 순방은 한국의 기술과 아프리카의 자원이 결합한다는 경제적인 측면뿐만아니라 외교적인 면에서도 새로운 韓·阿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청신호로 평가될수 있다。

全대통령이 방문하는 케냐 가봉 나이지리아 세네갈 등 4개국은 南北동시修交國인데다 주변국에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지도세력으로서 현재 북한과 단독수교국인 탄자니아 소말리아 잠비아 콩고 짐바브웨 토고 베넹 말리등이 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다。이중 몇개국은 우리나라와 통상및 기술협력관계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멀지않아 외교관계수립도 가능할것으로 보인다。

【李在武기자】

◇全대통령이 순방할 케냐、나이지리아、가봉、세네갈등 아프리카 4개국。

◇「검은 대륙」으로만 알려지고 있던 아프리카는 60년대 이후 무서운 속도로 변모하고 있다。黑아프리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하사고있는 나이지리아도 거리의풍경<사진>은 예와 변함이없으나 무진장한 資源을 바탕으로 새로운 富國으로 발돋움하고있다。

世界의 寶庫 아프리카

韓·阿 동반시대

國際舞臺의 중심세력이자 資源무진장

一回性外交지양… 긴안목의 相互협력을

◇河璟根 <중앙대교수·政博>

로마의 元老 프리니卿은 지금으로부터 1천9백 여년전『아프리카로부터 항상 새로운것이 나타난다』고 술회한 일이있다。현재 아프리카대륙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소용돌이는 마치 프리니卿의 亡靈이 되살아난듯 아프리카 대륙을 세차게 휩쓸고있다。

1951년 리비아가 독립할때까지 아프리카대륙에는 獨立國이 불과 4개국밖에 없었다。그러나 1980년 짐바브웨의 독립으로 현재 獨立國이 51개국이며 이것은 불과 30년 미만에 47개국의 新生國이 탄생된것이다。

특히 1960년에는 무려 17개국이 獨立했고 그중 16개국이 유엔에 가입하여 우리는 1960년을「아프리카의 해」라고 부르고 또한 1960년의 15차 유엔총회를「아프리카 총회」라 부르게된 것이다。

1982년 7월 현재 유엔會員國數는 1백57개국이며 여기에서 아프리카대륙이 51개국을 차지하고있다。물론 그 중에서 南阿공화국은 아직도 白人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統合기구의 회원국이 아니며 그러므로 유엔會員國으로서의 아프리카統合기구 회원국수는 50개국이다。

요컨대 유엔이 처음 出帆할때 아프리카대륙은 겨우 13분의1을 차지하는 미미한 존재에서 현재는 거의 3분의1에가까운 會員國數를 차지하며 이것은 유엔의 普遍性원칙에 따른 1國1票의 원칙에서 아프리카대륙의 發言權 증대를 가져왔다。

즉 아프리카대륙은 身分轉位를 實化시켜 국제적 位相提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身分轉位를 맞이한 아프리카대륙은 오랜 世界史 형성과정에서 소외되고 망각된 것에서 止揚하여 이제는 世界史의 연음에 主體的 능동적으로 적극 참여하면서 아프리카的 個性의 존재이유와 아이덴티티를 십분 발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실 국제정치 상황의 전개과정에서 변화속의 아프리카대륙의 임팩트는 자못 큰 것이다。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계지도에 의하면 아프리카대륙의 크기는 北美、즉 미국과 캐나다보다 작게 보인다。그러나 아프리카대륙의 실제크기는 2천8백만평방㎞로 미국、캐나다 거기에다 브라질을 합한 것만큼의 큰 대륙이다。말하자면 세계육지 표면적의 약 5분의1에 해당한다。

현재 이 방대한 아프리카대륙은 資源의 寶庫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비록 자원이 일부 지역에 遍在하고 있기는 하나 그 賦存量 점유율에서 볼때 다이어먼드 크롬등은 세계 매장량의 거의 1백%이며 金 망간 팔라듐 탄탈륨 燐鑛石등 주로 戰略資源 매장량이 50%를 훨씬 넘는다。

이것은 1970년대 이후 각광을 받고있는 資源민족주의 등장과 더불어 아프리카대륙의 비중이 더욱 상승되고 있는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대륙의 현실은 60년대 독립초기의 부푼 기대감은 좌절되고 현재 大陸的차원의 빈곤과 정치적 불안은 高潮化되고 있다。

말하자면 80년대의 세계적 不景氣는 어느 다른대륙보다 아프리카대륙을 強打하고 있다。

81년도 아프리카 51개국(南阿공화국포함) 총생산량이 3천억달러를약간 상회하여 이것은 미국의 캘리포니아州의 81년도 총생산량인 3천1백50억달러에 미치지 못한다。특히 아랍 아프리카 6개국과 白人지배인 南阿共을 제외한 黑阿 44개국의 81년도총생산량은 불과 1천5백14억달러로서 이것은 텍사스州의 1천6백50억달러 보다 적은 것이다。81년도 세계총생산량을 약10兆달러로 간주하는데 그 비율에서 보면 黑阿 44개국의 총생산량比는 약70분의1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륙의 정치적 불안은 GNP의 5%에 해당하는 1백50억달러를 軍備에 할당하고있으며 또한 대륙의 여러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에서 5백만이상의 피난민이 발생하여 세계피난민 반이상이 현재 아프리카대륙에서 고통받고 있다。

아프리카는 이와 같이 희망과 좌절과 貧困의 비극적 혼돈속에서 주어진 시대적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 당면과업에 직면하고 있다。이것이 아프리카대륙의 정확한 이해인 것이다。

현대국제사회의 외교패턴은 頂上외교가 보다 각광을 받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국가간의 외교패턴은 頂上외교가 어느 다른대륙보다도 一般化되어 있는것이 그 특징이다。그런 의미에서 볼때 全대통령의 아프리카 4개국방문은 韓·阿간의 상호관심증대는 물론 말할것도 없고 그 여파는 정치·경제적 파급효과가 클것이 기대된다。

즉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의 對제3세계 외교및 非同盟외교를 활성화시킬것이고 이것은 아프리카대륙에서 北傀보다 劣勢한 우리의 外交網확장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것이다。

또한 7차 非同盟회의 개최직전에 영향력이 있는 4개국 방문은 우리의 非同盟외교의 사전 포석으로서 그의의가 크다 할것이다。

北傀는 지난6월 아바나 非同盟外相회의에서 85년개최예정인 8차 非同盟수뇌회의의 平壤유치에 일단실패했으나 그들의 노력은 계속될것으로 전망된다。왜냐하면 지역적 按配의 순서에서 볼때 1976년의 콜롬보 6차회의를 아시아에서 개최한바 있으나 東北아시아에서는 개최된바없고 또한 최근 北傀고위간부들의 非同盟諸國巡訪과 특히 지난 4월 金日成의 70회 생일축하식에 1백18개국의 외국사절이 참석하는등 요란스런 몸짓으로 보아 우리의 예상이 전연근거가 없는것은 아니다。

우리는 86년의 아시아올림픽、88년의 세계올림픽 開催國이기 때문에 北傀의 그러한 움직임은 우리의 큰 관심사가 되지 않을수 없다。

非同盟에서의 우리의 脆弱點은 한국외교는 不在하며 미국에의 追從외교로 간주한다。아것이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北傀보다 劣勢인 이유인 것이다。그러므로 이번의 아프리카방문은 한국외교의 主體的 自主性을 발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예컨대 나미비아문제에 대한 아프리카 단결기구(OAU)결의나 유엔결의의 지지발언을 함으로써 우리의 自主외교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는 지난 6월 이스라엘의 레바논침공을 개탄하고 유엔결의에 따른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그것은 제3세계 특히 中東을 의식한 한국 自主외교의 새로운 출발의 里程標이었으며 그런 맥락에서 볼때 이번에 나미비아문제에 대한 OAU나 유엔결의를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원수의 아프리카방문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보다 활발한 새로운 章을 열것이다。아프리카대륙은 한국의 수출시장으로서、資源의 공급지로서、遠洋漁業의 進出基地로서、또한 中東다음 우리의 건축토목기술진의 진출지로서 그 전망이 밝은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아프리카진출을 中東붐의 再版으로 기대해서는 안된다。장기적 안목에서 우리의 아프리카진출은 우리의 국가이익에 직결되지마는 우리의 진출이 中東에서 체험한것과 같은 큰변화는 수반하지 않을것이다。우리는 이미 中東이나 아프리카에서 先經濟、後政治의 패턴으로 이지역에대한 우리의 기반을 굳히고 있으므로 여기에 이번 방문을통한 우리의 對아프리카 劣勢를 만회하는데 큰 자극제가 될것이다。

우리는 中東진출에서 축적된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는 의미에서 또한 아프리카悲劇의 원천인 식량문제해결에 人道的 참여라는 입장에서 아프리카 농업발전을 촉진시킬 灌漑사업부문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여야 한다。최근 OAU총회등에서 아프리카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식량문제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주목하여야 한다。

물론 이것은 막대한 자금이 소용되나 아프리카는 支拂능력이없고 그러므로 세계은행이나 아프리카·아랍은행등의 支拂보증을 받는 가능성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더우기 이번 국가원수의 방문으로 종전의 善心공세의 一回性外交를 脫皮하여 사회문화적 紐帶의 강화가 요청된다。예컨대 장학생의 초청、상호문화교류등을 통한 장기적 안목의 상호협력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에 있어서도 아프리카인식이 일시적흥분으로되지않게하기위하여 앞으로 格調높고 지속적인 연구가 뒤따름으로써 韓·阿시대의 새로운章의 개막에 有終의 美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紛爭과 政變이 惡循環하는 大陸

검은 아프리카 대륙의 정글 산악 그리고 사막을 무대로 펼쳐지는 해묵은 영토분쟁 내란 종족분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植民宗主國이 멋대로 그어놓은 國境線이 갈등의 불씨

▲소말리아와 이디오피아간의 오가덴사막 熱戰▲차드 내란▲西部사하라의 폴리사리오(Popular Front for Liberation of Sepuiet E L Hamra and Rio de Oro) 게릴라 독립투쟁▲南阿共과 앙골라、南阿共과 西南아프리카인민기구(SWAPO)의 전쟁▲에리트리아 민족주의 게릴라들의 독립투쟁▲앙골라、우간다등지의 反政게릴라활동등이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수요 분쟁이다。

오가덴의 領有權을놓고 다투어온 소말리아와 이디오피아는 최근 소말리아가 오가덴 침공을 단행함으로써 전쟁은 한참 열기를뿜고있다。

구쿠니·웨데데대통령의 정부군과 히세네·하브레가 이끄는 反政軍간의 차드내란은 리비아군이 정부군지원을 위해 파견되는 사태로 확대되기도했으나 전투는 여전히 계속되고있다。

서부사하라의 영토 싸움은 알제리가 폴리사리오 게릴라를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 대항하는 모로코는 프랑스와 모리타니가 적극 지원하고 있어 一進一退의 攻防만을 거듭하고 있다。

76년 3월 모리타니에서 쟁취한 사하라사막지역을 영토삼아「사하라아랍민주공화국(SADR)」을 선포한 폴리사리오는 모로코에 대해서도 사하라의 일부 땅을 내달라고 요구했다。그러나 모로코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양측은 무력으로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SWAPO는 南阿共의 나미비아(西南아프리카)지배에 대항해 싸우는 나미비아 민족주의 게릴라단체다。81년 11월 南阿共은 SWAPO의 후방기지가있는 앙골라 침공을 단행、전쟁을 확대했다。

나미비아와 앙골라 국경에서 펼쳐지는 싸움은 소련과 쿠바가 앙골라를 적극지원하고있어 국제전의 양상으로발전해 나가고 있다。

아프리카대륙은 또한 政變이 잦은곳이기도 하다。

작년에는 7월에서 8월까지▲불발로끝난 갬비아의 좌익쿠데타▲리베리아의 불발쿠데타▲다코정권을 축출한 중앙아프리카의 쿠데타등 1개월사이에 모두 3件의 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렇게 잦은 정변과 外侵에 대한보호수단으로외세의개입을자초하는경우도많다。검은 아프리카나라들중 절반가량이 외국군대를 끌어들였거나 기지를 제공하고있다。

아프리카는 東西군대의 각축장으로 변해가고있는 것이다。

1960년이후 外侵과 政變、내란의 제물이돼 목숨을 잃은 아프리카인은 모두 6백만을 헤아린다。

왜 아프리카대륙에 유혈분쟁이 그치지않는가。그 이유의 한가지는 아프리카고유의 종족、문화전통을 무시하고 植民宗主國에 의해■멋대로그어진 국경선때문이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崔相鎬기자】

8월 한달간 Special Offer

WORLD BOOK

$614.00

(Reg. $722.00)

22권 World Book

2권 사전

(Renassance Binding에 한함)

문의처 : 낮 533－2361 Mrs. 김

밤 242－5774

도 매 업

○ 채소 ○ 과일 ○ 화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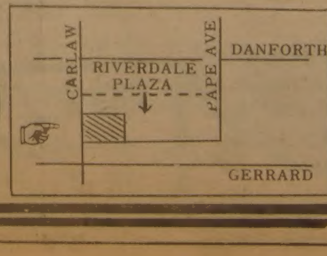
아직도 아침일찍 고생하십니까?

⊕아직도 아침일찍 Food Terminal 에 가셔서 고생이십니까? 제 도매 가격을 보면 누구나 놀라십니다.

⊕여러분의 큰 성원에 더욱 자 신 을 갖고 일을 하고 있사오니 직접 내방 Pick-up하시거나, 또는 주문 해 주시면($150이상) 감사하겠읍니다.

〈취 급 품 목〉
- 모든 채소종류.
- 모든 과일종류
- CUT FLOWER
- 화분
- HANGING PLANT

BROADWAY
FRUIT MARKET
437 CARLAW AVE
☎ 465－8167 대표 곽덕열



MLS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금주의 새리스팅

VARIETY STORES

주매상 $14,000 Rent $4,000 9년+10년 가격 $225,000

주매상 $14,500 Rent $5,000 9년+10년 가격 $225,000

주매상 $8,500 Rent $800 4년+5년 가격 $110,000

주매상 $7,000 Rent $1,720 4년+10년 가격 $75,000

VARIETY STORE와 BUILDING

1)주매상 $11,000 코거빌딩 다운타운. 아파트 3채.
가격 가게 $129,000 빌딩 $269,000
현금다운 $150,000,00

2)주매상 $7,500 코거빌딩 다운타운
가격 가게 $70,000 빌딩 $360,000 아파트 4채
현금다운 $200,000,00

DONUT SHOPS

1)주매상 $8,500 Rent $2,250 $350,000

2)주매상 $6,500 Rent $3,000 $200,000

VARIETY STORE LOCATION

1) indoor Mall Rent $7,00/SQF, 5 Years+5 Years
Side 2100 SQF,2)개인 Building Rent $6,00/SQF,
1500SQF, 5 Years+5 Years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SUITE G5 DON MILLS

TEL(416)449－8644～5(B) · 286－1548(R) M3B 1Z3

굵직한 經濟·瀆職사범등 슬그머니 풀려나기일쑤

처음에는 斷罪熱氣로 重刑

2審선 執猶·保釋·구속 정지

「응징」實効 못거둬…"衡平原理 지켜야"

지난날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던 경제사건이나 독직범죄의 관련피고인중 지금까지 「복역중」인 사람이 적다. 범죄가 적발됐을때는 「단죄」의 열기가 높아 1심에서는 중한 실형이 내려지곤하지만 2심단계에서 집행유예 판결을얻어 슬그머니 구치소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처분으로 석방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면 구속 만기시한(1심6개월, 2·3심4개월)의 적용을 받지않고도 몇년씩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경우가 많아 마치 집행유예판결과 같은 결과를 빚고있어 모처럼의 「응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같은 사례는 비교적 최근인 지난해 사회를 떠들썩하게했던 善仁학원부정편입학사건의 白仁燁피고인과 저질연탄폭리사건의 전동자부석탄국장 尹錫九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풀려난것과 韓信공영사건의 전서울시주택국장 孫巨洙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심계류중 보석으로 풀려난것등이 대표적인것.

栗山사건의 申善浩、洪允燮(전 서울신탁은행장) 피고인、비료부정도입사건의 白承斌、洪炳喆피고인、고려원양사건의 李學洙피고인、한독맥주사건의 李俊錫피고인등도 예외없이 2심에서 보석、구속집행정지등으로 풀려난후 3~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형이 확정되지않은 상태다.

이들 사건의 현재까지의 재판진행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같다.

▲栗山사건=회사공금 1백5억원을 횡령하고 미화 7만3천달러를 불법보관했으며 6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79년4월21일 구속기소된 대표이사 申善浩피고인(36)은 79년9월15일 1심에서 징역7년、추징금 3천4백만원을 선고받았고 80년1월30일 2심에서도 징역5년、추징금3천4백만원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계류중이던 80년5월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후 2년후인 82년4월13일에야 상고심이 열려 사건이 다시 파기、환송돼 현재 2심에 계류중인 상태다.

당시 栗山에 60억원을 부정대출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신탁은행장 洪允燮피고인(59)도 79년8월31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고 2심계류중이던 그해 10월31일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2년후인 81년4월20일에야 2심 선고공판이 열려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까지도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이다.

▲농협비료부정도입사건=76년12월23일 태평양연합상사 대표 白承斌피고인(53)은 농협비료를 수입하면서 이중가격을 조작、차액인 미화 5백만달러를 불법으로 해외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77년6월10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 계류중이던 그해 11월19일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후 만4년후인 81년12월28일 2심에서 징역6년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당시 白피고인으로부터 5천만원의 뇌물을받은혐의로 구속기소된 전共和黨소속 국회의원 洪炳喆피고인(53)도 1심에서 징역7년을 선고받고 2심계류중이던 77년8월29일 보석으로풀려난후 4년후에야 2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았으나 현재까지 대법원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고려원양 외화유출사건=76년12월23일 사장 李學洙피고인(66)은 주식을 위장분산하고 미화8백만달러、일화 13억엔을 불법유출시킨혐의로 구속기소돼 77년5월31일 징역7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계류중이던 그해 8월25일 보석으로 풀려났고 4년후인 81년4월29일 2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선고받았는데 지금까지도 1년이 넘게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한독맥주사건=76년9월25일 한독맥주사장 李俊錫피고인(63)은 회사주식 3백92만주를 위조해 시중은행에서 42억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77년2월8일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고 2심계류중이던 그해 6월3일 구속집행정지、78년1월28일 보석결정을 각각받았으며、80년9월25일 2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이사건은 발생6년후인 82년4월12일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돼 2심인 서울고법에 아직도 계류중이다.

법원에서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으로 풀어준 경우외에 朴永復피고인(46)의 경우처럼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됐다가 재범으로 다시 수감된경우도있다.

이같이 1심과상급심의 양형에 차이가 나는것은 상급심에서 일부무죄가 나오는경우도있지만 정상참작에 있어 ▲개전의정 ▲그동안의 구속으로인한 처벌효과 ▲피해변제등의 사정변경 ▲피해자측의 진정등을 그 큰이유로 들고있는게 재조법률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구속보다는 불구속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데다 이들사건의 피고인들이 일반잡범보다는 주거가일정해 도주의 우려가없기때문에 정상을참작、집행유예판결을 내리거나 몸이불편할경우 보석결정을 내려준다는견해도 물론있다.

한편 일단피고인이 풀려난 사건의재판이 지연되는데 대해 많은판사들은구속사건을 우선 처리하다보면 보석등으로 출감한 불구속사건이자연 늦어지는것뿐 별다른 이유는 없다고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야법조계에서는 1심에서는 보석허가에인색하면서 2심에서는 쉽사리 풀려나는 관행은 시정되어야한다는 의견이제기되고있다.

또 국민들로서도 어떤사건이든 보석이 허용되는것은바람직하지만 자칫형평을 잃어서는 안될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한변호사는 사회에 파문을 던진 사건은 예외없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는데반해 2심에서 집행유예등이 선고되는것은 『1심이 가라앉지않은 국민여론을 의식、여론재판을 한것인지 2심이 지나친 관용을 베푼것인지 알수없으나 어느경우고 바람직하지는 못하다』고지적했다.【崔奎楠기자】

◇최근 주요경제사건및 공직자 독직사건의 재판진행 상황

사건명	피고인	기소일자	1심	2심	3심	비고
韓獨맥주사건	李俊錫	76·9·25	77·2·8 징역 5년	80·9·25 징역 3년 (계류중)	82·4·12 파기환송	77·6·3 구속집행정지 78·1·28 보석
고려원양사건	李學洙	76·12·23	77·5·31 징역 7년, 벌금 18억, 추징금53억	81·4·29 징역2년6월집행유예5년벌금7억, 추징금2억4천만원	계류중	77·8·25 보석
농협비료부정도입사건	白承斌	77·4·1	77·6·10 무기 징역, 벌금 22억, 추징금20억	81·12·28 징역6년벌금4억5천만원추징금8억7천만원	계류중	77·11·19 구속집행정지
	洪炳喆	77·4·1	77·6·10 징역 7년, 추징금5천6백20만원 벌금1억9천만원	81·12·28 징역 5년 추징금4천1백20만원	계류중	77·8·29 보석
栗山사건	申善浩	79·4·21	79·9·15 징역 7년, 추징금3천4백만원	80·1·31 징역 5년, 추징금3천4백만원 (계류중)	82·4·13 파기환송	80·5·7 보석
	洪允燮	79·4·14	79·8·31 징역 3년	81·4·20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계류중	79.10.31 보석
善仁학원사건	白仁燁	81·3·18	81·5·30 징역 5년, 벌금 6백만원	81·8·31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6백만원		형확정

淡水魚「흰수마자」錦江서 서식

洛東江서 살다 滅種됐다던 稀貴魚

淸州師大 孫永牧교수 10여마리 채집

◇수염이 네쌍 錦江에서 채집된 흰수마자。잉어과에 속하는 이 물고기는 겉모습이 모래무지 같지만 모래무지가턱수염이 한쌍인것에 비해 수염이 4쌍이다。

洛東江수계에서만 서식하고있다가 거의 멸종된것으로 알려졌던 우리나라특산의 담수어 흰수마자 (잉어科 학명:Gobiogotia Naktongensis Mori)가 錦江에서도 살고있음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淸州사대孫永牧교수(생물학)가 13일 학계에 보고함으로써 밝혀졌는데 孫교수는 지난 5월2일 충북淸原郡梧倉面佳谷里錦江지류 美湖川에서 흰수마자 10여마리를 채집했다는것.

흰수마자는 지난1935년 일인학자 모리박사에의해 경북榮州와 경남咸陽부근에서 5마리가 채집돼 한국특산종으로 발표됐는데 1939년 일인 우찌다(內田)교수가 安東에서 3마리、密陽에서 1마리를 채집한것을 끝으로 지난81년 崔基哲박사(서울대명예교수)와 田祥麟교수(祥明사대)가 宜寧에서 1마리를채집하기까지 洛東江에서만 단지9마리가 잡혔을뿐 그동안 40년간 전국 어디서도 채집된적이없던 희귀종이다.

이번에 孫교수가 美湖川에서 채집한 흰수마자중에는전장85㎜짜리도있어 그동안 洛東江에서 채집된 흰수마자의 평균전장 50~70㎜를 상회、오래전부터 서식하고 있음이 증명됐다.

이에대해 崔基哲박사는『국내담수어분포도를 바꿔야할 우리나라 담수어학계의 최대 낭보』라고 평했다.

崔교수는『洛東江수계 특산종인 흰수마자가 錦江에서 발견된것은 두江의 지질사적 상호관계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앞으로 어느쪽이 원산지인가를 밝혀 내야하는등 연구가 계속돼야 할것』이라고 했다.

崔교수는 또『이번 기회에 흰수마자를 천연기념물로 지정、멸종위기에서 보호해야할 것』이라면서 전세계 담수어중 한국특산종은 36종인데 이중 흰수마자·서호납줄개·어름치·수수미꾸리·가는돌고기·감돌고기·각시붕어·왕종개·평평모치·꼬치동자개등 10종은 남한지역의특산종이며 서호납줄개는 이미 멸종됐고 흰수마자·감돌고기·꼬치동자개 3종은 멸종 직전이다.

승려 帶妻·肉食 할수있게

曹溪宗 戒律개정문제 宗會회부 논의

스님들이 결혼을하고 절밖에서 고기먹는것을 허용하는 계율개정문제가 불교계에서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국불교의 가장 큰 종단인 조계종은 僧團제도를 수도승(理判僧)과 교화승(事判僧)으로 이원화、교화승에 한해 대처、육식의 금기계율을 자유화하는 「종단제도 개혁안」을 마련、중앙종회에 회부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 개혁안에 의하면 ①먼저 계율의 변천사를 연구한다음 ②식생활의 자유와 추진문제연구 ③교화승결혼허용여부와 계율과의 관계연구 ④두발삭발문제 ⑤불교예식재정비연구 ⑥승려복식개혁연구를 한다는 것. 이에따라 조계종은 앞으로 연구협의회를 구성、계율에 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공청회등을 통해 각계의 여론을 들을 예정이다.

조계종 스님은 『현재도가 대승불교의 취지에 어긋나는 남방식계율을 따른것이 많아 현시대에맞는 제도개혁과 계율의 개정문제』를 검토하게 된것이라고 밝히고 한국불교 1천6백년사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개정작업을 신중하면서도 서서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警衛정년新設 15년

警察계급 정년축소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이치안감은 현행7년에서 4년、경무관은 8년에서 6년、총경은 10년에서 9년、경정은 14년에서 11년、경감은 16년에서 12년으로 각각 단축됐고 경위의 계급정년을 새로 신설、15년으로 했다.

국무회의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경찰공무원법개정안을 의결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정보대공등 특수분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따라 총경경정경감의경우 3년범위안에서계급정년을연장할수있도록했다.

한국系 美軍이 밀수

軍事우편통해 비디오등 暗市場에 빼돌려

美軍사령부 發表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계 미국인 병사 2명이 한국인과 짜고 미군군사우편조직을 통해 88만달러상당의 일제비데오와 시계등을 밀수한혐의로 구속됐다고 13일 발표했다.

미8군에 따르면 체포된 병사는 미제2사단소속의 상병 인·H·킴、미8군인사처소속 상병 철·U·킴등 2명으로 이들은 밀수한 상품을 미공수사령부를 통해 국내에 들여와 국내암시장에 빼돌렸다는 것.

이들이 빼돌린 상품은 일제 라디오 카세트 시계 레코드등 모두 3백87항목이다.

이들은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관세법 위반혐의로 한국재판정에서 재판을 받게되는데 유죄가 인정되면 5년이상의 징역과 포탈 관세액의 5~10배에 해당되는 추징금이 경과된다.

新規·수입승용차 소음검사후 出庫

환경청은 신규제작승용차와 수입승용차(2륜차포함)에 대해서 소음허용기준을설정、기준에 적합한 차량만을 출고시키기로했다.

환경청은 이를위해 자동차의 출고과정에 입회、허용기준적합여부를 판정키로하는 한편、계속 생산되는 자동차의 제작회사는 매월생산、출고되는 자동차에 대해 정기적인 소음검사를 실시、환경청에 보고토록했다.

■환경청은 또 이미 출고되어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서도 소음기준을설정、각종자동차검사시 적합여부를 테스트할 방침이다.

환경청은 이같은 자동차소음규제방안을 환경청 고시로 확정、내년7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차종별 소음허용상한선은 다음과같다.(단위·데시벨)

◇신규제작자동차 ▲보통승용차=85~92 ▲2륜차=80~84

◇운행중인자동차 ▲경유사용차=95 ▲휘발유 및 LPG사용차=80

大韓航空 운항再開

【濟州】태풍 셀마의 북상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항공기의 운항이 재개됐다. 濟州공항에는 13일 하오1시20분 서울에서 대한항공 2131편이 도착、30분후인 1시50분 일본 오오사까로 떠났다.【聯合】

배너號 대책본부서 가족 뜬눈으로밤샘

【釜山】삼보해운소속 배너호 사고수습대책본부가 설치된 부산시 중구중앙동4가 17 대한항공3층 삼보해운 부산사무소에는 사고소식을 전해듣고 몰려든 실종선원가족들이 12일밤 찌는듯한 무더위도 잊은채 현지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며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聯合】

개구리가 毒蛇를 삼켰다

【城南】개구리가 뱀을 잡아먹어 주민들간에 화제가 되고있다. 지난9일하오3시께 경기城南시下山雲洞산81에서 과수원을 경영하는 金상돈씨(50)가 길에서 50m쯤떨어진 도로변 논길에서 쉬고있는데 풀숲속에서 온몸에흑갈색줄이있는 길이 8cm가량의 개구리가 뱀을 잡아먹고있었다는것.(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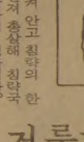
金씨는 개구리를잡아 집에가지고온뒤 술에 담가두었다가 12일하오6시께 개구리를 해부해본 결과 머리가 삼각형이고 흑갈색이 붉은색으로 변한 20cm가량의 까치독사가 뱃속에서 나왔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뱀이개구리를 잡아먹는 일은 흔한일이지만 개구리가 사람도물면 죽는다는 독사를 잡아먹은것은 좀처럼 보기드문일로 옛날부터 뱀을먹은 개구리를 잡아 술에 넣어먹으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수 있다며 명약이라고 말하고 있다.【聯合】

自強

歪曲파문…어느女高敎師의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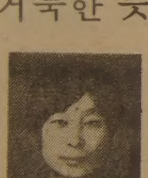
"安重根義士 거룩한 뜻 되새길때"



富川시의 한 여고에서 국어를 가르친다는 吉炳德씨(35·사진)가 本欄(탈바가지)에「제2의 伊藤博文이 나타나면 어찌 아니 쏘겠는가」란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 얼마전 松野일본국토청장관이 「한국교과서가 伊藤博文을 원흉이라 부르면서 살인자인 安重根을 영웅시한다」고한 妄言에 분통을 터뜨리기 전에 우리자신을 되돌아봐야할때임을 느꼈다며 安重根의사를 본받아 한사람 한사람이 힘을 기르자고 외치고 있다.

『安重根의사는 무너져가는 조국의 기둥을 부둥켜 안고 침략의 장본인을 목숨던져 총살해 침략국가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읍니다. 그의 거사는 그당시 나라잃어가는 젊은이들에게 나라사랑을 일깨워준 쾌거로 애국의 표상이 되어오고 있읍니다.

비록 물질문화로의 근대화가 늦어 당시의 우리나라는 약소국으로서의 설움을 당하게됐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적인 나라사랑과 창조의 정신문화는 세계수준에비해 부끄러움이 없는 우수한것이었읍니다. 日帝가 우리를 비천한 민족으로 만드려고 史觀마저 조작하는걸 서슴지 않았으나 선열들의 나라사랑은 깨지지 않았읍니다.



그들은 이번엔교과서왜곡도부족、安重根의사의 나라사랑하는 마음마저 비틀어 살인자로 몰아붙이고 있을정도입니다. 이무슨 妄言입니까. 그동안 그들이 이웃나라로서 보다 나은관계를 맺으려 노력해왔다는 그들의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할것입니까.

그들의 호의속에는 비수가감추어져있고 그들의 미소뒤에는 간교함이 도사리고 있다하겠읍니다. 새삼 금수강산을 짓밟고 우리백성을 약탈살육하던 그들의만행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수 없읍니다.

이런때가되니 수많은 애국행적과 글、그리고 옥중생활을통해 국내외에 널리알려진 安重根의사의인품과 自強의 의지가 거울처럼 빛나는듯 합니다』

吉씨의편지는 「기본틀」도모르는 나라와 국제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려면 「自強」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사랑스런 5천년의 국토여!/당신을 사랑하기에/영원히 사랑하기에/순국하여 왔고/또/순국하리다/또 그리고 또」란 시로 맺고있다.

吉炳德【서울城北區貞陵洞7의183】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 매혹의 가수 배성 특별출연 ★★
◎7, 8월 여름휴가중 영업시간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海城酒家
SEA CASTLE RESTAURANT
— 해성주가 —(구 : Sea King)
한국인 고객여러분, 과거 Sea King레스토랑이 장소를 옮겨 다시 Open했읍니다. 옛정을 잊지마시고 다시 찾아주십시오.
◇순수 중국광동식 음식 ◇일류 요리사들만 채용.
◇특히 해산물 전문. ◇1주내로 술허가 나올예정.
◎ 매일 OPEN(일요일포함) 오전10시~새벽3시까지
591 Gerrad St. E. (제랄드×브로드뷰)
새빌딩 Unit B1. B2. B3 (아래층지하실)
☎ 465-8272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 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Family Product Distributor
도매상과 값을 비교해 보십시요.
저렴한 가격으로 무료 배달($60이상일경우) 합니다.
취급품목
Paper towels, 화장지, Detergent,
각종 Soap, 세탁비누, Pampers,
종이봉지(Paper bag)
87 Green Lane, Unit 10 Thornhill
주문☎ : 889-9757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짬뽕·짜장면
해장국·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 531-0277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釜高, 8회에 「得點 大行進」

11대4콜드勝 앞달리던 城南마운드 두들겨 8점뽑아내

◇必死의 홈인 釜山高—城南高대전 7회초 城南공격 2死에서 2루주자 李國成㊨이 河善珍의 중전안타로 홈인, 3점째를 올리고있다。城南은 7회까지 4—3으로 리드했으나 8회서 기록적인 8실점, 11—4로 8회콜드게임당했다。

소나기 12安打에 城南高 비틀
群商도 馬山高격침 8強 합류

제12회 봉황대기고교야구 제13일

釜山高가 7회의 고비를넘기고 城南高마운드를 12안타 6四死球로공략, 8회말 한회에만 8점을 거둬들여 11—4 8회콜드게임으로 역전승했다。13일 서울운동장에서 속행된 제12회 봉황대기쟁탈 전국고교야구대회 13일째 3회전경기서 釜山高는 왼손에이스 金宗奭의 야수선택 악송구등 잇단 범실로 화를자초, 城南高에 선제점을 빼앗기며 고전하다가 7·8회말의 대공세로 3회전 첫콜드게임승을 거두고 8강에진출했다。12일밤 3회전에서 群山商高는 6회초 7번 尙瀓圭의 결승2루타를 비롯한 연속3안타로 馬山高에이스 姜源中을 통타, 승기를 잡고 9회초 3번 白仁浩의 2타점 3루타등으로 3점을 추가, 8—3으로 이겨 8강에 합류했다。

釜山高-城南高

7회초 타석에나선 城南4번 李哲柱의 타구가 3루베이스를 때리고 튀어올랐다。釜山3루수 柳東孝가 재빨리 볼을잡아 1루에 던졌으나 아슬아슬한 세이프였다。

釜山에이스 金宗석은 비위가 상했다。황금의왼팔로 칭찬을 듣던

城南5번 金再根이 보내기번트를 하자 타구를 잡아 앞미운주자 李哲柱가 달리는2루로 던졌으나 또 세이프, 야수선택으로 주자는 1·2루。

더욱 화가난 金종석은 2루견제구를 잘못던져 1·3루로, 다음타자 6번 李國成에게 포볼을주어 無死만루로 사태를 악화시켰다。

城南은 1死후 8번柳玄權의 정확한 스퀴즈번트로 1점, 9번 河善珍의 중전적시타로 2점, 1번姜秉善의 중전적시타로 1점을 모아 4—0으로 리드했다。

釜山은 金宗석을 과신, 너무 큰 대가를 치렀다。

6회까지 안타수 7—2로 앞서면서도 선제실점의 수모를당한 釜山은 7·8회말맹공으로 11득점 콜드게임승으로 앙갚음했다。

城南의 2루수梁漢城은 7회말 釜山선두타자의 범타를 잡아 악송구하는실책으로 무실점으로 선방하던 왼손투수 李國成에 찬물을 끼얹었다。

李國成은 연달아 포볼과데드볼을 내주며 피로의기색을 보였고 釜山은 때를놓치지않고 7회말 한개의 적시타로 3점, 8회말 4개의 집중타로 8점을 획득했다。

5타수4안타1득점 打擊賞노려
釜山高2번타자 玄偒琇

봉황스타

釜山高 2번타자 玄偒琇(1년·좌익수)는 이번대회 타격상을 노리는 단타위주의 정확한 타자。全州商高와의 1차전서 3타수 3안타, 永同商高와의 2차전서 3타수 2안타를때린 玄은 城南高와의 대전서도 5타수 4안타에 1득점 3타점의 호조를 보여 통산 11타수 9안타를 기록했다。

『이날 6회까지 계속 안타를 치고 출루했지만 점수와 연결이 안돼 무척 초조했어요』

釜山高의 귀염동이 玄偒琇의 애띤 얼굴은 상기되었다。이날 城南高 李國成의 커브는 잘 안먹혔고 평소 좋아하던 인코너 직구를 던져 공략하기가 쉬웠다고。키 1m66, 체중 60kg。釜山高 曺斗腹감독은 『玄은 조용한 성격에 착실히 연습을 쌓는 유망주』라고 칭찬하면서 손목힘도좋고 타석에들어서면 대담한타자이지만 아직어려서 키가작은게흠이라고 지적。玄相漢씨(46·공무원)의 2남중 막내。

◇제13일 전적

성남고	0	0	0	0	0	0	4	0		4
부산고	0	0	0	0	0	0	3	8		11

▲성남투수=李國成(1·8회) 金泰貫(8회) 포수=裵德鎭 ▲부산투수=金宗奭 포수=田龍雨 ▲안타=성남5—12부산 〈8회콜드게임〉

◇제12일 전적

군산상	1	0	0	2	0	2	0	0	3	8
마산고	1	0	1	0	0	0	0	0	1	3

▲군상투수=李東錫·趙啓顯(2회) 포수=張虎翼 ▲마산투수=姜源中 포수=李東勳 ▲안타=군산상9—마산9

뉴델리 亞洲競技선수단 확정
18종목에 3백10명
乘馬등 3종목 보류…상황따라 交替

대한올림픽위원회(KOC)는 13일 제9회 印度아시안게임(11월19일~12월3일)에 파견할 한국선수단(임원46, 선수264)을 확정발표했다。

체육회는 11, 12일 이틀간 아시안게임 파견선수선발전형위원회를 열고 파견대상 21개종목중 18개종목의 파견수를 선발하고 승마·조정·요트등 3종목의 전형을 보류했다。

전형위원회는 입상유망종목과 정책종목을 고려, 해당 경기단체의 추천과 훈련단이 작성한 전형자료를 18로 대노종목 2백64명(남자187, 여자77명)의 대표선수를 선발했다。임원은 모두 46명이다。

전형위원회는 선수선발이 끝났더라도 상황에 따라 대표선수를 추가, 제외, 교체시킬 수 있도록 하고 9월중 개인종목별로 전력평가회를 갖기로 했다。

종목별 선수단중 하키(남·여)가 36명으로 가장 많다。

KOC는 본부임원및 종목별회의 대표, 조사단등은 추후선임키로 했다。

◇육상 ▲코치=朴承培(단거리) 鄭昇哲(중거리) 尹卓寧(장거리) 黃正大(도약) 全漢吉(투척) ▲남자선수=張在根 徐末九 崔容準 金相文 金梁坤 金福柱 金鍾鎰 梁毆寧 洪淳模 金鍾九 朴元根 ▲여자선수=牟明姬 金貞植 金順花 田京美 全希宣 田玉金 金美淑 李尙役

◇수영 ▲코치=劉秉謙(경영) 趙彰濟(다이빙) ▲남자선수=千仁泰 李勳喆 李忠源(1명 추후발표·이상경영) 朴鍾龍 李承俊(이상다이빙) ▲여자선수=崔允庭 金昤希 李始恩 權于禎 崔允喜

◇궁도 ▲남자코치=李起式 ▲여자코치=鄭甲杓 ▲남자선수=李龍浩 嚴壽基 金永雲 ▲여자선수=金珍浩 朴英淑 金美英

◇사격 ▲코치=金佐斗(소총) 南相完(권총) 王榮善(클레이) ▲선수=尹德夏 徐長雲 朴榮信 郭才男 朴大雲 金善德 金準永 羅宅烈 郭定勳 朴榮(이상소총) 朴鍾吉 朴承鎭 楊忠烈 李元錫 任泰鎬 張大雲 金裕植 崔完燮 崔承滿 金枚植 閔泳三(이상권총) 李文鎬 李碩雨 崔明培 金榮鎭 金榮日 朴哲承 林大興 金基元(이상클레이)

◇체조 ▲코치=趙成東 ▲선수=崔淑姬 羅權 張太銀 南勝久 韓忠湜 蔡光錫 맹우경 李貞植(이상남자) 李順禮 李香林 鄭鋼愛 郭善行 李貞熙 柳起金 羅善任

◇사이클 ▲코치=安光山(벨로드롬) 金光善(도로경기) ▲선수=李龍佑 金鐵石 李鎭玉 ▲ 金柱錫 金永洙 崔丙昌 張允鎬 吳允煥 金炳善 李光鉉 安孝蔚

◇복싱 ▲감독=蔡用錫 ▲코치=朴炯春 ▲선수=許太植 權彩吾 文成吉 權鉉珪 朴基哲 金東吉 金鉉平 鄭鎔範 李海正 趙龍來 洪起鎬 蘇培元

◇레슬링 ▲감독=金益鍾 ▲코치=吳正龍 ▲선수=孫甲道 金鍾奎 尹炯在 金泰雨 程龍 李淙永 李正根 韓明愚 金基正

◇역도 ▲감독=金準生 ▲코치=李春植 ▲선수=李明洙 李龍求 金基雄 金喆鉉 金元春 申東澈 李康錫 安智榮

◇배드민턴 ▲코치=韓盛貴 盧正權 ▲선수=李恩成 韓漢國 崔秉學 朴在奉 金炳植 李得春(이상남자) 黃善愛 姜幸淑 金練子 柳尙希 金允淑 宋恩周

◇탁구 ▲감독겸남자코치=金昌濟 ▲여자코치=金忠勇 ▲남자선수=朴利熙 金浣 金琦澤 尹吉重 ▲여자선수=李壽子 安海淑 尹璟美 梁英子

◇축구 ▲감독=金正男 ▲코치=金鎬坤 ▲선수=咸鉉起 鄭鍾洙 李康助 李泰昊 鄭聖敎 丁海遠 邊炳柱 朴慶勳 安柄泰 李興實 朴英洙 崔基奉 張外龍 崔景植 姜信寓 朴成華 趙廣來 崔淳鎬

◇배구 ▲남자감독=李圭昭 ▲동코치=崔宗玉 ▲여자감독=田好寬 ▲동코치=金炯實 ▲남자선수=姜斗泰 李範柱 張允昌 李鍾敬 金仁玉 李元宰 文湧冠 韓壯錫 金敬雲 金炯泰 金相保 韓尙奎 ▲여자선수=金英淑 李恩敬 金貞順 金松根 鄭琴仙 南明禮 韓敬愛 李文任 郭宣沃 李榮宣 朴美姬 陳春梅

◇농구 ▲남자감독=方烈 ▲동코치=李炳國 ▲여자감독=申東坡 ▲동코치=趙勝延 ▲남자선수=朴守敎 李忠熙 李文圭 朴鍾千 李栞鉉 朴仁圭 李東根 陳孝準 李長洙 曺東佑 林正明 安俊浚 ▲여자선수=洪惠蘭 權明嬉 洪英順 朴贊淑 朴良桂 金美愛 金英姬 金和順 車良淑 方信實 朴鎭淑 禹恩京

◇핸드볼 ▲감독=柳在忠 ▲코치=李銀求 ▲남자선수=李相孝 吳世勳 姜泰求 林英喆 姜世容 崔太燮 朴秉洪 金永男 沈檳萬 李尙雨 姜德壽 姜在源 崔正鎬 林在植 林圭夏 李仁淑

◇테니스 ▲남자코치=崔富吉 ▲여자코치=趙大濟 ▲남자선수=李우용 宋東煜 金春浩 ▲여자선수=金壽玉 全瑛大 金男淑 申順浩 薛旻敬

◇하키 ▲남자코치=劉承仁 ▲여자코치=朴英朝 ▲남자선수=劉敏承 金鍾國 池永彩 金敏洙 池壽讚 金勝中 在寬 具成根 鄭成鎬 南宮 金宰弘 朴秀珍 韓鍾烈 金濟光 申玉 文斗煥 安鍾來 吉澤主 洵鎬 ▲여자선수=金美善 金聖淑 黃金淑 이지혜 林香實 崔銀玉 韓玉景 徐光美 鄭尙鉉 劉賢淑 任桂淑 趙基香 羅明月 李外南 황현미 陳元心

◇골프 ▲코치=李鍾民 ▲선수=李鍾民 金桂憲 김성호 곽유현 권중천

한국, 北韓에 憤敗
亞洲J축구 5-3… 힘달려 逆轉골내줘

【싱가포르=千一平특파원】 한국청소년대표팀은 북한과의 사상3번째 축구대결에서 5-3으로 역전패했다。

한국은 12일밤 이곳 국립경기장서 벌어진 제23회 아시아청소년축구대회동부지역 예선전 북한과의 준결승전서 전반4분 李基根, 9분 金鍾眼의 득점으로 리드를 잡고 우세한 경기를 펼치다 21분께 페널티킥을 허용, 전반을 2-2로 끝냈다。

한국은 후반1분30초께 북한의 이용길에게 중거리슛을 내주어 리드를 당했으나 1분만에 申連浩의 원바운드 헤딩슛으로 3-3동점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후 체력의열세로 패스미스가 속출, 후반 32분과 36분 북한의 최용길에게 연속 2골을 빼앗겼다。

한국은 14일 하오7시 泰國과 3, 4위전을 갖는다。

이날 中共은 泰國과의 준결승전서 1-0으로 이겼다。

◇준결승전

북한 5 (2-2, 3-1) 3 한국

중공 1 (1-0, 0-0) 0 태국

세계아마레슬링, 喜悲 엇갈려
金鍾奎등 3명은 이기고 孫甲道등 4選手는 敗해

【에드먼턴(캐나다)AP=聯合】 82년 세계아마레슬링 자유형 선수권대회 이틀째경기가 13일 이곳서 속행, 金鍾奎(52kg) 李正根(62kg) 尹炯在(68kg)가 각각 승리를 거두었으나 강호 孫甲道(48kg) 韓明愚(74kg)와 李淙永(57kg) 金基正(1백kg)등 4선수가 패하여 희비가 엇갈렸다。

◇제2일전적

▲48kg 3차전 코르니라에프(소련) 판정 孫甲道 〈4-3〉

▲52kg 1차전 金鍾奎 판정 테라니(이란)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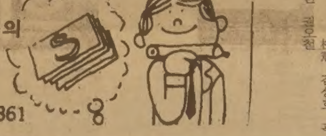
▲57kg 4차전 아제베도(미국) 판정 李淙永 〈7-3〉

▲62kg 1차전 李正根 판정 크리스브라운(호주) 〈9-7〉

▲68kg 1차전 尹炯在 판정 J·싱(인도네시아) 〈6-5〉

▲74kg 1차전 마린·노스프(서독) 판정 韓明愚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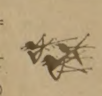
▲1백kg 1차전 타스킨(터키) 판정 金基正 〈10-4〉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89〉

朴婉緒 作 金光培 畵

양달 ㉓



『뭘 말이냐?』

수철이 물었다。

『아, 아무 것도 아네요。』

수지는 까딱하다간 자신의 미움에 설명을 붙여야 할것 같아서 이렇게 얼버무렸다。

『네 마음 내가 안다。알고말고。너하고 수인이는 우애가 남다른 형제들이지。네가 수인이를 잠거에서 잃어버리고 돌어온날 네가 얼마나 몹시 울고불고 보챘었나를 나는 지금도 잊을수가 없다。몇번이나 기함까지 했었지, 아마。그날이 하필 후퇴하는 날만 아니었어도 어떡하든 우리는 수인이를 찾아내고야 말았을 게다。불가항력의 불운이었어。우리에게도, 수인이에게도。너의 극진한 우애가 입은 상처가 얼마나 깊다는 걸 알기에 나는 더 더욱 수인이를 찾아주고 싶었다。수인이한텐 미안한 얘기지만 그애한테 정이 있어서가 아니었어。너에게 네가 원하는 커다란 인형을 안겨주듯이 수인이를 안겨주고싶은 일념뿐이었지』

도저히 적의를 들이댈 여지없이 수철의 태도는 간곡했다。

『그렇담 오빠, 그게 정말이라면 오빠 이렇게 오려서 보관할 정도로 뭔가 마음에 걸리는 아이라면 한번 찾아가서 확인할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게 우리가 취할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었을까?』

『긴가 민가한 정도여서 한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는게 확실한 이상 무엇때문에 그래? 그런 짓은 그애에게 일시적으로 헛된희망을 줄 뿐이야。그때 그애는 겨우 다섯살이었어。네 말대로라면 네살로 봐야지。그애에게서 새롭게 알아낼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으리란게 확실한 이상 그런 짓을 왜 해? 고아에게 헛된 희망을 준다는 건 잔혹 취미일 뿐이야』

『왜 그렇게 헛된 희망쪽으로만 몰고 가려고해요? 그애가 우리 수인이란 증거도 없지만, 수인이가 아니란 증거 또한 없다면 데려다 기를수도 있는거 아녜요? 다행히 우리에겐 그 정도의 재력이 있어요。우리에게도 그애에게도 큰 복이 될거예요』

『넌들 왜 그런 생각이 없었겠니? 처음엔 나도 그애가 우리가 기억하는 수인이와 모든 게 다 얼토당토않다고해도 우리가 사랑한 수인이의 별명을 그의 이름으로 가지고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정을 주고 한식구로 만들만하다고 생각했었지。그러나 수지야, 난 한집안의 가장이다。그렇게 일시적인 감정에만 치우칠수가 없어』

『그게 무슨 뜻이죠?』

『그 광고가 날 무렵, 너는 꽃봉오리가무색하게아름답고 청순한 여고생이었다。나는 너를 고생도 모르게 키웠지만 이 세상에 악이 있다는 것도 모르게 키웠다고 장담할 수가 있지。그뿐 아니라 그때 난 이미 결혼해서 아이가 있을 때였다。어려서 부모를 잃었으니만큼 난 내가정을끔찍히 사랑했다。정체모를 고아를 내가 애써 가꾼 오붓한 가정에 들이고싶지가 않았어。그애의 경력을 보렴。가정의 기억이라곤 없이 어려서부터 고아원으로만 전전한 아이 아니니? 그런 애의 빗나가고헐벗은정신세계를 상상해보렴。솔직이 말해서 난 싫더라。그야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결국 긴가민가한 것을위해서 확실한 희생까지를각오해야한다는 게 얼마나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는 이제떳떳치못한구석 없이 당당해져있었다。기고만장하기까지했다。

교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족할만한 광고효과를 볼수 있는
한국일보 광고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의 사업이
저희 광고로 인해 더욱 더 번창하며
튼튼한 기반을 갖게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여러분께 보다 친절한 마음으로
신속·정확히 서비스하는 것이
저의 맡은바 소임이라 생각하고
정성껏 여러분들의 광고를 살펴 드리겠읍니다.

☎ : 533-2361~4

월~금(9:00~6:30), 토요일(10:00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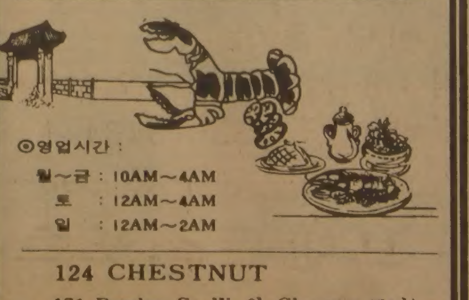
한국일보 광고국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10AM~4AM
토 : 12AM~4AM
일 : 12AM~2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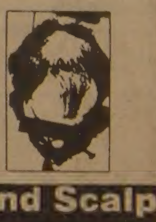
124 CHESTNUT
171 Dundas St. W. 와 Chestnut 코너)
☎ : 977-9734

보십시요
새머리털이 자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머리털의 성장 실험결과가 우리 전문가들에 의해 85% 이상 성공했읍니다.

당신의 머리털이 빠짐을 막고, 새 머리털의 성장주기를 자주 해주는 최근의 설비가 임상실험실에 있읍니다. 우리의 훈련된 머리털 전문가가 당신의 머리털과 머리 가죽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일차 상담해 주십시요.
걱정을 해결합니다.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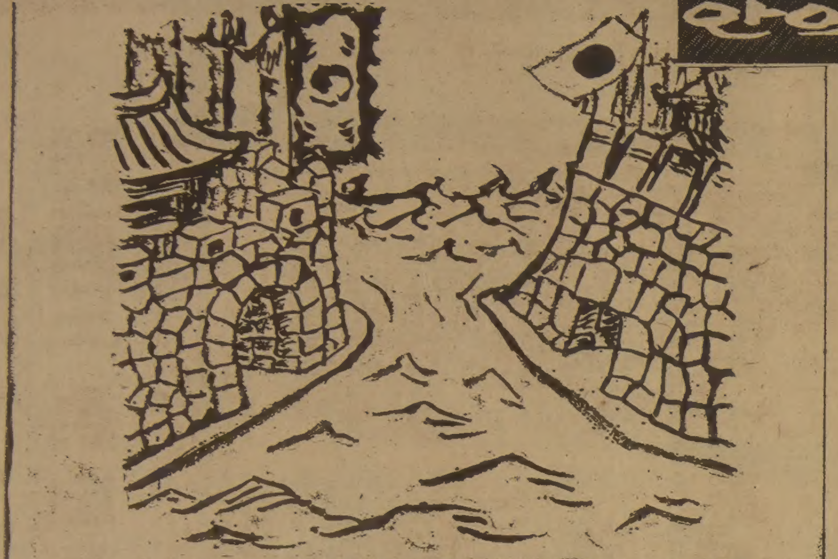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 : 537-3104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 (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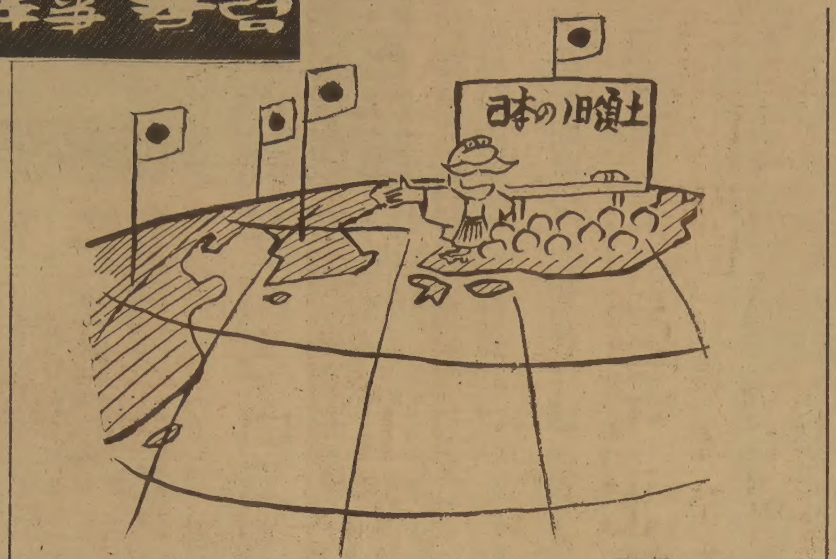
週刊한국

Benjamin Moore PAINTS
블루어 하드웨어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판매수리
변 의 섭
주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안의섭 時事칼럼



教科書 攻防戰의 [illegible]…. 안



歪曲 日本史 그대로 놔두었더니 10年後의 教科書는…. 안

기도문

제 육신의 어느부분이라도 모두떼어… 복음사업에 써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제 영혼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추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벌레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제가 무엇이기에 이토록까지 사랑하십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사람을 셋씩이나 죽인 끔찍한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세상의 쾌락속에, 세상의 정욕속에 너무나 깊이 빠져 있어서 이렇게 해서라도 세상을 등지게 하지 않으면 님께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악하고 위선적이며 잘 변하는 벌레같은 존재였읍니다.

주여, 베드로는 가야바의 뜰에서 주님을 세번씩이나 부인했읍니다. 저는 베드로를 따를 수 없는 잘 변하고 연약한, 추한 죄인입니다. 이제는 저를 굳게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만 믿고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다시는 잠시라도 놓지 말아주십시오. 어떤 때라도, 어느 경우에도 제 곁에 계셔 붙들어 주시고 제 속에 계셔 저를 완전히 주장하여 주십시오.

오, 주여, 사랑이시고 생명이신 내 주님.

세상은 저를 용서치 못해도 주님께서는 저를 용서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읍니다.

주님, 절망할 수 밖에 없던 저에게 찾아 오셔서 참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새로운 세상을 느끼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제가 살해한 그분들의 자녀들과 유족들도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주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늘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실족치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제 영혼을 거두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영혼에라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주님 품속에서 어머니에게 안긴 아기처럼 제가 쉴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서 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고 싶습니다.

저는 너무나 오래 방황했읍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를 어떻게 쓰시더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서 건지실 영혼을 구하소서. 제 육신의 어느 부분이라도 모두 떼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사업에 써 주시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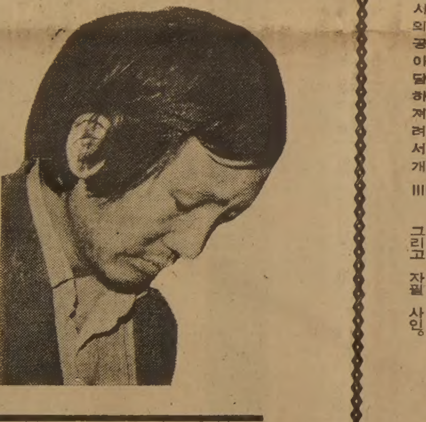
이제 가슴속에 가득했던 절망은 사라졌읍니다. 그 대신 사명감으로 충만되어 있읍니다.

붙드시고 놓지 말아 주옵소서.

나를 위해 피흘리시고 몸 찢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히신 오, 내 주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참 독생자이십니다. 제 영혼을 주님께 맡기오니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내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1979.10.7
서울 서대문경찰서 유치장 제3호에서 죄인 朴鐵雄



◇살인마 朴鐵雄은 옥중에서야 뒤늦게 참회, 기독교에 귀의하고 그의 눈과 신장을 「하나님의 복음사업에 써달란」는 마지막 글을 남긴채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 글은 최후의 글…"

이 글이 내가 쓰는 최후의 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기억을 되살리기에 힘써 가능한 사실 그대로를 쓰고자 최선을 다한다.

용서받지못할 죄인으로서 죽음을 앞두고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받고 주님의 뜻에 따라 내 생명이 처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과 단 한사람의 영혼이라도 저를 범치 말고 살아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것 뿐이다.

내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A선생님이 나에게 쓰고싶은 말을 쓰도록 이렇게 권해준것도 모두 다 주님의 뜻으로 안다. 가신 영혼들에게 사죄하며 그분들의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빈다.

유족들과 온국민에게 또 내 사건관계로 밤낮으로 애쓰신 선생님들께 용서를 빈다.

특히 이 글을 남겨받는 A선생님과 가족분들이 꼭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시길 진심으로 빌며 주님께서 언제나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1979·10·5 (중추절)
서대문경찰서 유치장 제3방에서
죄인 박 철 웅

◇어린시절

세상사람들이 흔히 법없이도 살사람이라고 말하는 정직과 겸손으로 일생을 살고 계신 아버지와 사랑과 헌신으로 일생을 눈물속에서 살고 계신 어머니품에서 41년3월16일 나는 출생하였다. 내 위로 형님과 누님이, 아래로 여동생 둘과 남동생 하나 6남매였으나 현재 생존해 있는 형제는 형님(46세) 한분과 남동생(34세) 여동생(30) 모두 4남매다. 남동생은 이번 내사건에 휘말려버린 전용이다.

유복 가정서 태어나 순종…國校선 줄곧 우등·반장·개근
중학땐 苦學生들 도와 "어머니를 제일 존경"

서울에서 태어났던 나는 3살때 아버지의 근무처를 따라 서울 신설동에서 부산으로 내려가 살게 되었다. 현재 본적지로 되어있는 부산영도구 대평동2가41번지에서 나는 성장했다.

서울에서 왔고 그후에 집에서 경영한 식당이름이 서울식당이었기때문에 모두들 우리집을 가리켜 「서울집」이라고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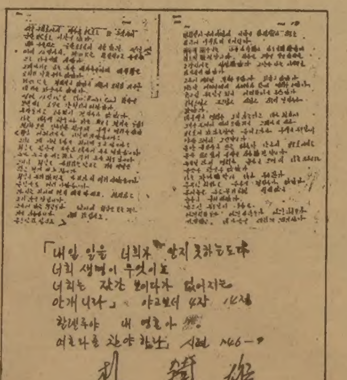
어머니는 언제나 검소하고 단정한 차림새로 깨끗하셨고 머리는 반듯하게 빗으셔서 뒷머리에 쪽을 지으셨다. 국민학교에 다닐때에 어쩌다 새벽에 소변을 보려고 일어나면 그 때 벌써 어머니께서는 집안을 말끔히 정리하신 뒤 거울앞에서 머리를 손질하고 계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고 아프게 그때가 그립다. 우리 동네에서는 부부싸움이 생기면 으레 그 남편이 부인에게 「서울집 아주머니한테 좀 배우란」고 하

본지 單獨 입수

金堂 살인마 朴鐵雄의 獄中 최후 手記

"어쩌다 짐승보다 못한 짓을…" (上)

金堂사건。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생생하고 온국민이 전율했던 끔찍한 살인극。그 金堂사건의 주범 朴鐵雄이 사형집행을 앞두고 자신의 안구와 신장을 사회에 기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검거당시 그 뻔뻔했던 얼굴。3구의 시체를 자기집 마당에 묻어두고 무려 석달을 태연히 살아왔던 그 짐승같은 성정。많은 사람의 기억속에 살인마라는 단어로 깊이 새겨졌던 그가 어떻게 죽음을 마주하면서 이렇듯 아름답게 생을 정리할수 있었을까。79년 9월28일 검거되어 1·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80년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사형집행의 날만을 기다리던 朴은 그후 세인들의 뇌리에서 잊혀져가는 기간동안 새로운 모습으로 환생하고 있었던 것이다。기독교에 귀의, 독실한 신앙생활로 회개의 나날을 보냈고 같은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헌신적인 전도생활을 했다。구치소측은 행형성적이 좋지않은 말썽꾸러기 재소자들을 번갈아 가며 朴과 합방을 시켰는데 그때마다 朴이 성경을 나누어 읽으며 자신의 과거얘기를 해주고 종교의 힘을 전하여 순화에 성공했다고 들린다。朴鐵雄은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살아왔던 추악한 과거를 기록으로 남겨 자신의 사건을 담당했던 A경위에게 전했다。대학노트 3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기록은 군데군데 참회의 눈물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그가 환생하는 모습이 솔직한 문장으로 그려져 있었다。週刊한국은 朴이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써 A경위에게 남긴 이 기록을 단독입수, 세상에 공개한다。



◇朴鐵雄이 사형집행되기 전에 A경위에게 남긴 참회의 수기와 기도문, 그리고 자필 사인。

제2회 브랜든스포츠사배쟁탈

추계야구대회

종 목 : 대표팀, O.B팀(1951년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일 시 : 1982년9월4일, 5일(토·일)오전8시30분
장 소 : 센테니얼파크야구장
참가비 : 팀당 $70
주장회의 : 8월28일(토)오후7시브랜든스포츠사내
연락처 : 박재선 755-6434
브랜든운동구점 598-3732
주 최 : 브랜든스포츠사
후 원 : 토론토한인회, 대한체육회캐나다지부, 한인야구협회

식당 차린 아버지는 거지를 마다않고 받아들여 변함없이 음식 대접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鄭씨의 고사리 4자매와 동생 부부를 잃은 형 鄭海雨씨가 충격과 슬픔으로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는 것이 예사였다.

나는 때 순종형이었다. 부모님께나 동네 어른들에게도 귀여움을 받고 자랐다. 형에게는 절대 복종했고 동생들을 사랑했다. 우리 동네에서 저희 형제들끼리 싸우면 그 부모님들은 『서울집애들 본 좀 받아라』고 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화목하고 원만한 가정이었다.

내가 국민학교를 졸업할때 6년 우등하고 6년개근하고 성적좋은 친구는 몇 있었으나 6년동안 지각도 조퇴도 결석도 없는 개근은 나혼자였다. 어떤때는 아마도 3학년때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심한 열병에 걸려 그밤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앓아도 학교에 가서 앉아야 되겠다고 끝까지 우겨서 학교에 출석하여 하루 일종일 그것도 머리를 그렇게 교실에서 보낸 적도 있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독서와 음악에 관심이 컸었다. 책을 보면서 잘 우는 편이었다. 밥을 먹을 때도 문학서적을 손에 들고 한 숟갈 입에 넣고 씹으면서 책을 보곤한다고 꾸지람도 많이 들었다. 그래도 책을 읽고 음악을 듣는것이 좋았다. 내 형도 무척이나 음악을 좋아했고 인정스러웠다.

부족함없이 풍요와 사랑속에서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다녔다.

당시는 6·25직후로 친구중에는 피난온 애들이 많아서 학비를 벌기위해 신문배달도하고 판자로 만든 조그만 상자속에 껌이나 과자종류를 담아 거리를 다니면서 팔기도했다. 나는 신문배달하는 친구들과 함께 배달때 동행도 했고 월사금(회비) 같은 것은 내가 집에서 돈을 타내어 주기도 했고 과자파는 친구는 함께 다니면서 같이 팔아주기도하고 둘이서 같이 과자를 먹고 나중 집에 들어갈때는 내가 전부 다 계산해 주곤했다. 불쌍한 사람이나 가련한 친구들때문에 쓴다고 돈을 달라고하면 언제나 어머니는 내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자식 거두도 하지. 그것은 참 착한일이란다』하시며 기뻐하시면서 돈을 주셨다.

내 아버님은 누구에게나 겸손하셨고 이해득실을 따지기전에 양보를 하시는분이셨다. 아버지가 경영하시는 식당은 한식과 양식, 일식 전부를 취급했는데 그때만해도 걸인들이 삼삼오오 떼를 지어서 깡통을 들고 구걸행각이 성했다.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 구걸을하면 아버님은 한번도 꺼리시는 기색없이 오히려 그사람들의 손을 잡으며 식당안으로 끌어들여서 모두다 테이블에 앉히고 무슨음식이든 양껏 실컷 먹이시고 돌려보내곤 하셨다. 집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나 우리형제가 집에 손님떨어진다고 만류해도 『사람은 다 평등한거야. 내가지금 식당에서 밥먹인다고 안오는 손님은 그사람이 거지보다 더 불쌍한사람이어진』하시며 언제나 변함없이 거지들을 대하셨다. 그것은 우리집이 식당을 그만둘때까지 계속되었다.

내 어머니는 좋은 점을 지닌 분이셨다. 인간을 사랑하는 것, 타인의 경우를 이해해 주는것, 검소하게 사는 것, 근면하고 성실하게 사는것, 이 네가지가 어머니의 전부였다. 이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고 묻는다면 난 서슴지않고 내 어머니라고 말할 것이다.

옛말에도 훌륭한 어머니에 훌륭한 자식이 나온다고 했는데, 어쩌다 내 어머니같은 훌륭한 분한테서 나같은 추악한 자식이 있게 됐는지 알 수 없다.

◇고교시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입시를 치르기위해 서울행 야간열차표를 사려고 부산 남포동거리를 건너다 나는 그때 4~5명의 가족같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은 그 집 큰 따님을 내가 중학때부터 누나로 삼은 집의 가족들이었다.

◇첫결혼

그때 그 누나되는 분은 서울S대 재학중이었고 바로 밑의 여동생이 나와같은 학년이었는데 그 동생이 서울에 대학입시를 치르기위해 부산역으로 나가는 중이었다. 나는 평소 몇번 인사를 나누었던 그녀에게 내 차표도 한장 부탁했고 곧 헤어져 몇몇 친구들과 송별한 후 역으로 나와 밤열차로 그녀와 함께 상경했다. 그 사람이 바로 그후 연애가 시작되어 나와 결혼한 첫번째 아내였다.

그녀는 언니가 자취하는 방에서 학교를 다녔고 나는 하숙을 하며 학교에 다녔다. 그녀는 너무나 순진하고

大入때 가족같은 동네분 딸과 사귀어 결혼

친구집서 셰익스피어全集훔쳐 6개월실형

책 절도사건후 失意와 敗北感때문에 고민

入隊해 의무병과로 임상병리검사실서 복무

◇세상을 경악과 분노로 들끓게 했던 朴哲雄이 검거된 직후 「금당」앞에 몰린 시민들.

착한 여자였다. 내가 그녀의 자취방에 놀러갔다가 그녀를 내 임의로 소유했었는데 하루는 집에 찾아갔더니 꼼짝도 않고 방속에만 있었다기에 왜 그랬느냐고 물었더니 남자와 관계를 가진 여자는 사람들이 보면 표가 나서 안다고 선배언니가 얘기한 적이 있다면서 부끄러워서 밖에 외출을 못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녀는 순진했고 착했으며 또한 여성적이었다.

학창시절의 나의 취미는 독서와 음악감상이 전부였다. 독서와 음악은 때로 나를 한없이 슬프게도 했고 또한 무한한 희열을 느끼게도 했다.

대학2학년때인 어느 늦은 봄날이었다. 친구네 집에 놀러 갔었는데 마침 친구는 집에 없었고 나는 그친구의 방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첫번째 실수

나는 그 친구의 서재에 꽂혀 있던 책들 가운데서 셰익스피어전집을 들고 집으로 왔다. 아무도 몰래 훔쳐 나온 것이다.

그집에서는 내가 한 짓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관할지서에 도난신고를 해버렸다. 조사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집에 출입했던 사람들을 조사하게 되고 내 하숙방까지 찾게 됐는데 내방에 놓여있던 그 책이 발견되어 나는 구속되었다. 그때는 이미 내 친구가 소취하를 하려해도 늦은 때였다.

나는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 사건후 나는 실의와 패배감때문에 견딜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63년 3월에 자원하여 육군에 입대했고 65년 10월에 만기제대를 했다. 의무병과로서 부산에 있던 병원 임상병리검사실에서 근무했다.

군에 있을 때에도 그녀는 나를 위해 편지를 해주었고 면회를 와주었다. 제대후에 그녀와 나는 66년 3월에 결혼을 했다.

결혼당시에 처가에서는 나와 그녀의 결혼을 반대했다. 당초에는 내집 부모님께서는 쾌히 승낙하셨었다. 그러나 어느날 장모되시는 분이 내집에 찾아와서 내 어머니께 모욕적인 표현으로 두사람의 결혼반대를 내세웠고, 그로 인해 내 부모님들도 그녀를 반대하게 되었다.

양가에서는 서로 반대했지만 두사람은 그럴수록 더욱 굳게 맺어졌다. 결국 처가에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으나 끝내 내집에서는 반대였다.

그날따라 억수같은 비가 아침부터 퍼부었다. 결혼식장에 모여드는 축하객은 거의 전부가 처가쪽 손님이었다. 내 쪽에는 청첩장을 보내지 않았고 내 친구 몇사람과 내 동생이 참석한 것이 전부였는데 나중에 내 친구들이 집으로 찾아가서 억지로 끌다시피하여 내 아버지만 식장에 참석케 했다.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에는 기쁨과 어떤 희망보다도 내 처가 가엾다는 생각, 내 자신에 대한 알수 없는 울분, 그런 생각들이 나를 슬프게 했던 기억만이 맴돌고 있다.

결혼후 그때는 월남에 해외취업이 한창이었다. 나도 그 대열에 끼여 청진동에 있는 한국해외개발공사에 수속을 밟고 중장비운전을 배우기 시작했다. 강의는 해외개발공사에서 받고 실습은 개인적으로 어디선지 건축현장을 찾아가서 기사에게 약간 인사치레를 하고 운전을 익히는 것이 그때의 실정이었다.

정말 그때는 열심히했다. 내집에도 처가에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일어서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느날 나는 지치고 피로하고 견딜수 없어 눕게 되었는데 요·이불이 흠뻑 몇번씩 젖었고 심한 고열에 허덕이다가 그날밤 급기야는 각혈이 시작되었다. 하룻밤에 각혈은 맥주컵크기의 컵에 서너개씩했다. 어쩔 수 없이 부산 부모님께 연락하게되었고 어머니께서 부산 성지곡수원지 근방에 조용한 집을 장만하시고 그곳에서 요양이 시작되었다.

참으로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셨다. 약에서 음식물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배려를 해주셨다. 파스와 아이나를 장기 복용하면 위가 상할 우려

除隊해 중장비운전 배우다 각혈로 1년 고생끝에 돈벌고 싶은 욕망

가 있기때문에 영양식을 최대한으로 했다. 주사는 내 처가 해주었다.

그때 내 처는 이미 홀몸이 아니었지만 나를 위해서 밤낮으로 치료해주고 격려해주고 기쁘게 해주었다. 나의 온가족들도 더할수 없이 내게 힘과 용기를 주어 그 사랑속에서 1년만에 완쾌되었다. 발병시에 68kg이던 체중이 완쾌시에는 83kg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해 67년 12월 30일에 아들이 출생했다.

다음해초에 우리 세식구는 살림했다. 내집과 처가에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후원을 해주셨기 때문이다. 내 맘속에는 출세가 뭔지도 모르면서 출세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살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화공약품 도매업

나는 시내 조선호텔근방에서 화공약품을 도매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성실히 해나갔으나 차차 수중에 돈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 나를 위해 고생하시는 부모님의 주름진 얼굴도, 고생한 아내의 노고도 희미해져 갔다.

자본이 필요할 때에만 부모님을 찾아 부산으로 내려갔다. 나때문에 고생속에서 늙어가시는 부모님을 뵙고 밤에 잠잘 때 거칠게 주름진 어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고 나혼자 베개를 적시며 운적도 많다.

『아, 불쌍하신 어머니, 아버지. 성실하게 올바르게 살겠읍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일단 돈을 가지고 서울에 와서 얼마 지나고 보면 향락과 사치와 위선속에 빠진 방탕한 생활의 연속이 되는 것이다.

정말 말 그대로 돈을 물쓰듯 했다. 쾌락에 사치에 허영에 여자에 돈을 아낌없이 썼다. 나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게 말했다. 너무 겁없이 무섭게 돈을 쓴다고.

그렇게 방탕하면서도 늘 맘속에는 부모님과 형제를 생각 때문에 괴로와 했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하면 부모님과 동생들을 위해 진실로 괴로와하고 염려했는지, 부모님과 동생들을 생각하고 괴로와하는 내 자신을 괴로와했는지 모를 일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부모님과 동생들을 철저하게 성실하게 사랑하지 못했다는것이다.

◇父母·兄弟괴롭혀

부모나 동생들을 보고 괴로와한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표면상에 불과했던 것이다. 설사 내 마음이 진정으로 부모님과 동생들을 염려해서 괴로와했고 몸부림쳤다 해도 나는 어제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을 위해서 땀흘리고 성실하게 알차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거머리처럼 부모님과 형제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빨아먹고 살았을 뿐이다.

나는 향락에만 몰두했었다. 그날밤

화공약품장사로 돈 벌자 집생각 희미해져 흥청망청

나는 거머리처럼 부모·형제 피눈물 빨아먹고 살아

집생각은 차라리 형벌… 아이두고 이혼, 妾살림차려

밤에 수10만원의 빚도 아까와하지않았다.

내 동생 천욱이가 대학졸업반 때, ROTC단체가 서울에 왔을 무렵 나는 내 동생을 모 나이트클럽에 데리고 그의 친구 한사람과 함께 간적이 있는데 그때 내가 시켜준 술을 입에 한 모금 먹어보더니 이 술이 무엇이며 얼마짜리냐고 물었다. 나는 거의 매일밤 나이트클럽에서 먹는 술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예사로 말을 했다.

『그건 나폴레옹 꼬냑이라는 양주중에서 상품인데 한병에 30만원 짜리야.』

동생은 또 물었다.

『형님은 이 술을 자주 드시는 편입니까.』

그때 내 옆에 동행했던 여자가 대신 대답했다.

『형님께서는 거의 매일밤 이 술을 즐기시지요.』

내 동생의 얼굴은 갑자기 굳어져갔다. 그는 친구에게 뭐라고 귓속말을 하더니 곧 일어나서,

『형님, 바쁜곳이 있어 가봐야 되겠읍니다.』

그 말을 남기고 총총히 떠나 버렸다.

그 얼마후에 동생을 다시 만났을 때 『형님, 부모님이나 동생들을 생각하면 그런곳에 가고 그런 술을 먹을 수 있읍니까. 난 형님을 경멸합니다.』

내 동생은 그후에 두번 다시는 나를 찾거나 나와 자리를 함께 할 기회가 없었다.

부모님과 처가에서 사업자금으로 가져오는 돈은 그 전부가 내 개인의 향락과 사치와 방탕에 소비되었다. 나는 부모님과 동생들을 의식하기가 두려웠고 고통스러웠다. 의식하는 것은 차라리 형벌이었다.

◇나이트클럽서

그것을 망각하기 위해서 매일밤 친구들을 이끌고 나이트클럽으로 호텔로 다녔다. 술은 나이트클럽에서 배웠고 술을 먹고 싶을 때는 거의 나이트클럽에서 먹었다. 그것도 나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을 데리고 갔다.

친구들은 건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샐러리맨들이었는데 하루저녁에 몇10만원씩 매일밤 술을 먹고 지낼때 그 친구들의 봉급은 5만원정도였다.

◇離婚

그때에 윤민이라는 직장여성을 알게 되었고 첩살림이 시작되었다. 나중에 처가에서 알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이혼을 제의해왔다.

심각히 생각해 보지도 못한채 첩에게 빠져있던 나는 선뜻 이혼에 동의했다. 그때 내 처는 담담한 표정으로 두 볼을 눈물로 적시며 내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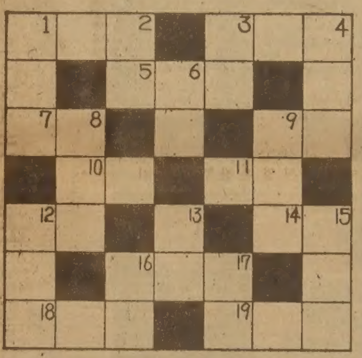
『아이는 부부 두사람의 소유물이 아니고 보호하고 교육시킬 의무가 있을 뿐인데 우리 두사람이 헤어지는 지금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해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아이를 맡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첩에 빠져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당신에게 가는 것보다 내가 맡아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오히려 좋았다. 거추장스럽지 않아 좋았던 것이다. ―70년7월8일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다. 부모 형제도 사랑할 줄 몰랐고, 처도 사랑할 줄 몰랐고 내 자식도 사랑할 줄 몰랐던 것이다. 한마디로 짐승 보다 못한 놈이었다.

그후 첩과의 생활은 이혼 한달만에 깨지고 말았다. 조강지처를 버린 후회막심한 심중, 자식을 외면했던 짐승만도 못한 부성…난 내자신이 싫었다. 첩도 싫었다. 첩은 후회하는 나를 또 싫어했다.

<다음호에 계속>

<제18회 퀴즈>



■가로
1. 여름철 도시를 떠나 바다나 산으로
3. 수해를 입은 사람
5.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출입구
7. 시기하는 것
9. 어부들이 모여 사는 마을
10. 남자 나이 20세를 일컬음
11. 얼어서 죽음
12. 포교의 편의상 설치한 구역
14. 그림이나 사진으로 보도하는 인쇄물
16. 봉황대기 고교야구 작년도 우승팀
18. 이조초 지금의 서울 용산 부근에 둔 얼음창고
19. 안구·동팔을 거중한 박철용

■세로
1. 바늘로 옷을 짓거나 꾸미는 일
2. 5월 15일의 주인공
3. 7명씩 짝 두 팀이 물속에서 갖는 수상경기의 하나
4. 용인에 재현한 전통의 옛마을
6. 강제로 물건을 팜
8. 병원같은 데서 약을 지어 내어 주는 창구
9. 문무과의 급제자에게 임금이 내리던 꽃
12. 日帝의 침략을 합리화시켜 외교적 말썽을 빚은 책
13. 강의 북쪽
15. 석가모니가 그 아래 앉아 得道했다는 나무
16. 엘로 카드
17. 액운이 없어지고 행운이 오도록 신령에게 비는 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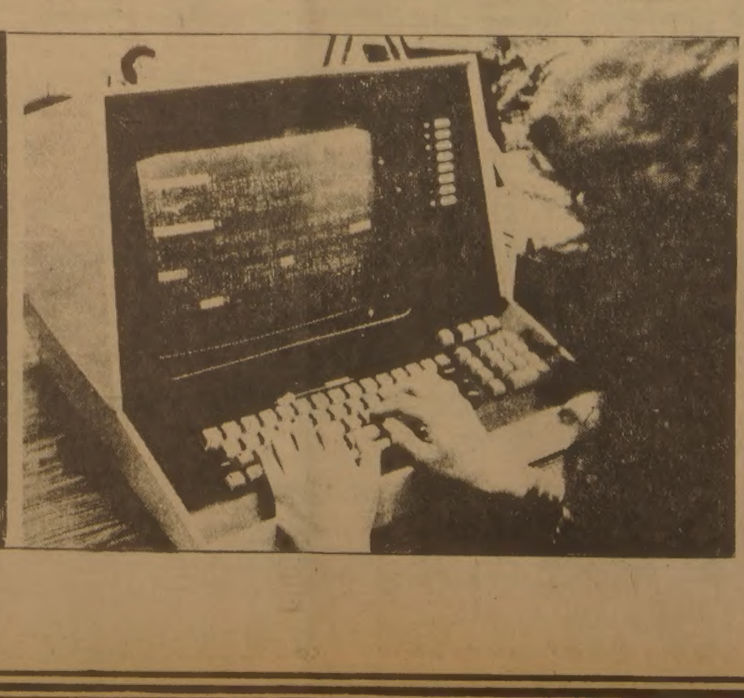
「한국名作속의 숨은그림 찾기」

「심청전」

■숨은 그림

핀 우리나라지도 담배파이프 잉크병 다리미 우표 나팔 담배 1개비 삿갓 아이스크림 군화 바늘

컴퓨터 사진식자 서비스안내



● 각종 간행물
● 도서출판
● 신문제작
● 교회주보 등

종전의 사진식자기보다 10배 이상의 능률을 올릴수 있는 컴퓨터사진식자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를 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해 드릴수 있읍니다.

자세한 문의는 533-236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토 한국일보 지사

僑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 병 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CHANCES ARE SLIM.

주말에 part time으로 우리집 잔디를 깎으러 오는 Billy라는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에게 하루는 What are your chances of getting into an Ivy League college? 라고 물어보았더니 Chances are slim. 이라고 대답하였다。

Ivy League란 Harvard, Yale, Princeton 등의 동부 명문대학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래된 대학 건물이 Ivy (담쟁이 덩굴)로 싸여 있다고 해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필자가 물어 본것은「동부의 일류대학에 진학할 만한 확률이 되느냐?」는 말이었고 여기에 대해 Billy는「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뜻으로 Chaces are slim. 이라고 한 것이었다。

여기에서의 chance란「승산」,「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가능성이 많다」는 Chances are good. 이라고 하며,「승산이 어느 정도있다」는 Chances are fair. 라고한다。

교통 사고로 중상을 입은 환자의 보호자가 의사에게 What are his chances?라고 했다면「그가 살아날 가망이 어느 정도 있는지요?」라는 말이고대답으로 Chances are good. 이라고 했다면「가망이 많이 있다」는 말이 된다。이때「그 환자는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잘라 말한다면 (물론 의사들이 그렇게 말해 주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He doesn't have a chance. 라고 할 것이다。

A : What are your chances of getting into Harvard?
B : Chances are slim.
A : I hear those Ivy League Colleges are tough to get into.
B : I know, I'd have a better chance at the state university.
A : Sure. It's not a bad school, either.
B : I'd rather be a big fish in a small pond.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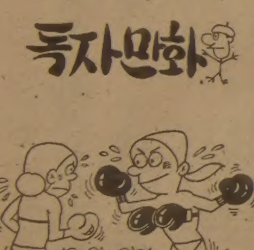
A : Do you think the Bears will go to the Superbowl?
B : No, chances are slim.
A : You're right. They're a weak team, defensively.
B : What are New York's chances?
A : A little better. They have some good rookies this year.
B : We'll wait and see.

A : 하버드 대학에 진학할 가망이 어느 정도 있으세요?
B : 거의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A : 그런 동부 명문대학은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들었읍니다。
B : 알고 있어요。주립대학에는 더 쉽게 들어갈수 있을것 같습니다。
A : 물론이지요。나쁜 학교는 아니니까요。
B : 저는 차라리 조그만 연못의 큰 고기가 되겠어요。
A : 베어즈팀이 우승컵을 딸 수 있을까요?
B :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A : 맞아요。그 팀은 수비가 약하지요。
B : 뉴욕팀은 가망이 있나요?
A : 좀 나아요。그 팀은 올해 좋은 신진 선수들이 몇 있거든요。
B : 여하튼 기다려봅시다。

slim: 희박한 성공 가망。
I'd rather be a big fish in a small pond: 용의 꼬리가 되느니 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겠다는 뜻。
Bears: 시카고 프로 football team의 이름。
Superbowl: 미프로 football season 중 가장 중요한 최종챔피언 결승전。
rookie: 풋나기 선수, 신출내기。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 S. A.
전화: (312) 966—4050
책: 제1권(12불), 제2권(12불), 제3권(12불)

독자만화



◇여자 복싱선수
미 소 (성동구화양동167의1 가동2층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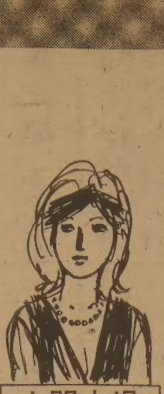
◇연인용 스케이트

서울세상의 자서전

連載 소설

金洪信 作
崔然石 畵

87


人間市場

다혜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건강해 보였다. 항상 창백할이만큼 하얀 얼굴이어서 우리 어머니가 닭갈게 여기지 않을 정도였다.

『납복이 안간다 이 말씀야. 무공스님이 아무리 위독했다지만 얼굴하고 팔뚝 보니까 이건 흑인이 되려다 말았거나 해수욕장에서 실컷 재미보구 왔다고밖에 볼 수 없어.』

나는 차마 무공스님한테 된 회초리를 맞았다는 것과 유기하란 중국계 정통무술의 일인자에게 당한 사연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그런 너는 어째 컴컴해졌니?』

『나야 운전 배우러 다니니까 말수밖에 없잖아.』

『운전? 히야, 그거 생명보험 회사만 손해보게 됐구나.』

『이러지마. 내일 면허시험 치는 날야. 그 동안 얼마나 열심히 배웠는지 알아?』

『교통경찰관 열명쯤 더 채용해야 되겠다. 면허 따면 뭐할래? 세발 자전거 운전하는데도 면허증이 필요하니?』

다혜는 내 팔꿈치께를 꼬집었다.

지난줄거리

치사한 사내, S주간지 사진부 기자 어가놈을 습격해 들어간 총찬은 정아영을 농락하고 파멸한 술수로 한송이란 예송이를 데리고 놀다가 들켰고 끝내 버티지 못하고 죄 토해낸다. 모기밥이란 독한 벌을 주고 황마담에게 갔다. 거기서 유기하와 일전을 벌였다. 총찬은 승리 했다. 그러나 씁쓸한 우정을 느꼈다. 황마담의 마지막 발악을 해결하고 돌아섰다. 법치현의 진한 눈물도 보였다.

『어디 갔었는지 실토해봐. 딴소리 말고. 어서!』

『무공스님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으셨어. 우선하셔서 그만 내려가라고 하시기에 내려온 거야.』

『또 가야 돼?』

『잠깐잠깐 다녀오면 될 거야. 많이 좋아지셨으니까.』

『담에 갈 때 나도 델구가봐. 확인해야겠어. 도대체 몇달 동안 오리무중인 걸 보면 믿을 수가 없어. 편지 한장만 해줬어도 이렇게 서운하진 않았을 거야.』

『편지? 첩첩산중에 무슨 우표가 있니? 차에서 내려 나처럼 빠른 놈도 한나절이 넘게 걸리는 산골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래. 바꿔서 생각해봐. 내가 어디 가서 몇달 연락 없었어봐. 찬인 어쨌을것 같애?』

『그냥 안두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이해를 하지 말자고 다짐하다가 또 말다가…용서하겠어.』

『암튼 이번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명해 줘야겠어.』

『좋다. 담에 갈 때 꼭 같이 가자. 산에 올라가며 울지나 말아.』

『약속.』

우리는 새끼 손가락을 걸었다.

『차 살 돈 있니?』

내가 물었다. 다혜도 실업자였다. 더구나 집에서 차 살 돈을 떼낼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다.

『근사한 돈벌이를 시작했거든.』

『뭔데?』

『취직.』

『아니.』

『아르바이트.』

『그런 셈이지.』

『아르바이트해서 차를 산다? 비밀요정에라도 나가니?』

다혜는 또 꼬집었다. 분노한 표정이었다.

『아르바이트해서 차 산다는게 이해할수 없잖아.』

『나 학원에 다닌거 몰라?』

『그까짓 영어학원 다닌게 무슨 소용있니? 외국어학원 선생이라도 된거니?』

다혜가 2년 가까이 영어학원에 나간것은 알았지만 그걸 이용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리라곤 생각하지 않았다. 외국유학 가고싶어 했으니까 그려려니, 했었다. 다혜도 구체적으로 말한 적은 없었다.

『책 번역 맡았어. 그것도 배우가 괜찮아. 한달에 2천매씩 1년동안 계속해야 돼.』

『2천매? 누굴 놀리니?』

졸업논문 몇십장 쓸 때도 녹아났던 기억이 새로왔다. 한달에 2천 장이라면 손목이 고장날것 같았다.

『의원단체에서 하는 사업인데 학원 선생이 추천해줬어. 번역료로 장당 천원이니까 1년간 차 굴릴수는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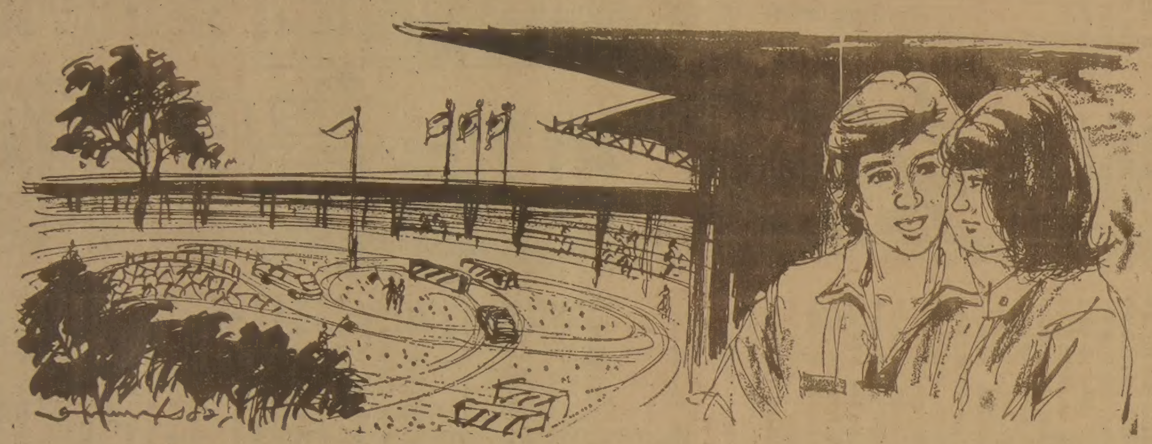
『한달에 2천매라니? 무슨 재주로 번역한단 말이니?』

『타자기로 하니까 그런 걱정은 안해도 돼. 이삼일에 한번씩 들랑거려야 되는데 차 없으면 보통 불편한 게 아냐. 학원. 선생도 차 한대 사는 게 좋겠대. 중고차 사면 되잖아.』

다혜의 말을 들어보니 차 한대쯤은 있어야 될 것 같았다.

『나도 면허 따야. 되는데.』

『그럼 넌 시험치러 갈 때 같이 가면 되잖아. 거기서 신청서 내면 이삼일후에 시험 보게 돼.』



택시운전사는 한푼 더 벌자고 황천예행연습하고

나는 면허 없이 차를 몰고 다니는 불안을 해소하고 싶었다.

『시집을 땐 되도록 새 차로 갖아가지고 와라.』

『미안하지만 빈몸만 가겠어.』

『내가 우연히, 정말 우연히 고시에 패스해도 빈몸으로 오겠니?』

『그땐 아예 안가겠어.』

『나도 고시 패스하지 않겠어.』

우리는 깔깔거리며 웃었다. 내 잠재의식 속에는 사법고시에 붙고 싶은 마음이 자리잡고 있는 건 숨길수 없었다. 으스스하다는 판사나 검사가 되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

『찬주 오빠가 1년밖에 안됐다며 헌값으로 주기로 했어. 그것도 석달이나 다섯달 분할해 주겠대.』

『말리진 않겠다만 조심해라. 서울서 운전할 줄 알면 세계 어딜 갔다놔도 일류로 운전한다는 도시니까. 이건 운전하는 게 아니라 곡예야. 생명의 곡예단이 모여 어떻게 하면 엉터리로 운전하면서도 살아날 수 있는가를 시범으로 보여주는 곳 같다니까. 택시 운전사는 한푼이라도 더 벌자고 황천예행연습하고 버스 운전사는 오줌보가 터질 정도인지 정신없이 밟아대고 자가용은 비교적 좋은 편이라고 하지만 마찬가지 실정야.』

『그거야 누가 몰라?』

『좌우간 시험관이 어떻게 운전할거냐고 물으면 요리조리 새치기를 할거라고 대답해. 그럼 제까닥 면허증 내줄거야.』

『정말야?』

다혜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교통순경이 눈에 뜨이지 않으면 무슨짓이고 교통법규를 많이 어겨서 그계통에 기록을 세우려는 사람들로 우글거리는것같은 서울이었다.

이튿날 아침에 나는 면허시험장으로 나가 시험치는 다혜의 들러리 노릇을 했다. 예상문제집을 꼼꼼하게 읽는 다혜의 표정이 퍽 진지해 보였다.

시험장에 들어간지 30분도 채 안되어 다혜는 밝은 표정으로 나왔다.

『자신 없니?』

내가 이렇게 물었다.

『이건 정주는 시험야. 법규나 구조같은걸 공부해라 이거야.』

『자신 있냐니까?』

『70점 못맞을까.』

시험이 끝나고 채점결과가 컴퓨터로 즉석에서 발표되었다.

다혜는 백점을 맞고 시험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다.

『졌다. 이런 시험까지 백점 맞는 사람이 어디 있니? 욕심 좀 자그마치 부려라.』

나는 다혜의 실력에 대해 두려움같은 걸 느꼈다. 다른 여자라면 몰라도 다혜만은 평범한 여자이기를 바랐다. 나는 여자문제에 관한한 편하고 싶었다.

다혜처럼 너무 깔끔하면 피곤할것만 같았다.

『차라리 그 실력이면 고시 공부해라. 여자 판사가 되든 여자 검사가 되든 한번 폼 잡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빈정거리지 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다혜도 내 속마음을 읽었는지 모른다. 시험이라면 언제나 터질이밖에 못하는 내 처지에 비하면 다혜의 시험 치르는 실력은 너무 월등했다.

코스 시험장에 들어선 다혜는 긴장된 표정이었다.

『맘 푹 놔라. 내가 있잖아.』

『그래도 떨려.』

『맘 놓고 하고싶은대로 해버려. 떨어지면 내가 면허증 만들어다 줄께.』

『그럴수 있어?』

『내가 해준다면 해줘. 그러니 맘놓고 하고싶은대로 해버려.』

『돈 든대며?』

『걱정 말고해. 내가 면허증 내줄테니까.』

나는 쓸데 없이 큰소리를 쳤다. 다혜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였다. 한간엔 돈으로 면허를 딸수 있다는 말도 많았다. 그러나 그런 방법이나 길을 알수는 없었다. 불안해 하고 있는 다혜를 안심시킬 생각만 했다.

만약 다혜가 떨어지면 그때까서 무슨 수를 찾아볼 막연한 생각이었다.

다혜가 시험관의 지시대로 차에 올라탔다. 나는 차가 움직이자 시험장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시험관들은 나를 내쫓으려고 호루루기를 불며 쫓아다녔다. 다혜는 내 행동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코스시험을 볼수 있었다.

내가 시험관들과 의도적인 숨바꼭질을 하는 사이에 다혜는 무사히 합격하고 도장을 받았다.

나는 코스 시험장을 빠져나와 코피판매대 앞에 서있는 다혜를 만났다.

『축하한다. 나도 고생했지만.』

『제 개구장이 청년였어. 그만하면 마누라 굶기진 않겠던데.』

『사람들이 낄낄대고 웃는데 뒤통수가 뜨끗하더라.』

『주행시험 볼 때도 근사한 쇼 한편 연출해 주시지 그래.』

『그럴 작정이다.』

우리는 점심을 먹고 주행시험장으로 나갔다. 안내 방송하는 시험관의 지시대로라면 수험번호 순서대로 주행시험을 치르는게 아니라 용지제출순서대로라고 했다. 나는 재빨리 용지를 들고 시험관에게 뛰어가 순서를 빠르게 조정했다. 선착순으로 주행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아수라장이었다.

다혜가 주행시험장으로 들어섰다. 시험관이 탄 차를 직접 운전하는 가장 어려운 관문이었다.

다혜가 앞좌석에 타고 시동을 걸었다. 나는 일부러 숨을 몰아 쉬며 뛰어 나갔다.

『누나! 큰일났어. 엄마가 쓰러지셨어. 빨리 가.』

나는 몹시 거치고 당황한 사람처럼 떠들었다.

『뭐라구? 엄마가!』

『고혈압이었대. 빨리!』

『잠깐만 기다려라. 금방 돌고 올게.』

다혜는 몹시 당황한 표정이었고 시험관이 뭐라고 했지만 자동차는 속력 좋게 달려 나갔다. 다혜 얘기는 뻔했다.

오늘 면허 못따면 다시는 못오게 된다는 것과 외국유학 가는데 제수적으로 면허를 따가지고 가야만 편하다는 것과 홀어머니가 보따리 장사해서 자식 공부시키다가 결국 쓰러지셨다는 식의 너스레를 떨어댈 것이었다.

조금전의 실수나 서툰 것이 있었다라도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얘기를 듣고 당황해서 그런 것이지 결코 운전실력이 모자라서는 아니라고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어만큼이라도 해낸것은 너무나 연습을 많이 한 실력이라고 인정할 것이다.

주행시험을 치르고 올라온 다혜는 소리를 질렀다.

『합격했어. 합격야!』

우리는 계속 낄낄대며 웃었다. 합격증을 받아든 다혜가 말짱을 꼭 끼고 어떻게 말했다.

그실력으로 고시공부나… 여자판사되든 검사가되든…

『기분어 너무너무 좋다. 열두번 시험보고도 떨어진 아주머니가 막 우는걸 보니까 첫번 시험에서 합격한다는게 보통일이 아니라는걸 알겠어.』

그건 사실이었다. 첫번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대개 너댓번씩 시험을 치른뒤에야 겨우 면허증을 받는게 통례였다.

『내 공로를 인정하겠니?』

『하구말구.』

『그럼 뽀뽀 한번 해주라.』

『좋아. 그런데 어디서 해주지?』

『여기서 안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입맞춤을 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키스 한번 하려고 사람없는 곳을 일부러 찾아나선수도 없었다.

『참, 이놈의 도시가 젊은애들 골때게 만들어졌다니까.』

『그럼 취소하겠어.』

다혜가 노린 점이 바로 그런것같았다.

『보류해두자. 키스할 격 한번 있다.』

『그때 가서 참작은 하겠어.』

면허증은 삼일 뒤에 나오게 되어 있지만 서울시내의 운전하는 양반들에 하도 법을 잘 지키고 사람처럼 운전을 해서 시내연수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시내에서 운전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면허증도 없으면서 다혜의 시내연수를 책임지기로 약속해버렸다.

다혜가 면허증을 받는 날 나는 다혜가 구입한 승용차를 끌고 다니며 하루 종일 시내연수를 시켰다. 다혜는 이틀만에 조심스럽게 운전대를 잡았다.

『도저히 못하겠어. 초보운전이라고 써붙였는데도 너무들 해. 봐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장난질 치는 사람이 더 많아. 사람들이 왜 그모양일까? 너무 정서가 없어. 여긴 교통질서가 있는 도시가 아니라 살연옵모르 곽찬 도시야.』

다혜가 엄살어 어딘 체험을 얘기하고 있었다. 누구나 초보운전자를 경험한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했다.

『누가 아니래. 교통질서 하나 제대로 정리할 줄 모르는 도시교통행정 때문에 무덤 숫자와 병신숫자만 늘어나는 거야. 교통행정가들어란 게 저희들만 안죽으면 그만연 모양야.』

딱지를 떼기 위한 함정단속이나 하는게 어떻게 교통행정일까? 돌똑난쭉한 집중단속이니 벼락치기 단속으로 교통질서를 잡으려는 발상부터가 어거지였다. 대로상에서 버젓하게 정차차가 법을 위반하면서 무슨 단속할 배짱이 있는지 모를 일이었다.

『할 수 없다. 자동차에 비상사이렌을 달든가, 확성기를 달아놓고 소리 빽빽 질러가며 다니든가. 그럼지 않으면 초보운전이란 딱지를 떼고 좀 봐줘 씨! 라고 써붙이는 방법밖에 없어.』

『그러지 말고 아예 탱크를 타고 다니는게 낫겠어. 너무들 해.』

다혜는 몸서리를 쳤다.

우리는 즉석에서 붉은 매직잉크로 이렇게 써서 뒤 유리창에 붙였다.

좀 봐줘유. 씨!

하나님. 혹시 하나님은 손수 운전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이놈의 서울바닥에서 운전하려면 장갑차로 개조해야 할 겁니다. 뒤 유리창에 초보운전이라고 써붙여 가지고 다녔다간 하나님도 별수 없이 그걸 떼어 내고 좀 봐 줘라 씨! 라고 쓰실겁니다.

그렇다고 뒤 유리창에다가 경고한다, 접근하면 발포한다고 쓸 수야 없잖습니까. 배짱 가지고 운전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 참담한 현실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산 자동차들은 손가락으로 눌러도 움폭움폭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운전사들은 난폭운전과 곡예운전의 세계적 권위자들입니다. 교통사고율이 세계 제일이라는 전 참으로 영광된 것이겠지요.

단속하는 경찰관이나 순시원들이 공공연하게 돈으로 매수되는 풍토가 지속됐었지 때문에 운전사들의 의식속에는 벌금용 잔돈을 아예 준비해가지고 다녔읍니다. 순리대로 운전하는 것 보다는 마구잡이로 몰고 다니다가 들키면 몇푼으로 땜질을 하는게 수입면에서 훨씬 유익하다는 택시운전사들의 말을 하나님은 많이 들었겠죠.

하나님. 도시의 공기오염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유난히 표나는 것은 자동차가 내뿜는 배기오염치일 것입니다. 주둥아리로 시민과 국민의 건강을 외치는 가짜들을 끌어다가 자동차 배기판에 코를 박아놓고 단 1분만 끌고다녀 보세요.

그러면 대번에 그 가짜 애국자들은 조금이나마 양심이 숨쉬고 있다면 사표를 쓸 것이고 그래도 애국자인척하려는 치들은 개발도상국이 어쩌니 우리나라 현실이 어쩌니 할 겁니다.

하진 목청 크게 애국이 어떻고 민중이 어쩌며 양심이 곧은 체하던 치들은 모두 가짜더군요.

하나님. 목청 크고 존경할 만한 사람 가운데 양심을 지킨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목청 큰 게 나라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목. 따는 소리 지르는 돼지가 훨씬 애국하는 부류에 속할 겁니다.

다혜가 초보운전을 떼어내고 붉은 글씨로 좀 봐줘유. 씨! 라고 쓴 걸 붙이고 운전했다. 나는 다혜의 옆자리에 앉아서 길과 초보운전자가 조심해야 할 얘기들을 계속 늘어놓았다.

좀 봐줘유. 씨!

이 커다란 붉은 글씨는 대번에 효과를 보았다. 운전사들이 낄낄대며 웃었고 길거리에서 그 글씨를 본 사람들도 손가락질을 하며 웃었다.

차량들은 확실히 피해주었고 가능하면 뒤에나 옆으로 붙으려고 하지 않았다. 참으로 별난 일이었다.

『이렇게 써붙였는데도 안봐주면 그거야 말로 철면피의 표본이겠지.』

내가 이렇게 말했다.

『목판 매달고 다니면 서울의 교통어 이렇게 엉망진창은 안될거야.』

우리는 아수라장인 차량의 행렬 뒤를 조심스럽게 빠져나가고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頂上의 신문 한국일보

한국일보 사건記者 수첩

여자만이 있는 점포에 침입、금품을 빼앗은 뒤 경찰 신고를 지체시키려고 여자 옷을 벗겨 놓고 도주하는 「누드 털어」、점포 종업원이 스스로 제 몸을 묶어 놓고 강도 당한것 처럼 위장하는 「제집털이」가 쇠고랑을 찼다。 이번주 「기자수첩」에는 뇌염철을 앞두고 모기떼의 기승으로 가축까지 깜짝깜짝 놀라 비육우의 몸무게가 빠지고 있다는 「모기의 한국판 마라푼다」가 全南지역에서 메모돼 주목된다。 公州郡에서는 늑대가 사람을 공격해 사살령이 내려지는등 폭염속에 공포가 써늘하다。

신문에 안난 現場

경찰신고 빨리 못하게 女子옷 벗기는 "누드 털이" 強盜

氷菓類에 당첨률 낮은 景品券끼운 사행행위 날뛰어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를 어 성수기상품인 빙과류를 판매하면서 당첨률이 낮은 경품권을 끼워 파는등 어린이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거래질서를 어지럽혀 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강남경찰서는 3일 아이스크림제조업체인 서울강남구반포동 S유업대표 李潤茂씨(36)를 복표발행및 현상、기타 사행행위등 단속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李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이 회사제품인 찬스바의 손잡이 나무막대기 양끝에 각각 가위 바위 보의 그림표시를 인쇄、손잡이 쪽은 소비자의 것으로、얼음과자 쪽은 판매자의 것으로해 승부를 걸도록 만들었다는것。

회사측은 지난달 26일부터 찬스바 60개들이 8만5천상자를 만들어 그중 6·2%는 소비자가 이기게하고 0·7%는 비기도록、나머지 93·1%는 소비자가 지도록 만들었다는것。

이밖에 영등포경찰서도 이날 H제과(영등포구양평동5가80 6)L제과(영등포구양평동4가16의1)또다른 L사(영등포구 문래동6가21)등 3개업체를 복표발행및 현상、기타 사행행위 단속법위반혐의로 입건했는데、이들 업체들도 빙과류를 제조하면서 내무장관의 허가를 받지않은채 어린이들 대상으로 경품시상을 실시、자기회사상품에 덤붙연 경품응모권을 붙여 시상을 했거나 실시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직원 봉급 갖고 도망

▲3일 하오3시께 서울중구을지로2가199 세운투자금융 앞길에서 서울2라9691호 레코드로열승용차 운전사 박병무씨(30·주거부정)가 차주 이광수씨(43·사업·서울강남구압구정동 한양아파트25동101호)가 맡겨놓은 현금1천40만원과 중소기업은행발행 5백만원짜리 자기앞수표1장을 차와 함께 훔쳐 달아났다고 李씨가 경찰에신고했다。

李씨는 이날 서울투자금융에 도착、회사직원에게 줄 봉급을 차에 대기중인 朴씨에게 맡겨놓고 안에 들어갔다 나와보니 朴씨와 차가 없어졌다는것。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운전사와 승용차를 수배했다。

■땅文書보이고 외상술

▲외상술을 즐기던 20대청년이 마침내 쇠고랑을 찼다。 전남고흥경찰서는 1일 韓牛錫씨(27·高興郡道陽邑官里)를 상습사기혐의로 구속했는데 경찰에 따르면 韓씨는 지난해 12월14일 道陽邑鳳岩里 鄭모씨(여·32)의 술집에 들어가 『땅을 팔기로 했으니 술값걱정은 말라』며 토지매매계약서를 보이고 3만1천여원어치의 외상술을 마신것을 비롯、3개월동안 8차례에 걸쳐 모두 60만3천원 어치의 외상술을 마시고는 지금까지 한푼도 갚지 않았다는것。

韓씨는 경찰에서 『토지매매계약서를 보여주니까 대접이 융숭해서 자주 마신것이 화근이 됐다』고 진술。

<그림·權成國>

■태백산서百年生산삼캐

▲20대청년들이 태백산중턱에서 1백년생으로 보인다는 산삼 7뿌리를 캐 횡재를 했다。 太白市所道洞6통3반 洪基榮씨(22)는 친구 李英喆씨(22)와 함께 지난28일 하오4시께 태백산중턱 해발 1천2백m 지점에서 1백년생으로 보이는 산삼 1뿌리와 50년생으로 추측되는 6뿌리등 모두 7뿌리를 캤다。 洪씨는 3일전 아버지 홍희락씨(47)가 산삼을 캐려다 산신령에게 붙잡히는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를 들은뒤 자신도 산돼지꿈을 꾸고 이달 친구와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산삼을 캤다는것。

종업원이 제몸묶고 "強盜당했다" 위장

▲서울종로경찰서는 30일 金모군(18·서울시은평구갈현동)을 특수강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군은 지난 11일 하오3시께 서울종로구 신문로2가 K미용실에 들어가 주인 韓모여인(35)을 식칼로 위협、37만5천원상당의 금품을 빼앗은뒤 韓여인과 미용실에 와있던 손님 4명을 뒷방에 몰아넣고 모두 옷을 벗게한뒤 달아나 경찰에 신고를 빨리 못하도록 했다는것。

金군은 지난 6일에도 서울서대문구충정로2가 D메리야스가게에 손님을 가장하고 침입、주인 朴모부인(53)을 위협、16만원상당의 금품을 빼앗은뒤 朴부인의 옷을 벗기고 달아났었다는것。

▲버스안을 청소하다 주운 수표 2백30만원을 주인을 찾아 되돌려준 고마운 안내양이 있어 흐뭇한 화제。

지난 28일밤 8시께 마산시회원동 시내버스종점에서 버스안을 청소하던 동양교통소속 경남5자4222 9호 안내양 朴玉春양(22)은 이상하게 접힌 종이뭉치를 발견、액면가 1백만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과 10만원짜리 3장등 모두 2백30만원이나 되는것을 알고 회사에 신고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수표를 잃었던 朴모여인(55·마산시회성동)이 29일하오 회사로 찾아와 『점포를 얻으려고 10년동안 모았던 돈을 잃고 밤새도록 눈물로 지새웠는데 안내양덕으로 찾게됐다』며 또 한번 눈시울을 적셨다。

한편 수표를 되돌려준 朴양은 朴여인으로부터 사례비 10만원을 받고 『더운날씨에 고생을 같이하는 동료들과 수박이라도 사먹겠다』고 했다나。

■"아내찾아달라"소란

▲제주도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9일 자기집에 불을 지른뒤 마을사무소에 칼을 가지고 들어가 가출한 아내를 찾아달라며 소동을 벌인 金성린씨(34·남제주군표선면토산리548)를 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金씨는 6개월전부터 서귀포시 ○주점 접대부 金모양(27)과 가깝게 지내고있는것을 알아차린 아내 金모여인(25)이 최근 다투고 집을 나가자 이를 비관해오다 27일하오3시반께 방안에 석유 1되를 뿌리고 불을 질러 18평짜리 슬라브집을 모두 태웠다。 金씨는 동네를 돌아다니다 밤 9시반께 칼을 들고 토산2리사무소로 들어가 『아내를 찾아내라』며 소란을 벌였던것。

金씨는 30분간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과 격투끝에 붙들렸는데 『아내가 집을 나가자 내 정신이 아니었다』고 변명。

한국일보 사건記者 수첩

석달동안 60여만원어치 외상술 먹은 20代 쇠고랑

버스안 청소하던 안내양 2백30만원수표주워 主人에

▲慶北慶州경찰서는 지난 29일 경주시동부동 경주한약방종업원 朴모군(19)과 부근 감초당한약방 종업원 吳모군(19)등 2명을 특수절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8일밤 0시반께 경주한약방에서 캐비니트를 뒤져 현금 10만원과 채권등 70여만원어치를 훔친뒤 吳군은 朴군의 팔·다리를 노끈으로 묶어 마치 강도를 당한것처럼 꾸며놓고 달아났던것。

이날 상오7시30분께 출근한 한약방주인이 팔·다리가 묶인채 코를 골며 잠자고 있는 朴군을 발견、영문을 물자 朴군은 『27세가량의 3인조 복면강도가 침입、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났다』고 태연스레 꾸며댔으나 신고받은 경찰이 이상하게 여기고 추궁한 끝에 허위강도사건임이 드러난것。

■"난 신통력있는도사"

▲잃어버린 선조의 묘소를 찾아준다면서 농민들로부터 1천여만원을 사취한 40대여인이 쇠고랑을 찼다。

慶南居昌경찰서는 지난29일 박곡지여인(41·전북남원군이백면초촌리)을 사기혐의로 구속했는데 경찰에 따르면 朴여인은 지난 1월5일 방앗간주인 吳점오씨(50·거창군가조면마상리)를 찾아가 『나는 신통력이 있는 도사인데 잃어버린 선조의 묘를 찾아주겠다』고 속여 50만원을 받은것을 비롯、지금까지 3명의 농민들에게서 15차례에 걸쳐 모두 1천여만원을 사취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朴여인은 특히 한번 찾아간 농민을 다시 찾아가 『조상의 묘를 찾았는데 묘안에 귀중한 골동품이 묻혀있으니 함께 파내자』는등 감언이설을 늘어놓아 금품을 사취하는 수법을 써왔다고。 경찰에 잡혀와서도 계속 자신의 신통력을 주장해 담당경찰관을 실소케 했다。

■가축못살게하는 모기

▲전남장흥、강진、해남지방 농민들은 최근 극성을 부리고있는 모기떼에 시달리다못해 아예 가축우리에까지 모기장을 설치했다고。

양축농가들에 따르면 몇년전 까지만해도 독한 농약의 영향으로 모기가 별로 보이지 않았으나 모기에게도 면역이 생겼는지 요즘은 유난히 극성이라는것。

이때문에 사람은 말할것 없고 가축들조차 모기에 물려 깜짝깜짝 놀라는 바람에 밤새 소란이 그치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흥군장동면반산1구 裴成煥씨(42)는 『비육우의 경우 먹이를 잘 주면 하루 1㎏씩 몸무게가 늘어나지만 최근 모기떼에 시달려 몸무게가 4백~5백g씩 줄어들고있어 재산목록1호인 소를 보호해주기위해 모기장을 쳤다』고 밝혔다。

▲충남공주군이인면복동리 마을뒷산에서 최근 늑대가 자주 출현、주민들을 불안속에 몰아넣고 있다고。

늑대가 처음 발견된것은 지난5일하오7시께로、이마을 柳良鎬씨(55·농업)가 마을에서 2백m 떨어진 뒷산에서 밭일을 하던중 늑대 3마리가 나타나 柳씨 주위를 맴돌면서 덤벼 마을로 도망쳐왔다는것。

또 지난18일하오6시께도 같은마을 뒷산 담배밭에서 이마을 李慶福씨(42)가 밭을 매다가 2마리의 늑대를 발견、돌멩이를 던졌으나 오히려 덤벼들어 도망쳤는데 신고를 받은 公州경찰서는 주민들의 신고내용으로 보아 늑대일것으로 보고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을경우 즉시 사살하도록 관내지서에 지시했다고。

▲최근 경남지역 일부 관공서에서는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구실로 공무원들을 동원、특정업체의 식품을 판매하는 일이 있어 말썽。

40代 여인이 先祖묘소 찾아준다며 농민들로부터 千여만원 詐取

건강관리 세미나 구실삼아 특정식품 판매 말썽

이같은 말썽은 최근 각 관청에 서울중구인현동1가31의2 국민보전협의회라는 단체의 이름으로 건강관리세미나개최의 협조공문이 날아들어 비롯됐다는데 강사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세미나를 가진후 충남아산군온양읍 D식품의 농축율무가루를 사도록 권유하고있다는것。

三千浦시청의 경우 지난 29일상오10시께 李모(35)라는 여자강사가 총무과의 협조를 얻어 근무중인 1백여 시청공무원을 동원、산업공해로 인한 각종 질병은 석이요법과 자연식으로 치료예방해야 한다며 1시간30분동안 세미나를 가진후 5g단위포장 율무가루 1세트(3백개)를 3개월간 복용하면 정력이 좋아진다고 선전、10여명에게 2만원씩을 받고 팔았다고。

▲서울 강남구잠원동일대 아파트촌의 어린이유괴협박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강남경찰서는 2일밤 이사건의 범인으로 李모군(16·H고교야간부1년)을 붙잡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李군은 지난달 30일 낮12시50분께 서울 강남구잠원동 한신공영 10차아파트319동 앞에서 놀고있던 張모양(8)으로부터 집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張양의 어머니 朴明玉씨(35)에게 유괴협박전화를해 朴씨가 319동 공중전화박스에 갖다놓은 10만원을 챙겨 달아났다고한다。

같은 수법으로 李군은 지난1일까지 인근 아파트촌을 대상으로 4차례나 유괴협박전화를 건 혐의다。

▲지난달29일하오7시15분께 서울도봉구상계2동3441의1 지하철4호선 401공구 (시공회사 라이프주택) 기초공사장 웅덩이에 柳重九씨(29·서울서대문구연희동413의96)가 빠져 숨져있는것을 현장경비원 安鎬燮씨(37)가 발견、경찰에 신고했다。

경비원 安씨에 따르면 이날하오 공사장을 둘러보고 있던중、전날 내린 비로 물이 2m가량 괴어있는 웅덩이속에 柳씨가 엎드린자세로 물에 잠긴채 숨져있었다는것이다。

사고지점은 시공회사인 라이프주택이 10여일전부터 직경20m 깊이 2m의 땅을 파고 주위에 철제파일을 박아 지하철 기초공사를 하고있는 곳으로 철제방책과 안전등을 설치、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해왔다。

경찰은 숨진 柳씨의 몸에 외상이 전혀 없는점등으로 미뤄 柳씨가 밤길을 가다 실족사한것으로 보고있다。

▲서울종암경찰서는 지난 3일 주인집 금고에서 현금과 수표등 3백90여만원을 훔친뒤 강도를 당한것처럼 위장한 오토바이 수리상 종업원 朴永吉씨(20·성북구종암1동29의7)를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朴씨는 지난1일 상오9시께 직장인 서울성북구종암1동 동일오토바이수리센터 금고에서 현금 2백7만원과 1백9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훔친다음 스스로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노끈으로 손발을 묶은채 소파에 누워있다가 수리센터를 찾아온 고객에게 발견돼 경찰에 신고됐던것。

朴씨는 경찰수사과정에서 노끈이 허술하게 묶여있어 곧바로 들통이 나자 『그냥 도망해 버릴것을 괜히 술수를 부렸다』며 후회。

■변호사 사칭

▲서울관악경찰서는 3일 朴成淑씨(56·전과4범·관악구신림본동90의98)를 사기및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朴씨는 사우디에 일하러 갔다가 사망한 남편의 사망보상 청구관계로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3백90만원의 보상금 지급판결을 받은 金敬玉씨(31·여·관악구 신림4동488)에게 자신이 변호사라며 접근、항소를 하면 보상금을 3천만원까지 받을수 있다고 속인뒤 항소비용조로 1백2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등 모두 3백68만원을 사취했다는것。

金씨는 남편 한경산씨(34)가 지난해 8월 금호건설 소속 사우디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사망하자 같은해 11월 회사를 상대로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3백90만원의 보상지급 판결을 받자 보상액이 적다고 생각、서울고법에 항소했었다。

<정리·姜升達기자>

한국일보의 광고효과를 말해주는 한국 안내 광고란

살림의 지혜

표백제 냄새 제거

부엌위생이나 세탁물 표백에 표백제를 쓰는 일이 많아졌다。 그러나 사용한 뒤 헹궈도 남는 것이 좀 곤란한 점이다。

이 냄새를 제거하는데는 식초가 제일이다。 손에 묻은 냄새라면 식초를 손에 바르면 되고 행주나 식기의 냄새는 식초를 탄 물에 담그면 어느새 냄새가 빠지게 된다。

오징어 잘 다루는법

물오징어는 미끈하여 껍질을 벗기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이럴때는 손 끝에 소금을 조금씩 묻혀가며 벗기면 수월하게 벗겨진다。

또 마른 오징어로 회를 만들때는 우선 물에 잘 불려야하며 그 다음에 짚이나 나무를 태워서 나온 재를 물에 풀고 여기에 오징어를 담근다。

이렇게하면 곧 원상으로 불어나고 껍질이 잘 벗겨져 물오징어같이 된다。 이것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 갖은 양념을 한 고추장에 무치면 산뜻한 회가 된다。

맛있는 달걀 프라이

프라이팬의 기름이 뜨거워지면 달걀을 깨서 넣고 불을 차차 줄인다。 여기서 물을 3찻숟갈쯤 붓고 프라이팬 뚜껑을 닫아 두었다가 다되면 꺼낸다。

이렇게하면 노른자위도 깨지지않고 기름기는 적은 맛있는 달걀프라이가 된다。

옷 곰팡이 제거

장마철엔 의류에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점점이 얼룩져 있는 경우가 있다。 흔히 햇볕에 쬐어 곰팡이균을 죽인 뒤 솔질을 하는데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실크와 같은 옷감은 1ℓ의 물에 한줌 정도의 매화나무 잎을 넣어 삶아서 식힌 다음 그 속에서 한차례 빤뒤 깨끗한 물에 여러번 헹군다。 또 암모니아를 30배 희석한 물속에 빨아도 감쪽같이 없어진다。

면직물은 주방용 표백제를 2백배 정도 희석하여 그 속에 하룻밤 담가둔 다음 빨면 깨끗이 없앨수 있다。

유리그릇 닦는법

유리식기는 아무리 정성들여 씻어도 마른뒤에 보면 약간 흐리고 광택이 없다。

유리 그릇을 씻을 때는 물에 식초를 3、4방울 떨어뜨려 씻으면 윤이 나서 반짝거린다。 또 유리그릇을 면으로 닦으면 자잘한 실부스러기가 붙으므로 반드시 삼베로 닦도록。

액자의 더러움 제거

금·은색이 칠해진 액자를 잘못해 물로 닦으면 오히려 더러움이 묻어서 검게 된다。 이럴 땐 양파 즙은 물을 부드러운 헝겊에 적셔서 살살 닦아낸다。

그런 다음 달걀 흰자위를 거품이 일지 않도록 풀어서 솔로 얇게 칠해서 말리면 몰라보게 반짝거린다。 목각액자는 먼지를 털어낸뒤 물걸레로 닦으면 윤이 나서 원래대로 돌아간다。

잡초 제거

번식력이 강한 잡초는 간해선 없어지지 않는다。

우선 야채나 국수 삶은 뜨거운 물을 잡초가 나있는 곳에 끼얹는다。 원래 새풀은 열에 대단히 약하므로 뜨거운 물을 매일 계속해서 끼얹으면 아무리 완강한 잡초도 도저히 살수 없게 된다。

또 정원에 깐 납작한 돌에나 바위틈에 난 잡초는 소금을 흠뻑 뿌려주면 뿌리까지 말라 죽는다。 아니면 제초제를 물에 녹여서 분무용 세제의 물이 가는 용기에 넣고 돌이나 바위 사이에 뿌린다。

<삽화·權成國>

따뜻한 마음

『얘、우리 그이가 그토록 따스한 마음의 소유자라는건 미처 몰랐지 뭐야』

라고 린다가 말했다。

『글쎄、그이가 출장중에 내침대가 써늘해서 안좋을거라면서 전기담요를 사주고 가셨다니까!』

그러자 친구인 앤이 맞장구를 쳤다。

『얘、그깟것가지구 그러니? 우리 그이는말야、몇배나 더신경을 써순다구』

『그래애? 어떻게?』

『글쎄 그이가말야。 출장전날에 내가 심심해 할거라면서 회사의 젊은 사원을 소개해주고 가셨거든。 역시 전기담요보담 젊은피부가 몇배나 더 따뜻하기 하니』

『……』

애기의 샘

KIM'S ART GALLERY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 유화·서양화
◉사진액자 전문으로 취급
◉동양화·초상화
1286 Weston Rd.
(에그링톤×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환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트로피·감사패 전문
Golden Craft
◉특수인쇄(Silk Screen Printing)
◉ Engraving
◉간판 취급
(나무·유리·의류·프라스틱등 특수인쇄 전문)
1700 Wilson Ave.
(B)247-8870 (R)242-4319 김 국일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R)743-4842 Mr. 마

시설및수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K.D.K.Construction Co.
Met. Lic.B4298, Inside & Out
Renovations, Home Repairs,
Carpentry, Dry-Wall
Plastering, Ceiling
Concrete Work, Plumbing
Painting, Wall Papering
Tiles Etc.
921-8163
Mr. Reg. Kimura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광고문의 ☎ : 533-2361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발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서 울 식 품 (동부)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내장식

"Fine Design"
설계및 허가, 시공
전화 : 622-5328 (공장) 676-1173 조 덕 남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의류수선 (남녀분 양복·양장 다 취급함)
의자 카바, Zipper 수리등 성의껏 해드립니다.
전화 문의도 환영합니다.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복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광 고 접 수
533~2361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전학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533-2361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정영수 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226-3874 시 춘봉

자연요법 및 지압치료, 왕진도 함(심 하섭)
요통(허리아프신 분), 두통·복통·류마치스·불면증
643A Bloor St.W.(신용조합옆)(B)536-6854 (R)635-8744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경명등 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R)531-4165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요법·지압·단식요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회계사무소
33 Cherryhills Rd. Concord, Ont.
전화 : 669-271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531-4165(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Juice Bar에서 일하실 용모단정한 여자분 구함.
월~금(주말은 쉼) 11:00 a.m~4:00 p.m
전화 : 438-0403 (6시 이후, Mrs. 유)

일본식당 웨이트리스 키친헬퍼구함. 특히 한국인 무경험자 환영. 9월말 개업. Finch Subway 5분거리.
전화 : 826-7676(R) Mr. 모리

가정 재봉사 구함.
영어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함.
전화 : 633-2748 Mrs. Gold (토요일에는 전화사절)

도미니언 도나스가게에서 일하실 여자분구함
(칼레지×영 써브웨이스테이션 건물안)
직접 내방바람.

성실하고 용모단정한 경험있는 Helper 구함.
(GreenWood & Queen)
전화 : 466-3995

경험있는 남자 풀타임 헬퍼 구함.
전화 : 532-6143 (낮)
532-9638 (밤)

도넛츠 가게에서 풀타임 밤일하실 여자분 구함.
11 p.m~8 a.m. (Rexdale×Kipling)
전화 : 743-3822, 222-3877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베비시터

입주하셔서 애기봐 주실분
3871 Lawrence Ave. E.
전화 : 431-7168, 439-6428

입주하셔서 아기 보아주실분 (4살, 1살)
전화 : 447-1460

바쁘신 분들을 위하여 저희 집에서 아이들을 보아드리겠읍니다. 원하시면 24시간(월 9:00~토 7:00까지)도 가능하며 저희가 데리고오며 데려다 드립니다. 전화 : 651-5388 Mrs.채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읍니까?

구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전화 : 652-1280 (Mrs. Adroe)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636 Vaughan Rd. #1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우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여권

여권번호 : MB-137650
성 명 : 이 순자
연락처 : 742-1281 (Mrs. Lee)

매매

(1)건물(Bloor & Christie) $159,000
(2)Coin Laundry & Building $159,000
(3)Variety Store: 주매상 $8,000(스카브로)
(4)Variety Store: 주매상 $4,000+Video(Hamilton)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Canada Permanent Trust Co.

아스킹 : $150,000. 14%. 5Years.
커다란 파킹장을 구비한 모퉁이의 2층 벽조건물
4 Apt. 2 Stores.
년수입(건물에서) : $24,500. 주매상 : $4,000(Stores)
Doris Burda 763-5555
Cholkan Real Estate. Realtor.

Fiat 128 급매. $1,000
Certified. Gas 절약형.
전화 : 762-3247, 533-2364 (Mr. 유)

여자 혼자서 운영할 수 있는 가게
아스킹 $15,000+스탁 2층에 2베드룸 있음.
전화 : 536-6250

1) Fast Take Out 식당 팝니다.
주매상 : $2,000(일요일 쉼) 5년 리스.
렌트 : $350/M.
2) 5 Ft. 대형 Steam Table 팝니다.
23 Helen St. Miss. Ont. 274-7010 (Mr. 유)

Convenience Store for Sale. (Jane & Bloor)
주매상 : $5,000이상. 리스 : 5년+5년
아스킹 : $45,000+Stock (361 Windermere Ave.)

여자분 혼자서 운영가능한 Mall안에 있는 Variety Store 가정형편상 아주 싼 값에 드립니다. (내방 바람)
1250 South Service Rd. Miss. Ont. (Health Food & Cake)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4,800.
리스 : 3년+5년(Neagotiation) 아스킹 : $39,000+스탁
1000 Pape Ave. (관심있으신 분 내방바람)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 $3,000. 렌트 : $300(M)
전화 : 259-0323

그로서리 스토아 급매. 주매상 : $7,000.
리스 :6년. 렌트 :$1,260. 1,600 sq.Fit
계속 번창하는 지역임. 전화 : 686-0155

4 Door. Walk-in-Cooler and Water
Cooling System Air Conditioner팝니다.
전화 : 233-2195(B), 233-0732(R)

개인 레스토랑 매매.(레스토랑 + Tavern)
좋은 위치. 좋은 비지네스. CN타워 근처.
300,000 Turn Over a Year. 주5일 오픈.
아스킹 : 179,000. 다운 : 75,000. 12년 리스.
더원하시면 가능함. 아주 흥미있으신 분만 연락바람.
전화 : 596-6706 (Jimmy)

버라이어티 가게매매. 주매상 : 4,200.
리스 : 5년+5년. 아스킹 : 40,000+스탁.
렌트600불. 전화 : 266-7833 (Mr. 김)

Private Sale (Tailoring Store & Building)
Good Location & Good Opportunity
Phone : 533-3888 (Anton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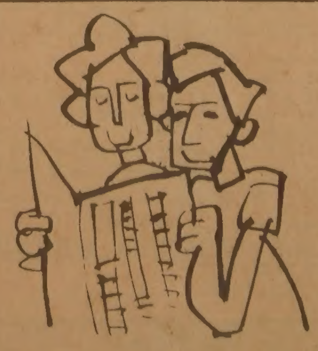
Fish & Chips for Sale
주 5일 영업.(Mon.-Fri.: 10:00a.m.-4:00p.m.)
주매상 : $4,000 아스킹 : $179,000 전화 : 759-4761 (Vasos)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Ossington & Bloor)
적당한 가격으로 팔 예정.
전화 : 531-5005(R) 531-1023(B) (Yoly)

(1)시간 짧은 Driving Hamberger Place
주매상: $8,500. 렌트: $1,700. 리스: 1985=5년옵션.
(2)주매상: $6,000. 렌트: $1,800. 리스: 1989+5년옵션.
Mrs. Woo. 전화 : 741-9170(B). 851-4717(R)
A.E.LEPAGE(Ontario)Ltd. Realtor.

Store Equipment for Sale
Dairy Box 1, 후리저(컴프레샤 포함)
전화 : 844-5719

◉가게 12만달러 15%모기지. 교통이 바쁜 지역에 2 베드룸 아파트. 최고조건, 주차장이 있고, 빈가게를 인수됨.
◉아파트 빌딩 : 7동. 2층벽돌집에 주차장과 3개의 벽난로 있음. 연수입 : $25,452. 아스킹 : 200,000.
Call Doris Burda 763-5555
Cholken Real Estate.



고국소식이 궁금하십니까?
한국일보를 구독하십시오.
원하시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구독신청 :
☎ : 533-2361

광고문의
☎ : 533-2361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VISA master charge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CEDARBRAE VOLKSWAGEN
666 Markham Rd. Scarboro.
전화 : 438-1900(B), 499-8589(R) 손명철(Michael son)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가구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숙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레이몬드미용실 (주관: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백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선물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일보 안내광고＊ 한국안내광고에서